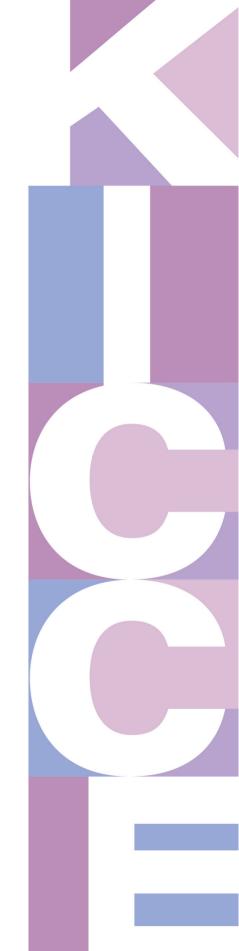
# 2023년도

# 해외육이정책 동향정보자료집









# 목차

일본	3
임신·출산지원	5
일·가정 양립	
양육지원	
- 유아교육·보육	
아동·청소년지원	
기타	
미국	47
양육지원	
- · · 유아교육·보육	
··· · · · · · · · · · · · · · · · · ·	
코로나19	
기타	
독일	75
일·가정 양립	
- · · · · · · · · · · · · · · · · · · ·	
유아교육·보육	
아동·청소년지원	
 돌봄	
기타	109
영국	117
양육지원	
유아교육·보육	
기타	





스웨덴	139
임신·출산지원	141
양육지원	
유아교육·보육	146
아동・청소년지원	153
코로나19	159
기타	160
중국	· 165
임신·출산지원	
일·가정 양립	
양육지원	
유아교육·보육	179
아동·청소년지원	184
기타	187
호주	189
임신·출산지원	191
일·가정 양립	
양육지원	194
유아교육·보육	197
돌봄	210
기타	212

# 2023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 일본

	임신·출산지원	
1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5
2	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	7
3	일과 불임치료의 병행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9
4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10
5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	11
6	아동 미래 전략 방침	14
7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에 대해	15
8	아동발달지원사업소 등 이용 지원 사업(둘째 자녀 이후 무상화)	16
9	불육증 검사비 지원 사업 개요	18
	일·가정 양립	
1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	19
2	양립지원 등 지원금 제도	20
	양육지원	
1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23
2	도쿄도 아동육아지원종합계획(제2기) (중간 검토판)	24
3	삿포로 부모-자녀 그림책 교류 사업	26
4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정비사업(아이와 함께하는 외출 사업) 실시 요강	28
5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	30
	유아교육·보육	
1	어린이집 등의 디지털화 추진사업 실시 요강	32
2	입학 준비금 신청 안내	34
3	'아동 등하원 제도(가칭)'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검토회 개최	35
	아동·청소년지원	
1	NPO와 연계한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	37
2	NPO 등과 연계한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 실시 요강	40
3	삿포로 아동 심리 진료 네트워크 사업	42
	기타	
1	한부모 여성을 위한 공간 '커넥팅 스페이스(Connecting Space)' 개최	44
2	10월은 '입양부모의 달'	45

# **\$** 임신·출산지원

# 1.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 ■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제도 목적

- 핵가족화로 인하여 지역 내 유대감, 연대감이 감소해지는 가운데, 고립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임산부·육아 세대도 적지 않음. 따라서 모든 임산부·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출산·육아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지자체의 노력으로 임신부터 출산·육아에 이르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긴밀히 상담해 주고, 다양한 요구에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반주(件走)형 상담 지원을 확충하고 경 제적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함.
- \* 반주형: 옆에서 함께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원

# ■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 제도 내용

- 지자체가 임산부 등록 시기부터 임산부와 특히 0세~2세 사이의 영아를 키우는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육아 등의 계획 마련을 위한 긴밀한 면담이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반주(件走)형 상담 지원을 확충함.
- 임산부 등록, 출생 신고를 한 임산부 등에게 출산 및 육아 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육아 지원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경제적 지원(총 10만 엔 상당)을 실시함.

## ■ 반주(伴走)형 상담 지원

- 1) 면담 실시 시기: 임산부 등록 시, 임신 8개월 전후, 출생 신고부터 신생아 가정 방문 시기 까지
- 2) 면담 기관 및 면담자
- 육아 세대 포괄 지원 센터 등의 보건사·조산사와 같은 전문직, 또는 일반 사무직원, 회계 연도 임용 직원 등
- 친근하고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 이용 자 지원 전문원, 육아 지원원 등

- 3) 면담 대상자: 임산부, 산모
  - ※ 남편, 파트너, 동거 가족도 함께 면담할 것을 권장
- 4) 면담 내용 및 실시 방법: 설문 조사 응답 내용 및 육아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고 출산·육아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움. 온라인 상담 포함,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함.
  - ※ 설문조사·육아 가이드에 관한 양식은 정부가 제공

# ■출산·육아 응원 선물

- 1) 지급시기
- 출산 응원 선물(5만 엔 상당): 임산부 등록 시 면담 진행 후
- 육아 응원 선물(5만 엔 상당): 출생 신고부터 신생아 가정 방문 기간 중 면담 진행 후
- 2) 지급 형태(실시 방법)
-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실시 가능
- 출산·육아 관련 상품권(쿠폰)
- 임산부 건강 검진 시 교통비, 아기 용품 등의 비용 지원
- 산후조리·임시 돌봄·가사 지원 서비스 등의 이용료 지원 또는 이용료 감면
- ※ 지자체 판단에 따라 현금 지급도 가능하나,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는 쿠폰, 서비스 제휴와 같은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검토하길 권장.
- 3) 소급 적용자에 대한 지급 방법
- 제도 시행 전에 출산한 자: 제도 시행 후 10만 엔 상당을 일괄 지급
- 사업 시행 시기에 임신 중인 자: 임신 중에 5만 엔 상당을 지급하고, 출생신고 후에 5만 엔 상당을 지급할 것을 권장

# (단. 임신 주수에 따라 출생 신고 후 일괄 지급도 가능)

2023년 01월 11일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11908000/001035057.pdf

# 2. 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사업

- 2022년도 정부의 제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지속적이며 밀접 한 상담을 제공하는 '반주(伴走)형 상담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가 마련됨.
  - \* 반주형: 옆에서 함께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원
- 2023년 3월 1일부터, 신주쿠구에서는 본 지원금을 활용하여 '반주형 상담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합 실시하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반주형 상담 지원

- 임신 8~10주 전후: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고 유리카고 면담을 받음.
- 임신 8개월: 신주쿠구의 설문조사지에 답변하여 제출 (희망자는 면담 실시)
- 출산 후 4개월까지: 무럭무럭 아기 방문 실시
- 임신 8개월경: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임부 전원에게 설문 조사지를 송부함. 출산, 육아 와 관련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자는 면담을 실시함.
- 출산 후(무럭무럭 아기 방문): 생후 4개월 이내의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 지도원(조산사, 보건사 등)이 방문함.

# ▮경제적 지원(출산·육아 응원 기프트 지급)

- 1) 지급 대상 및 지급 내용
-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임신·출산을 한 자로, 신주쿠구가 실시한 면담을 받은 자

※ 타 지자체에서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현금이나 쿠폰 등)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임신 신고 시 '유리카고(ゆりかご) 면담'을 받은 자에게 출산 응원 기프트(임산부 인당 5만 엔 상당), 출산 후 '무럭무럭(すくすく:스쿠스쿠) 아기 방문'을 받은 자에게 육아 응원 기프트(신생아 인당 5만 엔 상당)」를 지급함.

# 2) 신청 방법 등

지급 대상자	지급 내용	신청 방법
2023년 3월1일 이후 지자체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한 자 <sup>1)</sup>	출산 응원 기프트5만 엔 상당	임신 신고 시 면담(유리카고 면담)을 진행하는데, 이때 신청서 기입 <sup>2)</sup>
2023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 를 양육하는 자	육아 응원 기프트 5만 엔 상당	출산 후 '무럭무럭 아기 방문' 시 신 청서 기입
2023년 3월 1일 기준 신주쿠구에 주 민 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4월 1 일부터 2023년 3월 말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급대상]		신주쿠구가 발송한 신청서, 설문조 사서에 필수 사항을 기입하고 5월 31일까지 송부함.
2023년 3월 1일 기준 신주쿠구에 주 민 등록이 되어 있고, 2022년 4월 1 일 이후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한 자		신주쿠구가 발송한 신청서, 설문조 사서에 필수 사항을 기입하고 5월 31일까지 송부함.

# 3) 기프트 지급

- 도쿄도가 발행한 육아 용품과 가전제품, 육아 관련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지급함.
- 자세한 사항은 도쿄도 사업 내용이 정해지면 공지할 예정이며, 기프트는 신청 후 1~2개월 내에 발송될 예정임.

2023년 02월 24일

출처: https://www.city.shinjuku.lg.jp/fukushi/syussan\_kosodate\_gift.html

<sup>1)</sup> 임신 등록 후에 유산 등으로 출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수령 가능

<sup>2)</sup> 임신 신고 시 면담을 받는 경우는 의료 기관을 통한 임신 진단이 필수임. 의료 기관을 통한 임신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출산 응원 기프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3. 일과 불임치료의 병행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 ■특정 불임치료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치료: 체외수정 및 현미경 수정(이하 '특정 불임치료'라 함.)
- 대상자: 특정 불임치료 이외의 치료법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없거나 지극히 낮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 부부(치료 첫날 아내의 연령이 만 43세 미만인 부부)
- 지워 내용
- ① 1회 15만 엔 (최초 치료에 한하여 30만 엔까지 지원)
- 최초 지원을 받았을 때, 치료 첫날 아내의 연령이 만 40세 미만일 때는 총 6회, 만 40세 이상 만 43세 미만일 때는 총 3회까지 지원
- 동결 배아이식(난자 채취는 포함하지 않음) 및 난자 채취하였으나 난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중지한 경우, 1회 7.5만 엔)
- ② 남성 불임 치료를 한 경우는 15만 엔(정자를 생식기에서 채취하기 위한 수술) 소득 제한 기준: 730만 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
- 본 제도는 2017년도에 제정된 기준으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자체만의 고유 제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 ③ 100% 국비 지원 항목
- 체외수정: 체외에서 수정시켜 임신을 유도. 난자를 채취하므로 여성의 신체적 부담이 큼. 주로 인공수정 후나 여성 불임의 경우에 활용
- 현미수정: 체외수정 중 인공적인 (난자에 주삿바늘 등으로 정자를 주입하는 등) 수정 방법
- 남성 치료: 현미경하 고환 내 정자 회수법(MD-TESE). 수술용 현미경을 이용하여 고환에 서 정자를 채취함.
- ■불임치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과 불임치료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 방식

- 유연근무제: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에 총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근로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하는 제도임. 1일 근무를 필수 근무 시간 (코어타임)과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대(탄력 근무 시간)로 나누고, 출·퇴근 시각은 근로자가 결정함.
- 반나절·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 휴가 제도
  - 반차 개념의 유급 휴가 제도: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유급 휴가를 반나절 단위로 줄 수 있음.
  - 시차 개념의 유급 휴가 제도: 노사 협정에 따라 5일 범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유급 휴가 를 부여할 수 있음.
- 텔레워크 제도
  -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하여 장소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방식을 말함. 취업 형태,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이용 대상자, 운용 방법 등은 각 회사마다 다름. 인터넷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본래 근무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택 등에서 일할 수 있음.

2023년 04월 28일

출처: https://www.mhlw.go.jp/bunya/koyoukintou/pamphlet/30.html

# 4. 산부인과·소아과 온라인 건강 상담

## ■온라인 건강 상담의 개요

-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온라인 건강 상담 시범 운영 결과, 이용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4월부터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함.
- 임신기부터 육아기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조산사가 24시간 대응해주는 온라인 건강 상담 제도임.

- 도쿄도 히노시(日野市)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임신 전후 생활에 대한 고민, 자녀의 성장과 육아에 관한 고민 등 사소한 상담도 가능함.
  - ※ 난임, 산부인과 질환, 유산 및 사산에 관한 상담도 가능.

# ▮대상자

- 도쿄 히노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임산부, 육아 가정, 15세 미만 아동

# ▮이용 가능 서비스

- 24시간 상담 : 24시간 웹에서 상담 가능하며, 질문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함.
- 야간 상담 :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 회당 10분씩 예약제로 이용 가능. 온라인 채팅, 음성 통화, 영상 통화로 지원함.
- 주간 조산사 상담 : 월, 수, 금 오후 1시~오후 5시, 별도의 예약 없이 조산사와 메시지 채팅 가능
- 관련 의료 신문기사 공유
-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월 2회 유튜브 라이브 중계 ※모든 서비스는 무료임.

2023년 05월 01일

출처: https://www.city.hino.lg.jp/kosodate/kenko/soudan/1020373.html

# 5. 교토시 스마일마마 안심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

■일본 교토시는 출산 후 여성이 지역 내에서 육아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일마마 안심 사업(출산 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산부인과 또는 조산소(助産所: 출산 또는 신생아 케어 등을 돕는 합법시설로, 조산원(院)으로도 불림) 등을 통해, '출산 후 단기 체류'와 '출산 후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산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산모의 심신 케어와 육아 지원 등을 제공하여, 출산 후 1년까지 산모와 아기를 지원함.

# ▮이용 대상

- 교토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교토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및 산모 중에서,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를 통한 심신의 케어가 필요하고, 다음 ①, ②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① 출산 후 회복 상태가 좋지 않아 산후 관리가 필요한 산모. 또는 육아에 불안감을 느끼고 수유나 목욕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조언, 지도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자
- ② 출산 후에 친족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가사, 육아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
  - ※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는 제외
  - ※ 산모와 자녀 모두 교토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해당 서비스 신청은 거주 지역 구청, 지역 보건복지센터 아동육아실에서 가능함.
  - ※ 구청, 지역 보건복지센터가 실시하는 모자 보건 사업이나 가정 방문, 면접 등을 통해, 교토 시는 해당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미리 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실시함.

## ■ 지원 내용

구분	시간	지원 내용
출산 후 단기 체류	원칙상 이용 시작 후 24 시간 이내의 이용을 1일 로 계산	1. 모체 관리 및 생활 상담 및 지도 2. 유방 관리, 유방 문제 해결 3. 성장 및 발달 체크
출산 후 데이케어	원칙상 오전 10시부터 오 후 6시까지 이용을 1일로 계산	4. 체중 및 배설 체크 5. 피부 관리 6. 수유 방법에 대한 조언 및 지도

# ▮이용 시기

- 생후 1일~1세 미만의 영아의 이용을 원칙으로 함. 이용 기간은 서비스별로 최대 7일까지 로 함(시설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름).

# ▮ 이용료(1일 기준)

- 영아 연령 생후 3개월 미만

소득 계층 구분	출산 후 단기 체류	출산 후 데이케어
고소득 세대(※1)	12,920엔	6,300엔
일반 세대	5,170엔	2,52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2), 생활 보호 세대(※3)	510엔	250엔

# - 영아 연령 생후 3개월 이후

소득 계층 구분	출산 후 단기 체류	출산 후 데이케어
고소득 세대(※1)	12,320엔	6,100엔
일반 세대	4,930엔	2,44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2), 생활 보호 세대(※3)	490엔	240엔

- ※ 1. 이용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1월~5월 신청은 전전년도 소득)의 합계액이 730만 엔 이상인 세대 (소득 범위 및 계산 방법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함)
- ※ 2. 서비스 이용 년도(4월~5월 신청은 전년도)의 개인 주민세가 비과세 대상인 가구
- ※ 3.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른 피보호 세대

2023년 06월 13일

출처: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168986.html

# 6. 아동 미래 전략 방침

■ 2023년 1월, 기시다 총리가 신년 기자 회견에서 표명한 저출산 대책을 '이차원 저출산 대책'이라 함.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과제"이며 "아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2023년 6월 기본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관련 예산 2배 이상 책정을 위한 큰 방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아동 미래 전략 방침〉은 '이차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기초가되는 기본 방침임.

# ▮ 아동·육아정책 강화

- 1) 실태
- 젊은 세대는 결혼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도, 소득이나 고용에 대한 불안 등으로 미래 전망을 그릴 수 없음.
- 육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이 있음.
- 육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과 육아 세대의 불공평함이 존재함.
- 2) 세 가지 기본 이념
-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림.
- 사회 전체의 구조 및 의식을 바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함.
- 모든 아동·육아 세대를 끊임없이 지원함.
- ▮가속화 플랜: 향후 3년을 집중 시행 기간으로 잡고, 가능한 한 앞당겨 플랜을 실시함.
  - 1) 구체적인 시책
  - 아동수당 지급 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급 기간을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연장함. 고등학생 자녀 부양 공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리가 필요함. 셋째 자녀부터의 수당은 3만 엔으로 함. 24년도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함.
  - '출산·육아 응원 지원금(10만 엔)' 제도 마련을 검토함.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 비용(정상 분만)의 보험 적용을 포함해 출산에 관한 지원 등을 한층 더 강화할 방안을 검토함.

- 단기 근로자 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근로자가 106만 엔이라는 기준을 넘어도 실수령 수입이 역전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연장이나 임금인상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2023년 내에 확정하고 실행함.
- 공영주택 등에 육아 세대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향후 10년간 주택 약 20 만 가구를 확보함.
- 교직원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보육교사 등에 대해 추가적 처우 개선을 검토함. 매월 일정 시간 내에서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시설을 창설함.
- 방과 후 아동 클럽의 대기 아동 수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진행함.
- 한부모를 고용하여 인재 육성·임금 인상에 힘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남성 육아 휴직 취득에 대한 현행 정부 목표를 대폭 상향함.
- 부와 모 모두의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 휴직 지원비 비율을 현행 67%에서 80% 정도로 인상. 육아 휴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심신을 케어하기 위해 선택적 주4일제 근무 보급을 추진함.

2023년 06월 13일

출처: https://partsa.nikkei.com/parts/ds/pdf/20230613/20230613.pdf

# 7.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에 대해

- 홋카이도 도내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국가의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을 활용하여 홋카이도 지역 내 결혼·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
- 홋카이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교부결정 총액은 8,919,000엔(한화 약 8,200만원)임.
  - 결혼지원센터 운영업무(교부결정액: 5,811,000엔)
  - : 기존 삿포로 시내에 마련했던 '결혼 지원 센터 홋카이도 결혼 활동 정보 컨시어지'를 온라 인 유영으로 확장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 상담이나 온라인 결혼

활동 이벤트를 개최함.

- 차세대 교육 코디네이터 사업(교부 결정액: 2,088,000엔)
- : 학교·기업 등과 제휴하면서, 젊은 세대(고등학생·대학생 등)를 대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의 의미와 인생 계획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스스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이의 긍정적인 의식 양성을 도모함.
- 지자체와의 제휴를 통한 육아지원 대응역량 강화 사업(교부 결정액: 283,000엔)
- : 지자체 육아지원과 관련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세미 나를 개최함. 그 외에도 지역과 연계한 남성용 강좌를 개최하여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의식을 향상시킴.
- 신호생활 지원 사업 (교부 결정액: 98,215,000엔)
- :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 비용, 주택 리모델링 비용, 주택 임차 비용 및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

2023년 08월 17일

출처: https://www.pref.hokkaido.lg.jp/hf/kms/chiikisyousikaH31.html

- 8. 아동발달지원사업소 등 이용 지원 사업(둘째 자녀 이후 무상화)
- 아동발달지원사업 등을 이용하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지닌 보호자의 자기부담금을 가구 수입과 관계없이 무상화 함으로써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함.
- 이용자 부담액을 아동발달지원사업소에 지불한 후, 도쿄도가 이용자 부담액을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임(실질적으로 이용자 부담액이 0엔).
  - ※ 정부 제도로 3~5세 아동의 이용자 부담은 이미 무상화되어 있음.
  - ※ 이용자 부담 이외의 비용(식비 등 현재 실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계속 지불해야 함.

# ■무상 대상 서비스

-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가정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어린이집 등 방문 지원 ※ 방과후 등 데이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

# ■ 대상 아동

-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0~2세 둘째 이상의 자녀
- ※ 연도 중간에 3세가 되는 경우라도 3세 첫 3월 31일까지는 대상으로 함.
- ※ 주오구(中央区), 분쿄구(文京区), 스미다구(墨田区), 도시마구(豊島区), 아다치구(足立区), 가쓰시카구(葛飾区) 거주자는 이미 각 구에서 독자적으로 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불필요함.

# ▮신청방법

- 신청은 이용 시작 월의 월말까지 신청하고,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 ▮신청 지급 절차

- 1)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양식을 도쿄도에 제출하여 신청
- 2)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도쿄도에서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
- 3) 도쿄도에서 지불에 관한 내용을 안내
- 4) 3)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필요 서류 제출
- 5) 지정 계좌로 지급액을 이체해 줌.
- 6) 지급 완료 후 도쿄도에서 지급 통지서를 송부함.

2023년 09월 14일

출처: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shougai/nichijo/syougaizi/dainishimushouka.html

# 9. 불육증 검사비 지원 사업 개요

- 도쿄도에서는 불육증 여성을 대상으로 불육증 위험요인을 특정해 적절한 치료와 출산을 위한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19년 4월 1일 이후에 해당 검사를 받은 여성이 지원 대상이 됨.
  - \* 불육증: 2회 이상의 유산이나 사산을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임신을 하지 못함.
- ■불육증 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1) 검사를 받았을 당시에 혼인(사실혼 포함) 상태일 것
  - 2) 검사를 받은 날 기준. 여성의 연령이 43세 미만일 것
  - 3)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 일까지, 도쿄도에 주민등록 신고가 된 상태일 것
  - 사실혼일 경우, 부부 모두가 도쿄도 내의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4) 2회 이상의 유산 혹은 사산 이력이 있거나 의사가 불육증이라 진단한 경우
- ■불육증 위험요인을 식별하긴 위한 검사는 다음과 같음.
  - 자궁 형태 검사, 내분비 검사, 부부 염색체 검사, 항인지질 항체, 혈전성 소인 스크리닝(응고 인자 검사), 융모 염색체 검사, 선진 의료로 고시된 불육증 검사(후생 노동성 통지로 변경되는 경우 있음)

# ■대상 기간 및 비용

- 남편 또는 아내의 검사를 받을 날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1년간 검사 시 지불한 비용이 지원 대상임.

# ■ 지원 금액 및 회수

- 지원금은 최대 5만 엔이며, 지원 횟수는 부부 당 1회에 한 함.

2023년 10월 13일

출처: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kosodate/josei/fuikushoukensa/gaiyou.html

# \$\$ 일·가정 양립

- 1. 가사·육아 서포터 사업
- ■임신 중이나 영아기(2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서포터를 파견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해 임신기 및 산후에도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스미다구와 제휴한 서포터 파견 사업자의 가사·육아 서비스 이용 시, 스미다구가 교부하는 이용권을 서포터 파견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일정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사전에 스미다구에 이용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대상자

- 스미다 구에 주소가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임신 중인 자
- 2) 0~2세까지의 영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서비스 장소

- 스미다 구 내에 있는 이용자의 자택. 단, 예방접종을 위한 병원 방문 등 동행 지원의 경우 는 제외

# ■ 서비스 이용 사유

- 가사 또는 육아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산후 이용 시, 보호자와 자녀가 자택에 함께 머무르고 있어야 함.

#### ■서비스 내용

- 가사 지원: 취사, 세탁, 청소, 쇼핑
- 육아 지워
- 목욕 보조: 목욕 준비, 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 수유와 식사 보조: 우유 만들기, 수유, 식사 보조 등
- 자녀 돌봄: 기저귀 교체, 옷 갈아입기, 놀이 등
- 형제자매 돌봄: 취학 전 나이인 형제, 자매의 옷 갈아입히기, 놀이 등
- 동행 지원: 쇼핑, 병원, 공공 기관 수속 등 동행

# ▮이용권 관련

- 스미다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을 지급함. 서비스 이용 시 서포터 파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 이용권은 시간당 1장 필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포터 파견이 2명인 경우에는 이용 시간 만큼의 이용권과 서포터 2명분의 이용권이 필요함. (예: 2시간 이용으로 서포터 2명이 파격될 경우. 이용권 4장 필요)
- 이용권은 이용 대상인 아동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함.
- 다태아 외 임신기의 경우는 출산일까지 유효함.

2023년 09월 22일

출처: https://www15.j-server.com/LUCSUMIDA/ns/tl.cgi/https%3a//www.city.sumida.lg.jp/kosodate\_kyoui ku/kosodate\_site/sodan/kajiikuji.html?SLANG=ja&TLANG=ko&XMODE=0&XCHARSET=utf-8&XJSID=0

# 2. 양립지원 등 지원금 제도

- '양립지원 등 지원금 제도'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임. 2023년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3개 코스를 실시하며 일부 제도를 신설 및 확충함.
- ■출생 시 양립 지원 코스(육아 아빠 지원 지원금)
  - 육아휴직 등에 관한 정보 공표 가산(신설)
  - 자사의 육아 휴직 취득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 경우, 지원금을 가산함.

- 주요 요건: 지원금 신청 전에 이하 1)~3)의 최근 연도 정보를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사이트 〈양립지원 광장〉에 공표한 경우 지급액을 가산함.
- 1) 남성의 육아휴직 등 취득 비율
- 2) 여성 육아휴직 취득 비율
- 3) 남녀별 평균 육아휴직 취득일 수
- 지원금: 기존 지급액에서 2만엔 가산(사업주당 1회 한정)

# ■돌봄 이직 방지 지원 코스

- 개별 주지·환경 정비 가산(신설)
- 돌봄 휴직을 취득하거나 돌봄 양립 지원 제도를 이용한 대상 근로자에게 제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지시키고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쉬운 고용 환경을 정비한 경우, 지원금을 가 산하여 지급함.
- 주요 요건: 1)과 2)를 동시에 실시
- 1) 대상 근로자에 대한 개별 주지
- 돌봄 휴직·돌봄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자사의 제도 내용 및 신청 장소
- 돌봄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요건, 급여액, 절차
- 돌봄 휴직 기간 중 사회 보험료에 관한 취급 내용
- 대상 근로자가 돌봄 휴직을 취득한 경우의 임금,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의 대우
- 대상 근로자의 돌봄 휴직 취득 후의 급여, 업무 배치 등의 근무 조건
- 돌봄 휴직이 종료된 후, 근무 시작 시기나 휴직 중의 사회보험료 지불 방법
- 2)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쉬운 고용 환경 정비: 사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중 2개 이상의 조치를 마련할 것
- 사내 근로자에 대한 돌봄 휴직·돌봄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연수 실시

- 돌봄 휴직·돌봄 양립 지원 제도에 관한 상담 체제 정비
- 돌복 휴직의 취득·돌복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에 관한 사례 수집. 해당 사례 제공
- 사내 근로자에 대한 돌봄 휴직·돌봄 양립 지원 제도의 내용이나 취득·이용 촉진에 관한 방침 주지
- 지원금: 돌봄 휴직(휴직 취득 시) 또는 돌봄 양립 지원 제도 지급액에서 15만 엔 가산

# ■육아휴직 등 지원 코스

-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특례(재개)
- 코로나 감염에 의한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교 시,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급 특별 휴가 제도의 규정화 및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교를 한 경우에도 근무할 수 있는 양립 지원 제도를 사내에 주지시키고, 실제로 유급 휴가를 취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 ※ 2023년 4월 이후 유급 휴가를 취득한 경우를 대상으로 접수를 재개함.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참조.
- 지원금: 1인당 10만 엔, 사업주당 최대 10명까지(최대 100만 엔, 근로자 1명 당 1회 한정)
- 2) 육아휴직 등에 관한 정보 공표 가산(신설)
- 자사의 육아 휴직 취득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 경우,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 지급 요건은 '출생 시 양립 지원 코스'와 동일.
- 지원금: '육아휴직 취득 시', '직장 복귀 시', '대체 업무 지원', '직장 복귀 후 지원' 중 하나의 지급액에 2만 엔 가산(사업주당 1회 한정)

2023년 12월 02일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1082092.pdf

# **\$\$** 양육지원

# 1.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 ■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개요

- 생후 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나 3세 미만의 영유아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또한 임신 중 컨디션 저하로 가사나 육아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시즈오카 시(静岡市)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도우미를 파격하여 생활 및 육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도우미는 이용자(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 및 육아를 지원함. 사고 방지를 위해 도우미는 부재중인 가정 또는 자녀만 있는 가정의 방문할 수 없으며, 예· 적금 인출 등의 은행 관련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의 대상: 시즈오카시에 거주하는 자

- 생후 1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사나 육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신할 사람이 없는 가정
- 2명 이상의 3세 미만 영유아(만 3세 생일 전날까지)를 양육하는 가정
- 임신 중에 컨디션 저하로 가사, 육아 지원이 필요한 가정

# ■ 지원 내용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및 정리, 의류 세탁, 수선, 생활공간 청소, 정리 정돈, 생필품 쇼핑, 관련 기관과의 연락 등
- 육아 지원: 수유, 기저귀 교환, 목욕, 적절한 육아 환경 정비 등

## ▮이용 횟수 등과 요금

- 이용 시간: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까지, 1회 2시간 이내, 1일 2회까지(연속 4시간 이용도 가능)
- 이용횟수

- 1) 자녀 1명: 최대 30회까지 (만 1세 생일 전날까지)
- 2) 다자녀: 1년마다 최대 30회까지(만 3세 생일 전날까지)
- 3) 임산부: 총 20회 (출산일까지)
- 이용자 부담금: 시간당 900 엔
  - ※ 기초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으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 무료
  - ※ 주민세 비과세 세대(한부모 가정 제외): 시간당 450 엔
  - ※ 2016년 4월부터 혼인 이력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혼 한부 모 가정에도 세법상의 미망인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을 판정함.

# ■ 이용 방법

- 사전 등록 필요하며, 등록은 모자 건강수첩 교부 후부터 가능함.
- 도우미 파견 사업 이용자 등록 신청서 및 모자 건강수첩 표지(사진)를 각 구청 육아지원과 에 제출
- '육아 지원 도우미 파견 사업 이용자 등록증' 교부
- 이용 날짜가 정해지면 지자체와 계약을 한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예약
- 이용 날짜 등의 변경이나 취소는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이용 예정일 전날 오후 5시 이후의 일정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이용자 부담금이 발생함.

2023년 01월 04일

출처: https://www.city.shizuoka.lg.jp/744\_000041.html

- 2. 도쿄도 아동육아지원종합계획(제2기) (중간 검토판)
- 도쿄도 아동육아지원종합계획(제2기)의 개요

- 본 계획의 성격: 아동육아지원법,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아동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이며, 복지, 보건, 의료, 고용, 교육 등에 걸친 아동·육아 지원 종합 계획임.
- 세 가지 이념
- 1) 모든 아동이 개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는 환경을 정비·확충함. 2)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육아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함. 3) 사회 전 체가 아동과 육아 세대를 지원함.
- 계획 기간: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 검토 경위: 도쿄도 아동육아회의에서 총 5회 심의

# ▮ 중간 수정 버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출산의 진행이나 코로나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아동·육아 시책을 더욱 확충함.
- 보육서비스·돌봄 단체에 관한 목표를 업데이트 함.
- 아동 수 증감 상황을 감안하여 재검토 함(2019년과 비교)
-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수 4.6만 명 → 3.8만 명 (-8.000명)
- 돌봄 단체 등록 아동 수 1.6만 명 증가 → 2.5만 명 증가(+9.000명)
- 계획 사업의 추가·수정
- 363개 사업 → 429개 사업(88개의 사업이 추가, 22개의 사업이 종료)

#### ■ 계획의 목표 및 정책과제

목표	정책과제	주요대응
	<ul> <li>임신·출산 관련 지원 추진</li> <li>소아 의료·모자 의료 체제 정비</li> <li>육아 세대를 지역 사회가 지원하는 구조확충</li> <li>어린이 건강 확보·증진</li> <li>어린이 성장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li> </ul>	<ul> <li>도쿄도 출산·육아 응원 사업</li> <li>도쿄 엄마 아빠 응원 사업</li> <li>018서포트(도쿄도에 거주하는 0~18 세까지 아동 1명 당 월 5000 엔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제한 없이 전 세대가 지급받음. 2024년 1월 시행 예정)</li> </ul>

목표	정책과제	주요대응
목표2) 영유아기 교육, 보육의 확충	- 취학 전 교육의 확충 - 보육 서비스의 확대 - 인정 어린이원 확충 -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의 원활한 연결	- 둘째 아이(0~2세) 보육료 무상화 - 다양한 타인과의 교류 기회 창출
목표3) 어린이 성장 단계 에 맞춘 지원 강화	<ul><li>아동이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li><li>차세대를 담당할 인재 만들기 추진</li><li>아동 공간 만들기</li></ul>	- 도쿄 유스 헬스케어 추진 사업
로 하는 아동 및	- 자녀의 권리를 위한 시도 - 영 케어러(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 아동 빈곤대책 추진 - 아동학대 미연 방지와 대응력 강화 - 사회적 양호체제 확대 -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추진 - 장애아동 시책 확대 - 만성적 질병을 안고 있는 아동 등의 자립 지원 - 외국과 관련된 아동에 대한 지원	<ul> <li>영 케어러 지원 사업</li> <li>아동상담소와 관련된 아동의 의견 표명</li> <li>등 지원</li> <li>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li> <li>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에 대한 지원</li> </ul>
목표5) 차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건강하 게 키우는 기반 정비	<ul> <li>육아와 일의 병행 실현</li> <li>어린이 범죄와 같은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 추진</li> <li>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추진</li> <li>양질의 주택과 거주환경</li> <li>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 정비</li> <li>아동·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li> </ul>	<ul> <li>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에 관한 제도</li> <li>예방을 위한 어린이 사망 검증(CDR: Child Death Review) 제도</li> <li>어린이·육아 응원 도쿄 사업</li> </ul>

2023년 03월 30일

출처 :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katei/kokosienkeikaku/kokokeikaku0503.html

# 3. 삿포로 부모-자녀 그림책 교류 사업

# ▮개요

- '삿포로 부모-자녀 그림책 교류 사업'은 그림책을 통해 자녀와 부모(보호자)가 서로의 마음을 파악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림책은 부모가 자녀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음.
- 4개월 영아의 건강검진 시, 또는 각 구의 육아정보센터에서 자녀 한 명당 그림책 한 권을 제공함.
- 시력이 불편한 부모를 위한 점자 그림책도 준비되어 있으며, 그림책 수령 시에는 모자건강 수첩을 지참해야 함.

# ▮대상

- 삿포로에 거주하는 부모(보호자)와 자녀(만 1세 생일까지)

# ■ 보육교사가 전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포인트

- "아기에게 그림책은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 1세 영아는 듣고 보는 감각을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림책 읽어주기는 이른 시기에 시작하여도 괜찮음. 영아가 기분이 좋을 때 부드럽게 안고 그림책을 천천히 들려주도록 함.
- 그림책 읽기 포인트
- 기본적으로는 또렷하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영아의 페이스에 맞게 페이지를 넘김.
- 보호자 무릎 위에 영아를 올려놓는 등 느긋하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줌.
- 영아는 같은 문구의 반복이나 의성어, 의태어('쾅'이나 '싱글벙글' 등 소리로 나타내는 말) 에 흥미를 느끼므로 리듬을 살려서 읽어주면 효과적임.
- 영아는 그림책 속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월령이 높아지면 그림에서 이미지를 확장하여 영아만의 세상을 만들어나가기도 함. 따라서 영아가 발견한 것에 대해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함.
- 또한 같은 그림책이라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읽는 사람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영아에게 다양하고 즐거우며 색다른 시간이 될 수 있음.
- 각 지자체의 육아정보센터나 보육·육아지원센터, 인정어린이원 무지개육아살롱에서는 다양한 그림책이 준비되어 있음. 그림책 대여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정에서 그림책 읽기를 할수 있음.

2023년 04월 05일

출처: https://kosodate.city.sapporo.jp/shiroishi/info/10758.html

- 4.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정비사업(아이와 함께하는 외출 사업) 실시 요강
-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 사업'은 어린이집, 아동센터, 시민회관, 도서관 및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수유 및 기저귀 교체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아이와의 외출 시 필요한 시설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안심하고 외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 본 사업의 실시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사업주: 본 요강에서 정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
  -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 마크(이하 '외출 마크'라고 함): 본 사업을 이미지화 한 디자인
  - 적합증: 외출 마크를 기재한 증서

# ■실시 주체

- 도쿄도 내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사업 내용

- 사업주는 이하의 설비를 설치해야 함.
- 수유 시설: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칸막이 등으로 수유 장소를 구분해 야 함.
- 기저귀 교체가 가능한 설비(아기 침대, 기저귀갈이대 등)
- 분유 포트 구비. 분유 포트가 없는 경우에는 온수 제공이 가능한 대체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음.
- 손세탁 시설

- 냉난방 시설: 시설 중앙에서 공기조절을 관리를 하는 경우, 아이 외출용으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음.
- 시설 정비 시에는 시설 상황에 따라 다음 사항에 힘써야 함.
  - 시설 내부 및 출입구의 단차를 없애고, 출입구 부근에 유모차 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모차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것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정비할 것
- 사업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시설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아이 외출 시설에 운영 관리 책임자를 둘 것
  - 아이 외출 시설의 출입구나 아이 외출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재해 등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히 힘쓸 것
- 시설의 우영 관리 책임자는 안전 관리 및 위생 관리 관점에서 다음사항에 힘써야 함.
- 화기, 보온, 청소 등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 유지
- 사고나 유모차 도난 방지 등 안전 관리
- 수상한 자의 침입 등을 방지
- 적합증 표시
  - 사업<del>주는</del> 교부된 적합<del>증을</del> 아이 외출 시설의 출입구나 창문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함.
- 사업 개시 신고
-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할 때 아이 외출 사업 개시신고에 따라 해당 도지사에게 신고함.

2023년 07월 19일

출처: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kosodate/akachanflat.files/youkou.pdf

- 5.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
-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급 대상자

- ①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② ①번 외에 주민세 균등 분할 액이 비과세인 육아 세대(\*) (기타 저소득 육아 세대) ※ 대상: 18세가 되는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장애아의 경우는 20세 미만)

# ▮지원금

- 아동 1인당 일괄 5만 엔

# ■실시 주체

- 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도도부현, 시(특별구 포함) 및 복지사무소 설치 지자체
- ② 기타 저소득 육아 세대: 시정촌(특별구 포함)
- ■비용: 전액 국비 부담 (※ 운영 관련 사무 비용도 전액 국비 부담)
  - 예산액: 1,551억 엔(사업비 1,485억 엔, 사무비 66억 엔)

# ▮지급 일정

- 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2023년 3월분 아동부양수당 수급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별 도 신청 불필요)
- ② 기타 저소득 육아 세대: 2022년도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 (한부모 가정 외 저소득 육아 세대)'을 수급한 세대 등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별 도 신청 불필요)
  - ※ ①. ②모두 최근에 수입이 감소한 세대 등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신청 필요)

- \* 2022년도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한부모가정 외 저소득 육아 세대)'을 수급한 세대 등에 지급
- 아동수당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 수급자로 2022년도 분 주민세 균등 분할액이 비과세인 자
-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2022년도분 주민세 균등 분할액이 비과세인 자
- 최근 수입이 감소한 세대

출처: https://translate.google.co.kr/?sl=auto&tl=en&text=%E4%BD%8E%E6%89%80%E5%BE%97%E3%8 1%AE%E5%AD%90%E8%82%B2%E3%81%A6%E4%B8%96%E5%B8%AF%E3%81%AB%E5%AF%B E%E3%81%99%E3%82%8B%E5%AD%90%E8%82%B2%E3%81%A6%E4%B8%96%E5%B8%AF%E 7%94%9F%E6%B4%BB%E6%94%AF%E6%8F%B4%E7%89%B9%E5%88%A5%E7%B5%A6%E4%B B%98%E9%87%91%0A&op=translate

# **♣** 유아교육·보육

1. 어린이집 등의 디지털화 추진사업 실시 요강

# ▮사업의 목적

- 어린이집 등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보육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이와 동시에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쉽게 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

# ■실시 주체

- 실시 주체는 구·시정촌(단, 중심 시는 제외)으로 함.

# ■ 사업 내용

- 1) 보육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보육사의 서류 작성 등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하 '보육업무지 원 시스템'이라 함)을 새로 도입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2) 등 하워 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워
- 등·하원 관리에 관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하 '등·하원 관리 시스템'이라 함)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또는 기존 시스템에 등·하원 관리에 관한 기능을 추가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3) 업무 개선 추진 지원
- 구·시정촌의 업무 위탁에 따라 ICT 전문 인력이 관내 어린이집 등을 순회하여 보육업무지 원 시스템의 도입, 업무 개선 추진, 의식 개혁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함.

# ■실시 요건

- 1) 보육업무 지원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대상 시설: 정부,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쿄도 내에서 2022년 4월 2일 이후에 개설된 다음 ①~④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 ① 아동 육아지원법(2012년 법률 제65호) 제31조 규정에 따라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아 적 정한 운영이 확보된 시설
- ② 아동 육아지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아 적정한 운영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
- ③ 인증 어린이집: 도쿄도 인증 어린이집 사업 실시 요강(2001년 5월 7일자 제1157호)에 규정된 도쿄도 인증 어린이집(이하 '인증 어린이집'이라 함)
- ④ 정기 이용 보육 사업(전용시설 및 임시시설) 및 임시 돌봄 사업(긴급 임시 돌봄)
- 2) 등·하원 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대상 시설: 도쿄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①~⑦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 ① 아동 육아지원법 제31조에 따라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아 적정한 운영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인가 어린이집, 유아교육 보육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 ② 동 육아지원법 제43조에 따라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아 적정한 운영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
- ③ 인증 어린이집
- ④ 정기 이용 보육사업(전용 시설 및 임시시설) 및 임시 돌봄 사업(기급 임시 돌봄)
- ⑤ 화아(病兒) 보육 사업: 도쿄도 병아 보육 사업 실시 요강에 규정된 화아 보육 사업
- ⑥ 인가 외 보육 시설: 아동복지법 제59조 2 제1항에 따라 지사 등에게 신고된 인가 외 보육 시설(거택방문형 보육사업 및 인증 어린이집 제외)
- ⑦ 아동관: 아동복지법 제40조에 규정된 아동관
- (3) 업무 개선 추진 지원
- 대상 시설: 도쿄도 내 소재하며, 다음 ①~④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 ① 아동 육아지원법 제31조에 따라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아 적정한 운영이 확보되어 있는 시설·인가 어린이집, 유보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 ② 아동 육아지원법 제43조에 따라 구·시정촌의 확인을 받아 적정한 운영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 가정적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거택방문형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
- ③ 인증 어린이집
- ④ 정기 이용 보육사업(전용 시설 및 임시시설) 및 임시 돌봄 사업(긴급 임시 돌봄)

2023년 03월

출처: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hoiku/ictsuishinjigyou.html

# 2. 입학 준비금 신청 안내

- '입학 준비금 신청 제도'는 내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세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입학 전에 지급해주는 제도임.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나,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함.
  - 1. 지급 금액: 64,300엔
  - 2. 지급 시기: 2024년 3월 중순(예정)
  - 3. 지급 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이체함.
  - 4. 대상 세대
    - 1) 2024년 4월 국공립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 세대
    - 2) 2024년 2월 1일 기준 다치카와 시(立川市)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 3) 신청 시점에 아동 부양 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소득 확인을 통해 자격이 인정된 세대
    - 4) 신청 시점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자(기초 생활 수급자는 생활보호비로 동일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
    - ※ 주의: 아동 부양 수당은 한부모 가정 등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아동수당과는 다른 개념임.

5. 신청 방법: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2024년 2월 1일까지 다치카와 시청 학무과 창구에서 신청.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

2023년 11월 29일

출처: https://www.city.tachikawa.lg.jp/gakumu/20191115.html

- 3. '아동 등하원 제도(가칭)'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검토회 개최
- 2024년도에 본격 시행예정인 '아동 등하원 제도(가칭)'의 시범사업을 실시함. 시범사업 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으나, 시범사업의 실시방향에 대한 검토와 시행방침에 대한 검토회를 개최하기로 함.
- ■본 시범사업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모든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고,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정비하는 동시에 모든 육아 세대에 다양한 근로방식과 생활방식을 아우르는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외에 월 일정 시간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업 요건과 상관없이 시간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등하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로함. 구체적인 제도는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의 제공 체제 상황도 파악하면서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설계할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2024년도부터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함.
-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보육국장이 전문가와 어린이원·유치원 등 관련 사업자, 지자체에 참여를 요청함. 본 검토회에서는 시범 사업 실시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2024년도 시범 사업 실시 방침을 정리하기로 함.
- ■주요 검토 항목은 '아동 등하원 제도'의 의의, 제도 시행 시의 유의점, 시설·제도 유형별제도 시행에 대한 이미지임. 검토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아동 등하원 제도〉에 대해	- 제도 개요 - '아동 등하원 제도'의 설립 이유 - 아동, 보호자에게 지니는 의의 - 일반 보육이나 임시 돌봄과는 차이점 -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고충, 보람은 무엇인지

구분	내용		
시범 사업 시행 시의 유의점	- 2024년도 시범 사업에 대해 - 시범 사업 시행 시 전 연령 공통의 유의점·논점은 무엇인지 - 연령별(0세아, 1세아, 2세아) 특징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 이용방법(정기이용, 자유이용)별 특징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 실시방법(일반형(원아와 합동 또는 전용실 독립실시형), 여유활용형)별 특징과 유의점은 무엇인지		
시설·사업 유형별 시행 이미지	- 어린이집·인정 어린이원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경우 - 소규모 보육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경우 - 가정적 보육 사업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경우 - 유치원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경우 -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경우		
기타	- 지원 가정에 대한 유의점 - 지자체의 지역실정을 반영한 시행을 위한 검토 사항 - 제도 시스템 구축		

2023년 12월

출처 : https://www.cfa.go.jp/councils/daredemotsuuen/

# \*\* 아동·청소년지원

1. NPO와 연계한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

#### ▮ 목적

- 아동 정책의 새로운 추진 체제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12월 21일(일본 내각 결정)을 바탕으로 NPO 등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아동 공간 마련이나 아동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기위한 활동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실시 주체

- 제도를 시행하는 주체(이하 '실시 주체'라 함)는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 실시 주체는 NPO등과 연계한 아동 공간 마련 지원 시범사업 기획 평가 위원회의 사전 평가를 통해 채택된 단체임
- ① 도도부현, 시정촌(특별구, 일부 사무 조합 및 광역 연합 포함)
- ②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 제공 및 지원 실시'한정: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 법인, 공익 사단법인, 일반 사단법인, 공익 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 기타법인
- 2) 1)-②에 기재된 법인은 신청 전년도 기준 법인으로 존재하며, 사업 실적이 있고 운영 상태가 양호함을 증명한 법인
- 3) 1)-②에 기재된 법인으로, 과거 법령 등을 위반한 부정행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에 한함)의 이력이 있는 법인은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이듬해로부터 1년~5년 사이 해당 부정행위가 상쇄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된 법인.

#### ■NPO 등과 연계한 아동 공간 마련 지원 시범사업 기획 평가 위원회

- 사업 신청에 대한 평가 및 채택한 각 사업의 실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NPO 등과 연계한 어린이 공간 마련 지원 시범사업 기획 평가 위원회(이하 '기획 평가 위원회'라 함)'에서 실시함.

## ■ 대상 사업

- 1) NPO 등 민간단체가 고안하여 실시하는 공간 마련이나 아동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그 사업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향후 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예시는 아래와 같음. 단,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예시 외의 다른 사업도 대상임.

## [사업 예]

- 비슷한 연령대의 직원이 운영하는 피어 카페(peer cafe)
- 야외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플레이 파크(모험 놀이터) 실시
- 학교의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한 카페 개설을 통한 지원
-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놀고 교류하며 성장하는 장소
- 지역사회의 아동 시설 보급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 연계
- 온라인상에서 공간 제공 및 지원 실시(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 검토를 위해)
- 2) 1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이어야 함.
- 3) 기획 평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채택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중 어린이 가정청 설립 준비 실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정한 것. 또한 본 사업은, 각 자치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함.
- 4)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사업 내용이 시범 사업의 취지와 확연히 다른 것
- ② 제3자에 대한 자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사업
- ③ 사업의 대부분이 설비 또는 비품 구입인 사업
-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 ⑤ 지원 대상금이 50만 엔 미만인 사업

⑥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경리 업무를 보는 자가 동일할 경우

## ■ 사업 실시 주체의 책무 등

- 실시 주체는 사업을 신청할 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본 사업의 경리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각 담당자가 법령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서약해야 함.
- 경리 담당자는 사업자를 겪할 수 없음.
- 실시 주체는 교부 요강 8(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반드시 성과물을 제출할 것을 서약해야 함.
- 실시 주체는 사업이 채택된 경우 및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 개요 및 사업 결과 개요를 작성하여 해당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신속히 공표해야 함.
- 실시 주체는 본 보조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해당 감사를 반드시 받아 적정한 수지가 확보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실적 보고서와 함께 일본 어린이 가정청 설립 준비실에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던 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함.

#### ▋공표

- 부정행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에 한 함)를 한 법인이 본 사업의 지원금 반환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정행위 등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함. 단, 해당 부정행위의 내용이 사회적 영향이 작고 악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타

- 실시 결과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정부에 보고할 것.
- 실시 주체에서는 별도로 실시 결과 등 사업 실시 상황에 대해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절 히 응할 것.

#### ■ 경비 지원

-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교부 요강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한

2023년 02월 28일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1045426.pdf

## 2. NPO 등과 연계한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 실시 요강

#### ▮ 아동 공간 조성 지원 시범 사업의 목적

- 아동 정책의 새로운 추진 체제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12월 21일(국무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NPO 등 민간단체의 공간 조성이나 아동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사업 실시 주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함.

- 정부가 정한 NPO 등과 연계한 아동 공간 만들기 지원 모델 사업 기획 평가 위원회의의 사전 평가를 통해 채택된 단체
- ①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 일부 사무 조합 및 광역 연합 포함)
- ② 전국 대상 온라인 공간 제공 및 지원 실시: 사회복지법인,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공익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기타 법인

#### ■ 대상 사업

- NPO 등 민간단체가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공간 마련, 또는 아동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법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향후 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면 추가로 인정 가능
- 피어카페(peer cafe: 발달장애 등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상담하고 대처 방법 등을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 야외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 시설(모험 놀이터)
- 고등학교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카페 오픈 지원
-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교류하며 성장하는 공간
- 지역 공간 보급, 정착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역 연계
-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야 함.
- 위원회의 평가 결과, 채택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중 아동가족청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 더불어 각 지자체의 다양한 대처를 폭넓게 검토하기로 함.
- 다음 조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내용이 시범 사업의 취지와 확연히 다른 것
- 제3자에 대한 자금 교부를 목적으로 한 사업
- 사업의 대부분이 설비 또는 비품 구입 등인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
- 지원 대상액이 50만 엔 미만인 사업
-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겸직인 경우

#### ■비용 지원 관련

- 지원 기준액: 5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보조율: 100% (대상 경비의 10/10 상당)
- 보조 대상 경비
- 사업에 필요한 보수, 임금, 보상비, 여비, 소모품비, 연료비, 식비, 인쇄제본비, 공과금, 회의비, 위탁료, 사용료 및 임차료, 비품 구입비

• 간접경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

2023년 05월 10일

출처: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ef29659d-c621-4374-90e5-adede5ded412/8891fbb0/20230401\_procurement\_koubo\_npo\_renkei\_03.pdf

# 3. 삿포로 아동 심리 진료 네트워크 사업

- 삿포로 아동 심리 진료 네트워크 사업은 '아동 심리 컨시어지 사업'과 '아동 심리 연계 사업'으로 구성되며 아동정신과 의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용하여,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 향상을 목표로 함.
  - 1. 삿포로 아동 심리 컨시어지 사업
  -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기관이나 적절한 의료 기관 등을 안내하는 사업임.
  - 1) 이용방법
  - (1) 컨시어지 기관에 전화로 연락
  - (2) 삿포로 아동 심리 컨시어지 사업 이용 신청서 작성
  - (3) 컨시어지 기관에 신청서 제출
  - (4) 컨시어지 기관의 연락 대기
  - (5)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예약 절차 진행
  - 2) 대상 아동
  - (1)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예: 불안, 우울증, 섭식 장애 등
  - (2)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예: 자폐증, ADHD 등

- ※ 본 제도는 신청에 의해 이용하는 것으로, 본 사업 실시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진료 를 방해하는 것은 아님.
- ※ 정밀도 향상을 위해 추후 진료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음.
- 2. 삿포로 아동 심리 연계 사업
- 삿포로 시와 홋카이도 대학이 연계하여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연수회 실시, 의료적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실시함.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9차례〈삿포로 아동 심리 진료 네트워크 사업 연수회〉를 개최
- 전단지, 가이드북 등이 있어 신청 가능함.

2023년 11월 02일

출처: https://www.city.sapporo.jp/shogaifukushi/kodomosinryonet.html

# \*\* 기타

- 1. 한부모 여성을 위한 공간 '커넥팅 스페이스(Connecting Space)' 개최
- ■일본 교토시에서는 외로움, 고립으로 불안과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부모 여성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본 사업은 여성과 사회와의 연결 회복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거처 만들기(피어 서포트)의 일환으로 '커넥팅 스페이스(Connecting Space)'(제1회, 제2회)를 개최함.

#### ■일시 및 내용

일시	개요	주요 내용	
제1회 9월 9일	자녀와 즐겁게 사는 싱글맘 상담카페 - 취업 상담·자녀의 학습 지원·장학금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서로의 고민에 대해 소규모 그룹으로 논의한후 각 지원단체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따뜻한 토크 타임 • 개별 상담	
제2회 10월 7일	출장 맘카페: 한부모 여성을 위한 경제 세미나 - 고 물가로 인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가계 관 리 방법과 교육비, 저축, 노후자금 등 한부모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줌. - 동일한 관심을 가진 자와 교류하고 강사의 조 언을 받을 수도 있음.	• 경제 전문가와의 미니 토크 • 따뜻한 토크 타임&경제 전문가의 조언 • 비영리 법인 푸드뱅크 교토에서 식품 무료 제공	

#### ▮참여 단체 및 강사

- 제1회: 교토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유메아스, 사회복지법인 광량복지회, 공익재단법인 교 토시 유스서비스협회
- 제2회: 쿠보타 아키미(FP 오피스 우먼플러스 대표, 사회보험노무사, 파이낸셜플래너)

# ▮대상

-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예정자도 포함)
  - ※ 교토 시내 거주,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

■ 정원은 회당 20명(응모자 다수인 경우 추첨)이며, 수강료는 무료임,

2023년 07월 31일

출처: https://www.city.kyoto.lg.jp/bunshi/page/0000315270.html

# 2. 10월은 '입양부모의 달'

■ 아동가족청은 10월을 입양부모의 달로 정하고, 입양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 1) 입양 제도에 관한 특설 사이트 개설: 입양 제도의 기본 정보나 디지털 포스터·리플릿, 현역 양부모나 양부모 대상 양육 포괄 지원 기관과의 인터뷰 등을 게재한 특설 사이트를 개설하였음. https://globe.asahi.com/globe/extra/satooyanowa/
- 2) 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홍보: LINE, Facebook, Google, Yahoo, 아사히 신문 디지털, YouTube 광고를 활용하여 특설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함.

#### ■TV를 활용한 홍보

- 니혼TV. TV아사히 계열에서 전국 단위의 단기 CF를 방영함.

#### ■신문 광고를 활용한 홍보 실시

- 10월 1일에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도쿄 신문의 전국판 조간 신문에 홍보 게재

#### ▮심포지엄 개최

- 전국 지자체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 개최(12월에는 입양 가정에서 자란 당사자 등이 등단하는 좌담회 개최 예정)

#### ■ 포스터·리플릿 배포 및 게시

- 수도권 대중교통(일부)에 포스터 게시. 지자체를 통해 전국 공공시설·공공기관에서 포스터·리플릿의 게시 및 배포를 요청

# ■지자체와 제휴 홍보

- 지자체와 제휴하여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홍보를 실시(참고 : 2022년도의 대처 사례-지역 스포츠 팀과 협동으로 이벤트 개최, 리플릿·동영상 제작 등)

2023년 9월

출처 : https://www.cfa.go.jp/policies/shakaiteki-yougo/satooya-gekkan/

# 미국

양육지원				
1	노동부, 전국 보육료 데이터를 통해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산출			
2	보건복지부, 기저귀 지원 사업에 추가 투자			
	 유아교육·보육			
1	미국 최초의 보육·교육 인력센터 출범 발표	51		
2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전문 개발 시스템			
3	보육 시스템 강화 등 50가지 지시사항을 포함한 행정명령 발표			
4	2022년 가을 학기 어린이집(Preschool) 이용률 보고서			
5	보육교직원 이직에 관한 보고서			
6	지방 보육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안 발의			
7	시간 외 보육법(After Hours Child Care Act) 발의	58		
8	보육 접근성, 경제성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정 제안	59		
9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비 절감 및 어린이집 이용을 높이기 위한 법안 발표	59		
10	뉴저지 주 애보트 프리스쿨 프로그램 품질에 관한 보고서	60		
11	미국 교육부, 유치원 학습 공동체 출범 발표	61		
12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개정안 발표	62		
13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장애 아동 포함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성명 발표	63		
	아동·청소년지원			
1	미국 최초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설립에 2천만 달러 지원	65		
1	보건복지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66		
	기타			
1	2021년 미국 영유아 과일, 채소, 가당음료 섭취 보고서	68		
2	아동의 친족 돌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위탁 가정"의 정의 개정 제안	69		
3	미취학 아동의 긍정적인 유아기 경험과 학교준비도에 관한 최신 연구	69		
4	아동가족부, 의료-법률 파트너십에 160만 달러 지원	70		
5	아동가족부, 주거 지원 서비스 강화에 210만 달러 지원			
6	유아 수학 교육과정 빌딩블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72		
7	아동 식품 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안 정비	73		

# **\$\$** 양육지원

- 1. 노동부, 전국 보육료 데이터를 통해 가정의 보육비용 부담 산출
- 2023년 1월 24일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는 새로 출범한 국립 보육료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 of Childcare Price)를 분석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산출하고, 보육에 대한 더 큰 연방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함. 해당 데이터는 2,360개 지자체 보육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노동부의 여성국(Womens' Bureau)이 관리하는 국립 보육료 데이터베이스는 보육기관 유형, 아동의 연령 및 지역에 따라 보육료가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줌. 데이터는 0세~12세 아동을 위한 센터 및 가정 기반 기관의 중앙값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자체 수준의 보육료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공공 자료임.
- 47개 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1명의 보육료는 \$4,810(한화 약 592만원, 소규모 지역, 취학아동, 가정기반시설 기준)에서 \$15,417(한화 약 1,898만원, 대규모 지역, 영아, 센터기반시설 기준)로 나타남.
-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22년 기준 \$5,357(한화 약 659만원)에서 \$17,171(한화 약 2,114만원) 사이임. 이는 유상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1명당, 중산층 소득의 약 8%~19.3% 사이에 해당함. 노동부는 보육료와 해당 보육료가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자체별로 보여주는 지도를 발표함 .

(링크: https://www.dol.gov/agencies/wb/topics/childcare/price-by-age-care-setting).

2023년 01월 24일

출처: https://www.dol.gov/newsroom/releases/wb/wb20230124

- 2. 보건복지부, 기저귀 지원 사업에 추가 투자
- ■보건복지부(HHS)는 아동가족부(ACF)를 통해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에 820만 달러(한화 약 108억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이는 2022년 9월 최초로 시도된 기저귀 지원 실험 프로젝트(Diaper Distribution Demonstration and Research Pilot)의 연장선으로 광범위한 기저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수혜자뿐만 아니라 6개 주와 1개 부족이 추가될 예정임. 해당 추가 투자금으로 프로젝트 비용은 총 1,620만 달러이며 총 12개 주와 2개 부족을 지원 할 수 있는 규모임.
- 이번 추가 지원에 포함되는 6개 주는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오하이 오, 유타이며 1개 부족은 레이크 트래버스 보호구역의 시세톤-와페톤 오야테임.
- ■보조금 수혜자는 지역사회 봉사 기관, 사회 복지 기관 및 지역 기저귀 은행과 협력하여 기존 기저귀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확장하며, 기저귀가 절실히 필요한 가족을 돕기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기저귀 지원 사업은 기존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기저귀 지원 외에도 구체적인 지원을 확장할 예정임.
- 기저귀 구매비용은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총소득 8%를 차지할 수 있음. 기저귀와 기타 용품에 대한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가정의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음이 확인됨. 지난 2022년 9월 아동가족부의 지역사회서비스 부서를 통해 애리조나,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버지니아 및 워싱턴 주의 기관에 8백만 달러의 보조금이 수여된 바 있음.

2023년 05월 02일

출처 :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hhs-awards-additional-82m-expand-pilot-diaper-distri bution-program

# **\$**\$ 유아교육·보육

- 1. 미국 최초의 보육·교육 인력센터 출범 발표
- ■미국 보건복지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아동가족 관리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을 통해 새로운 국가수준의 보육·교육 인력센터(New National Early Care and Education Workforce Center) 출범을 발표함. 해당 기관은 주, 지자체, 지역사회 및 소수 부족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직원의 신규 채용 및 유지를 개선하기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자한 결과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이후 미국 보육사업의 약 80,000개의 일자리, 약 7.5% 인력이 감소한 상황임. 많은 기관들은 이러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숙련된 교직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미국 보육·교육 교직원은 대다수가 여성이며 상당수가 빈곤층에 속해 있음. 이들은 영유아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에서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에 속함.
- ■이번에 출범한 보육·교육 인력센터(ECE Workforce Center)는 연구 및 기술 지원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 교직원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자격증 및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경력 파이프라인 구축 2) 교직원의 경제적 보상과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마련하고 구현
- 아동가족관리국은 향후 5년 동안 보육·교육 인력센터를 출범하고 실행할 최선의 조직을 선별하기 위해 경쟁 입찰 과정을 진행함. Child Trends는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BUILD Initiative, ZERO TO THREE,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University of Delaware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보육교육 인력센터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예정임.

2023년 02월 02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hhs-launches-first-national-early-care-and-educationworkforce-center

#### 2.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전문 개발 시스템

- 2017년 아동가족부의 기획연구평가국은 Mathematica에 영유아 교직원 역량 개발 연구 사업(Infant and Toddler Teacher and Caregiver Competencies)을 의뢰함. 이 사업은 영유아 교직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기존의 노력을 검토하고 향후 측정, 연구, 평가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온라인 영유아 교직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직원의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증거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함. 해당 보고서는 총 5개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음.
  - CDA with CLASS®
  - Children's Learning Institute (CLI) Engage
  - Maine Roads to Quality Professional Development Network (MRTQ PDN)
  - Virtual Lab School (VLS)
  - We Grow Together (WGT)

####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모두 영유아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 그룹을 다루고 있는 교육 코스를 선택할 수 있음. 그 중 한 프로그램은 영아 교직원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코스를 제공함.
- 프로그램 모두 하나 이상의 역량 체계 또는 영유아 교직원과 관련된 관찰 측정 도구를 갖추고 있음. 또한 최소 2개의 역량 체계 및 관찰 도구를 갖추고 있음.
- 프로그램 모두 영아 교직원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원을 제공함. 자기주도형 학습을 채택하고 있으며, 역량평가 방식은 상이함. 5개 프로그램 중 3개는 교실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자기성찰 활동을 권장함.
-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직원을 위한 특별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증거 기반으로 개발 됨.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pre/ittcc\_pdscan\_brief\_jan2023.pdf

2023년 03월 02일

출처: https://www.acf.hhs.gov/opre/report/exploration-online-professional-development-systems-suppor ting-competencies-infant

## 3. 보육 시스템 강화 등 50가지 지시사항을 포함한 행정명령 발표

- 2023년 4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보육 시스템 강화 등 50가지 지시사항을 포함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함. 보육 시스템에 관한 내용 발췌 요약본은 다음과 같음.
  - 1. 보육 인력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고용 개선
  - 보육교사의 시간 당 임금은 \$18이하로 미국 근로자 평균 \$28보다 낮음. 공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은 \$60,000(한화 약 8,050만원)로 공립어린이집 교사 \$49,000(한화 약 6,600만원), 헤드스타트 교사 \$35,000(한화 약 4,700만원)보다 높은 수준임. 이러한 교사 간 보상 및 혜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전략 구현을 지시함.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보조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확대 지침, CCDBG 보조급 환급률 확대. 건강보험 및 퇴직 혜택 확대, 정신 건강 지원 확대에 대한 지침 등을 포함됨.

#### 2. 가족지원 확대

- 연방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을 찾도록 지시함. 연방 지원 프로젝트 종사자의 보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존 자금 활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연방 직원의 경우 인사 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 보육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보조금 제공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지시함. 군인 가족의 경우 대기가 길어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여 국방부 군사 시설 내 보육 프로그램 개선을 지시함.
- 3. 돌봄 서비스 구축 및 확장

- 보조금 지급 방법을 검토하여 보육기관에 보조금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가족들이 선택 할 수 있는 고품질 보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도록 지시함. 연방 기금으로 고품질 조기 학습 프로그램 확장 지침을 업데이트 하여 학교 및 학구(School district)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헤드스타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 아동 가정 지원 확대를 지시함. 소규모 부족 가정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개설하고 보육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절차를 간소화함.
- 4. 주정부가 보육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기금을 사용하도록 권장
- 주정부는 TANF 기금의 최대 30%를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사용 할 수 있지만 평 균적으로 4%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TANF 기 금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도록 지시함.

2023년 04월 18일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18/fact-sheet-biden-har ris-administration-announces-most-sweeping-set-of-executive-actions-to-improve-care-in-history/

# 4. 2022년 가을 학기 어린이집(Preschool) 이용률 보고서

-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 부분적 반등 후 2022년 가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본 결과는 2020~2022년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 (NIEER) 전국 어린이집 학습 활동 설문조사(Preschool Learning Activities Surveys, 이 하 PLA)와 2019 전국 가구 교육실태조사(National Household Education Survey, 이하 NHES)의 영유아 프로그램 참여 모듈 조사를 바탕으로 함.
- ■PLA 조사결과 2022년 가을학기 기준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1%임(만 5세의 경우 유치원 입학 전 아동만 해당함).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은 3세 54%, 4세 65%, 5세 65%로 나타남. 2019년 NHES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만 3세 이용률은 49%에서 54%로 증가하였으며, 4세 이용률은 71%에서 65%로 감소함. 해당 결과는 단순 샘플링변동 또는 4세 유아의 저소득층 무료 공공 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

-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른 가정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간 소득 \$25,000(한화 약 3,352만원)미만 가정의 자녀는 연간 소득 \$25,000 이상 가정의 자녀보다 어린이집 이용률 회복이 느림. \$25,000 미만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률은 2019년 47%에서 2022년 35%로 감소했으며, \$25,000 이상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9년 62%에서 2022년 63%로 회복함. 이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률 참여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함.
- 2022년 가을학기 어린이집 미이용 사유에 대한 상위 답변으로는 한부모가정(82%), 비용 문제(41%), 코로나19에 대한 우려(35%) 등이 포함됨.
- 2021년 봄 PLA 조사 결과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81%는 무료 공공 프로그램이 제공된 다면 이용할 의사가 매우 높거나, 다소 높다고 응답함. 연간소득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연간 소득이 높은 백인과 비히스패닉의 부모보다 무료 공공 프로그램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03월 04일

출처: https://nieer.org/wp-content/uploads/2023/04/NIEER-PLA-SURVEY-FALL-2022-REPORT4.5.23-.pdf

#### 5. 보육교직원 이직에 관한 보고서

- ■센터 기반 보육시설(Center-based Child Care,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기관을 뜻함)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교직원과 영유아 모두에게 중요함. 교직원의 이직 또는 퇴사는 기관 입장에서 비용을 초래하고 영유아와 가족에게는 서비스 연속성의 부재를 가져옴.
  - 따라서 이직률이 높은 기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기관을 식별하는 동시에 이직을 줄일 수 있는 업무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2019년 전국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데이터(2019 National Survey of Early Care and Education)를 분석하여 교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센터 기반 보육시설의 특성을 파악함.
  - 해당 데이터는 코로나19 이전에 조사한 것으로, 일부 기관은 폐쇄되고 일부 교직원은 이 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그 이후 이직 추이를 살펴보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띄는 기관은 교직원 이직률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영리 사업 모델: 비영리 및 정부 운영 모델과 비교하여 영리 사업 모델을 채택한 기관, 독립적인 기관 및 프랜차이즈 기관의 이직률이 높음.
- 보조금 수령: 보조금을 받는 영유아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다니는 기관의 이직률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보다 높음.
- 영아 포함 여부: 0~3세 또는 0~5세 영유아 대상 기관의 이직률이 3~5세 유아만 있는 기관의 이직률보다 높음.
- 복지 혜택 부족: 건강 보험 및 퇴직금을 포함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이직률 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보다 높음.
- 시설장의 경험 부족: 시설장의 현장 경험이 적은 경우 현장 경험이 많은 기관에 비해 교직 원 이직률이 높음.
- 2019년, 전체 기관 중 약 44%의 기관에서 교직원 이직은 없었지만, 약 33%의 기관에서 는 높은 이직률을 보임. 이직률이 높은 기관의 비율은 운영 모델, 보조금 수혜, 복지 혜택, 시설장의 현장 경험 등 운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이직률이 높은 기관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은 하지 않음. 따라서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교사 임금과 같은 기타 요소가 이직률과 관련될 수 있다고 언급함. 보고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안정된 보육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동안 이직률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함. 향후 연구에서는 높은 이직률과 기관 특성 간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pre/workforce\_turnover\_sn apshot\_apr2023.pdf

2023년 05월 15일

출처: https://www.acf.hhs.gov/opre/report/turnover-center-based-child-care-and-early-education-workf orce-findings-2019-nsece

## 6. 지방 보육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안 발의

- 오하이오 주 의원인 Sherrod Brown은 다수의 양당 의원들과 함께 미국 지방 보육서비스 확대 법안(Expanding Childcare in Rural America Act of 2023)을 발의함. 해당 법안 은 농업 및 농촌 지역사회의 보육 서비스 가용성과 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함임.
- ■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촌 개발청은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승인하고 우선순위로 두어 농촌지역 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 할 예정임.
  - 지역사회 시설 프로그램(Community Facilities Program): 농촌에서 필요한 필수 공공 서비스 및 시설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직접 대출, 대출 보증 및 보조금을 제공함.
  - 지역사회 시설 기술 지원 및 훈련 보조금(Community Facilities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Grant): 주 정부, 지자체, 도시, 부족 등 공공 기관 및 민간, 비영리 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함. 필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기술 지원 및/또는 교육을 제공함.
  - 기업 및 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Business & Industry Loan Guarantee Program): 적 격한 농촌 기업이 상업 대출 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을 보증해줌.
  - 지방 사업 개발 보조금(Rural Business Development Grant Program): 직원이 50명 미만이고, 총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신흥 민간 기업의 개발 또는 확장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 및 기타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
  - 지방 혁신 경제 보조금(Rural Innovation Strong Economic Grant Program): 고임금 일자리 창출 및 증대, 신규 사업 형성 가속화, 산업 지원, 저소득 지역의 지역 자산 사용 극대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
  - 지방 영세 사업가 지원 프로그램(Rural Microentrepreneur Assistance Program): 회 전 자금(Revolving Fund)으로 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소액 대출 제공, 교육 및 기술 지원.
- ■본 법안이 통과되면 농림부는 보육 위탁 기관, 보육 부문에서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 회 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등의 중개기관에 보 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2023년 06월 07일

출처: https://www.brown.senate.gov/newsroom/press/release/sherrod-brown-marshall-lead-bill-expand -childcare-rural-america#:~:text=The%20Expanding%20Childcare%20in%20Rural%20America%20Act%20o f%202023%20establishes.to%20critical%20child%20care%20resources.

## 7. 시간 외 보육법(After Hours Child Care Act) 발의

- Ashley Hinson 외 다수 의원들이 시간 외 보육법(After Hours Child Care Act)을 발의함.
- 해당 법안은 전통적인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 근무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에는 보육개발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수혜 자격을 비전통적인 시간에 일하는 가족을 포함하도록확대하고, 직장 내 보육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미국 부모의 약 43%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 시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실정임. 야간과 주말 근로자들은 미국 사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인력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는 비전통 시간에 일하는 부모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음." (Sarah Rittling, First Five Years Fund 전무이사)
- ■본 법안의 내용은 지난 달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간부 의원들이 모인 의회 연회 자리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한 맥락임. First Five Years Fund, Sesame Workshop, 그리고 PBS KIDS가 공동 주최한 연회에서 미국 어린이들이 양질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당의 포괄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법안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3639?q=%7B%22search %22%3A%5B%22hinson%22%5D%7D&s=2&r=7

2023년 06월 23일

출처: https://www.ffyf.org/bipartisan-bicameral-bill-tackles-access-to-child-care-for-parents-who-work -nontraditional-hours/

#### 8. 보육 접근성, 경제성 및 안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정 제안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관리국은 더 많은 가정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안을 발표하였음. 본 법령은 가정에서 부담 하는 보육비용을 낮추고, 보육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본 법령은 미국 내 영유아 150만명의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보육기관 약 230,000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개발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을 강화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제정안을 대중에 공개하여 법령 정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임.
- 가정 부담 보육비용 절감: 모든 가정의 보육비 부담률을 소득의 7% 이하로 제한하고 빈곤수준 150% 이하인 가정의 보육비 전액을 주에서 부담함.
- ■보육 선택지 확대 및 지불 관행 강화: 더 많은 기관이 보육개발기금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 록 장려하여,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함. 보육비 지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지급요율을 높여서 보육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함.
- ■부모를 위한 서류 작업 간소화 및 관료주의 방식 지양: 보육개발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 기관이 보조금 수혜 자격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보육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관료주의 방식이 부모의 고용, 훈련 및 교육을 방해하고 보육접 근성을 방해 할 가능성을 줄임. 각 주별로 가족에 대한 추정 적격성을 확대하고 모든 가족 이 온라인으로 보육 보조금 혜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안이 포함됨.

2023년 07월 11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new-rule-proposed-improve-child-care-access-afford ability-and-stability

#### 9. 중산층 가정을 위한 보육비 절감 및 어린이집 이용을 높이기 위한 법안 발표

■ 하원의원 Salud Carbajal과 Lori Chavez-DeRemer는 중산층 가정을 위해 보육비용을 낮추고, 영세 기업을 위해 보육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육투자법안(The Child Care Investment Act)을 발의함.

- ■이 법안은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업 고용주가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보육서비스 창출을 장려하며, 보육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연방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보육투자법안은 연방 세법이 보육비용과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상태에 현실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기존 보육 세금 혜택을 개선함.
- 첫째, 보육투자법은 세액 공제 비율과 한도를 높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액 공제를 확대함. 또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정 내 서비스를 추가함. 현재 고용주 제공 보육 공제(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는 기업이 기존 보육기관과 계약하거나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
- ■둘째, 보육투자법은 평균 보육비용을 감안하여 비과세 부양가족 저축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연간 최대 \$10,000까지 예치 가능함. 추가 부양가족당 \$2,000를 추가로 예치할 수 있음. 현재 연간 상한선은 \$5,000이며 피부양자 간병저축 계좌가 처음 만들어진 1980년대 이후로 변경되지 않음.
- ■셋째, 보육투자법은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개선하여 보육비용을 상쇄하도록 함. 현 재 세액공제율은 모든 소득층에 대해 인상될 것이며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보육비용으로 최대 \$3,000을 연말 정산 받을 수 있음.

2023년 07월 17일

출처: https://carbajal.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1591

# 10. 뉴저지 주 애보트 프리스쿨 프로그램 품질에 관한 보고서

- 애보트 프리스쿨 프로그램(Abbott Preschool Program, 이하 애보트)은 뉴저지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취약계층 교육 프로그램임.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0시간, 1년 245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국립 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소속 Milagros Nores와 Erin Harmeyer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애보트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교육서 비스품질 변화 추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뉴저지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애보트 교실 품질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됨. 이는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Revised(ECERS-R)관측 도구를 사용한 결과임.
- 2003년 애보트 교실 중 22%가 ECERS-R 측정 결과 좋음-우수함 사이의 점수를 기록함. 2015년까지 이 비율은 71%로 증가하여 양호-우수함 범위를 기록함.
- 2016 뉴저지 주는 교실 품질 측정도구로 Early Childhood Environment Rating Scale, Third Edition (ECERS-3)을 사용하도록 전환함. 2016년에는 40%가, 2017년에 는 32%가 ECERS-3 측정 결과 좋음-뛰어남 범위의 점수를 받음.
- 새로운 측정도구 도입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전체 및 모든 하위 척도에서 점수가 낮아짐. 2015년 부적절함으로 평가된 교실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여, 2016년 6%, 2017년 8%가 부적절한 교실로 평가됨.
- 상호작용 및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징은 측정도구 변환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개인 관리 루틴 하위 척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였으며 느리게 향상되는 추이를 보임.
- ECERS-3 측정결과 학습활동, 언어 및 추론 점수가 우려되는 수준임.

2023년 07월

출처: https://nieer.org/wp-content/uploads/2023/08/NIEER\_Research\_Report\_AbbottovertheYears\_Aug9\_2023.pdf

# 11. 미국 교육부, 유치원 학습 공동체 출범 발표

■미국 교육부는 공교육으로서 시작하는 유치원을 혁신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주 (州)가 참여하는 유치원 연결 학습 공동체(Kindergarten Sturdy Bridge Learning Community)출범을 발표함. 주정부 교육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은 실천공동체(a community of practice)에 참여하여 동료학습, 기술지원,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유치원과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최적의 방식으로 학교를 경험하도록 할 예정임.

- ■학습 공동체 출범은 교육부 장관이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에 정차하는 "2023년 신학기 버스 순회: 기대치 높이기 (Back to School Bus Tour 2023: Raise the Bar)"가 시작되면서 발표됨. 2023년 9월 7일 주간동안 교육부 장관, 부장관, 차관은 전국, 주, 지역 학교 지도자들과 함께 학생, 부모, 교직원들을 만나 가을학기 개학을 기념하고 학생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함. 신학기 버스순회의 일환으로 행정부 관계자들은 학습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교직원 채용에 대한 노력을 강조함.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에 역사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재개하고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의 회복을 돕고 있음.
- ■미국 전역에 많은 주와 교육구(school districts)에서는 이미 진전을 이루고 있음. 유치원 연결 학습 공동체(Kindergarten Sturdy Bridge Learning Community)는 미국의 유아를 위한 조기 학습 및 학교 준비도를 높이려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구축됨. 2021년 12월, 교육부는 두 개의 새로운 다주(multi-state) 실천공동체를 출범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손실이 학생의 정신건강 및 학업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또한 교육부는 10억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으로 질 높은 초기 학습경험과 유 아교사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주 정부 및 관련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2023년 09월 07일

출처: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announces-kindergarten-sturd y-bridge-learning-community

#### 12.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개정안 발표

- ■미국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아동가족부(ACF)를 통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자격을 갖춘 교사 모집, 고용 유지, 교사 임금 인상을 통해 일관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행정 명령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헤드스타트 교직원과 공립학교 내 유치원교사의 보상 및 혜택을 비교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을 지시했음.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헤드스타트 교사 임금평균이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함.

- 개정안은 현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영유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헤드스타트 교직원의 급여수준을 공립학교 내 유치원 교사와 최소한 동일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 함함. 특히,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이 헤드 스타트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제안함.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음 내용을 제안함.
  - 헤드스타트 교직원의 임금을 공립학교 내 유치원 교사에 맞춰 인상
  - 건강 보험 및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헤드스타트 교직원을 위한 혜택을 개선
  - 프로그램 서비스에 정신 건강 지원을 포함하여 통합
  - 가족 참여 서비스 개선
  - 프로그램 현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처리

2023년 11월 15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biden-harris-administration-proposes-new-rule-streng then-head-start-workforce

- 13.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장애 아동 포함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성명 발표
- ■미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월 28일 유아 프로그램에 장애 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동 정책 성명을 발표함. 해당 정책 성명은 2015년 처음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장애 아동의 유아 프로그램 이용이 계속해서 장벽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책무와 긴급성을 강조하고자 함. 이번 성명서는 고품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향상 및 돌봄 지원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개정됨.
- 미국 내 성인 6,100만 명 이상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아동 6명 중 거의 1명이 발달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공동 목표는 장애 포용 문화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이 유아기 프로그램과 학교, 지역사회, 직장까지 이어지는 경험에 영향을 줌.

- 본 개정 성명서는 포괄적인 유아기 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재차 강조하고 장애인 교육 법(Disabilities Education Act)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보육 기관, 가정방문 서비스, 유치 원 및 공립학교를 운영하는 주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정하여 장애 아동의 포괄적인 유아기 학습 기회를 늘리고자 함.
- ■증거 기반 모델과 통합 교육 프로그램 예시에 대한 자료, 고품질 개별화 프로그램과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하고 있음.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ecd/policy-statement-on-inclusion.pdf

2023년 11월 28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updated-resour ce-support-inclusion-children

# \*\* 아동·청소년지원

- 1. 미국 최초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센터 설립에 2천만 달러 지원
- 2023년 9월 25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부에 2,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최초의 아동 복지 정신건강 서비스 국립 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Welfare Competent Mental Health Services)를 설립함. 센터 설립은 보건복지부의 행동건강통합(Behavioral Health Integration)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방법을 변 화시키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요청에 대한 결과임.
- 지원금은 5년마다 400만 달러씩 투입되어 입양 지원 및 교육 센터(Center for Adoption Support and Education, 이하 CASE)와 협업할 예정임. CASE는 국가 지도자, 부모, 청년들과 협력하여 어린이와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롭게 강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및 훈련 방법을 개발하여 주 정부와 지역전문가 등에게 제공할 예정임.
- 이번에 새로 설립된 정신건강 서비스 국립 센터는 기술 및 증거기반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 복지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그리고 시스템 간의 조정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입양 경 험이 있는 아동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CASE는 트 라우마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문화/언어적으로 적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일 관되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예정임.
- 아동청소년가족행정부 국장(Rebecca Jones Gaston)은 '청소년과 가족들은 자신의 경험, 문화, 언어와 관련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정신건강 국립 센터는 아동 복지 및 정신건강 인력 전반에 걸쳐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고 치유와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언급함.

2023년 09월 25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media/hhs-awards-20-million-launch-first-national-ce nter-support-mental-health

## \*\* 코로나19

- 1. 보건복지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2023년 1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세 이 상 모든 개인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힘.
  - 또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보건 서비스 자문 위원회 (Health Services Advisory Committee)와 협의하여 개발한 증거기반 코로나 완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됨. 이외 코로나 예방접종 및 테스트 요건은 아직 검토 중이며 기존 규칙이 유효함.
- 코로나 완화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 Q1: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증거기반 코로나 완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 A1: 헤드스타트 관리국(Office of Head Start)은 해당 사항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eclkc.ohs.acf.hhs. gov/policy/pi/acf-pi-hs-23-01
  - Q2: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
  - A2: 2023년 1월 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
  - O3: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건도 해제되나?
  - A3: 해제되는 것은 아님. 2023년 1월 6일 기준 교직원, 자원봉사자, 백신 접종 면제 승인을 받은 개인들의 최소 주 1회 검사는 법원명령에 따라 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HSPPS) 요건으로 남아있음.
  - O4: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백신에 관한 최종 규정을 언제 발표할 예정인가?
  - A4: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건 사항은 검토 중임.

O5: 헤드스타트 관리국은 코로나 완화 정책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가?

A5: 2023년 3월 7일까지 시행되어야 하는 코로나 완화 정책은 다른 HSPPS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됨. 공식 모니터링은 2023~2024년도에 시작됨. 2023년 봄에 헤드스타트 관리국은 일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정책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프로그램에 제공하여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울 예정임.

2023년 01월 31일

출처: https://eclkc.ohs.acf.hhs.gov/physical-health/coronavirus/mitigating-spread-covid-19-head-start-programs 추가자료: https://eclkc.ohs.acf.hhs.gov/policy/article/covid-19-mitigation-policy-fags

#### \*\* 기타

- 1. 2021년 미국 영유아 과일, 채소, 가당 음료 섭취 보고서
- 생애 초기 양질의 영양섭취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줌. 영유아 영양섭취에 대한 미국 연방 지침으로는 가당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과일과 채소를 날마다 섭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2021년 전국아동건 강조사(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부모응답 데이터를 분석하여 1~5세 영유 아 18,386명의 과일, 채소, 가당 음료 섭취 빈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고서와 각 주(州)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데이터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집됨.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설문조사 응답 전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지 않은 영유아는 32.1%, 매일 채소를 먹지 않은 영유아는 49.1%, 가당 음료를 적어도 한 번 이상 마신 영유아는 57.1%로 나타났으며 섭취량은 주(州)별로 상이함.
- ■매일 채소를 먹지 않은 영유아가 절반 이상인 주는 총 20개임. 이 중 버몬트주에서는 영유 아의 30.4%가 매일 채소를 먹지 않았으며 루이지애나주는 64.3%였음. 적어도 한 번 이상 가당 음료를 마신 영유아가 절반 이상인 주는 4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임. 해당 비율은 메인주의 38.6%에서 미시시피주의 79.3%까지 다양함. 많은 영유아들이 매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않은 반면, 정기적으로 가당 음료를 섭취하고 있었음.
- ■과일, 채소, 가당 음료 섭취량은 연령, 인종, 가정의 식량 부족 정도에 따라 상이함. 1세 영아는 과일, 채소를 매일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가당 음료를 마실 가능성은 적었음. 매 일 과일, 채소를 먹지 않는 영유아의 비율은 흑인이 가장 높았고 백인이 가장 낮았음. 가당 음료를 한 번 이상 마신 비율은 다인종 비히스패닉 영유아의 경우 47.5%, 흑인의 경우 71.7%였음. 식량부족을 겪는 가정의 영유아는 과일채소 섭취량이 적고 가당 음료 섭취량 이 높았음.

2023년 02월 17일

출처: https://www.cdc.gov/mmwr/volumes/72/wr/mm7207a1.htm

## 2. 아동의 친족 돌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위탁 가정"의 정의 개정 제안

■ 아동가족부는 아동복지기관이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 및 친척에게 보다 쉽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규정 개정을 제안함. 이를 통해 더 많은 조부모와 친척이 위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및 기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 아동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함. 제안된 규정과 논평 지침은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시되었으며 의견은 4월 17일까지 접수해야 함.

#### ■ 연방 관보 요약

- 아동가족부는 혈연, 결혼, 또는 입양 등에 의해 아동과 정서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는 개인 및 가정을 위탁 가정으로 승인 할 수 있도록 "위탁 가정"의 정의를 개정할 것을 제안함. 비친척(non-relative) 위탁 가정은 아동과 관련 없는 개인 가정을 의미하며 이번 제안과 무관함.
- 제안된 규정은 아동 복지 기관이 위탁 양육 유지비용을 연방 재정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또한 아동 복지 기관은 위탁 양육 유지비용을 검토하여 친척 위탁 가정과 비친척 위탁 가정에 동일한 비용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2023년 03월

출처: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ED/bulletins/34cfbb0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2/14/2023-03005/separate-licensing-standards-for-relative-or-kinship-foster-family-homes

## 3. 미취학 아동의 긍정적인 유아기 경험과 학교준비도에 관한 최신 연구

- ■최근 미국 소아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긍정적 유아기 경험(Positive early childhood experiences: PECEs)과 학교준비도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고, 이 관계가 부정적 유아기 경험 수준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함.
-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 3~5세 유아 26,871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주 요 긍정적 유아기 경험(양육 관계, 가정학습기회,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가족 일상)과 학교 준비도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함. 학교준비도는 건강하고 학습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라는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여 정의함.

- ●연구 결과 유아 중 40%가 학교준비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 긍정적 유아기 경험 노출은 높은 학교준비도와 연관성을 보였으며 부정적 유아기 경험과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음. 긍정적 유아기 경험이 적은 유아들보다 긍정적 경험이 보통이거나 많은 유아들의 학습준비도를 갖출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부정적 유아기 경험 노출 영향력을 모두 반영한 것임. 해당 결과는 인종 등 인구통계학적 그룹, 부정적 유아기 경험수준 및 유형(예: 부모 수감상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연관성을 보임.
- 결론적으로 긍정적 유아기 경험이 증가하면 부정적 유아기 경험 가운데에서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핵심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음. 따라서 생애 초기 트라우마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양육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교직원, 시스템 등을 통해 긍정적 유아기 경험 강화 방안이 필요함.

2023년 08월

출처: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22347623005000

# 4. 아동가족부, 의료-법률 파트너십에 160만 달러 지원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아동가족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는 의료-법률 파트너십을 위한 최초 연방자금 지원 시범 프로그램인 Medical-Legal Partnerships Plus (이하 MLP+)에 160만 달러(한화 약 21억 7천만원) 지원을 발표함.
- 160만 달러 규모의 연방자금은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포괄적인 법률/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8개의 기존 의료-법률 파트너십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데 사용될 예정임.
- 아동가족부 차관 대행인 제프 힐드(Jeff Hild)는 "가정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 여부는 주거 및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법률서비스 접근 여부에 따라 주거지를 잃을 수도 있고 안 정적인 주거지 확보 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질병을 앓을 수 있다. MLP+는 더 많은 가정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개인, 아동 및 가정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이다."라고 언급함.

- MLP+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의료-법률 파트너십은 코네티컷, 하와 이, 몬태나, 뉴욕,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테네시 주의 개인과 가정에게 서비스 를 제공 할 예정임.
- 아동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 사무국장인 래닉크 하워드(Lanikque Howard)는 "빈곤은 역동적이고 다면적이다. MLP+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아 가정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을 해결할 것이다. 해당 연방자금은 미국 전역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결하고 개인과 가정의 전반적인 행복(well-being)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함.

2023년 10월 02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acf-awards-16m-support-first-ever-federally-fundedprogram-medical-legal

## 5. 아동가족부, 주거 지원 서비스 강화에 210만 달러 지원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아동가족부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는 가정의 생활전반 강화 및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연방 시범 프로그램에 210만 달러(한화 약 28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저렴한 주택 및 사회서비스(Affordable Housing and Social Services Demonstration, 이하 AHSSD)"임.
- AHSSD 기금은 저렴한 주택 소유자와 운영자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여 서민에게 포괄적인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AHSSD 보조금 수혜자는 보육종사자, 금융코칭, 학력지원수업, 교통 지원, 유아 및 청소년 프로그램,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아동가족부 차관 대행인 제프 힐드(Jeff Hild)는 '새로운 시범사업 AHSSD는 개인과 가정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전방위적인 사회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서 출발했다.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가족부의 사업 우선순위인 공평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이다."라고 전함.

■ AHSSD는 아동가족부의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운영 관리함. 보조금 수령자는 지역사회 서비스 부서에서 제공하는 다른 자금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용, 에너지/수자원, 물질적 필요 등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음. AHSSD 보조금 수령자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023년 10월 31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3/hhs-awards-21m-bolster-supportive-services-families -living-affordable-housing

## 6. 유아 수학 교육과정 빌딩블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 빌딩블록(Building Blocks)은 초기 수학 학습 과정을 따라 유아의 수학 지식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임. 빌딩블록은 대그룹 및 소그룹 교육, 센터 활동, 컴퓨터 활동, 가정에서 수학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함. 교육활동은 유아의 수학 학습발달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됨.
- What Works Clearinghouse(WWC)는 교육개입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교육 프로 그램과 현장의 효과를 평가하는 미국 교육기술원(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내 기관임. WWC는 빌딩블록 어린이집 사용과 수학성취도 효과에 대한 증거를 요약하는 보고 서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WWC 표준을 충족하면서 빌딩블록이 미취학 아동의 수학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여러 연구에서 보여줌.
- WWC는 보고서에 빌딩블록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현장에 적용된 방법과 교사교육 방법 및 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https://ies.ed.gov/ncee/WWC/Docs/InterventionReports/WWC\_Building-Blocks\_report.pdf

2023년 12월

출처: https://ies.ed.gov/ncee/wwc/InterventionReport/733

## 7. 아동 식품 지원 프로그램 관련 법안 정비

- 1968년 시작된 아동 및 성인 식품 지원 프로그램(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은 기관이용 아동과 돌봄 쉼터 가정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함.
  - CACFP는 미국 농무부와 식품영양서비스가 주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됨.
  - 보육기관은 연방 영양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영양 식사와 간식에 대해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CACFP는 노숙자 보호소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 42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지난 9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보육기관 중 36.5%가 CACFP를 이용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15.2%에서 6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많은 보육기관이 CACFP 프로그램 에 익숙하지 않으며 관리 부담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음. CACFP 프로그 램 참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아동 영양을 지원하려면 관련 법안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지난 몇 개월 동안 CACFP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됨.
  - 9월과 11월에 발의된 The Child Care Nutrition Enhancement Act은 CACFP에 참여하는 헤드스타트, 기관 및 가정기반 보육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성인 보호 프로그램의모든 식사 및 간식 환급 비용 10% 인상을 제안함.
  - 가정기반 보육기관의 환급 방식 개선을 제안함. 현재 가정기반 보육기관의 환급률은 지역 빈곤 수준에 따라 상이하지만 9월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소득 수준 기준 폐지를 제안함.
  - "집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현행 방법에서 외식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을 제안함.
- 10월에 발의된 Early Childhood Nutrition Improvement Act는 8시간 이상 기관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식사 한 끼를 추가로 제공하고, 외식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도록 환급 정책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또한 영리보육기관에 규정 보고 절차를 단순화 할 것을 제안함.

2023년 12월 12일

출처: https://www.ffyf.org/2023/12/12/recent-bills-offer-needed-updates-to-child-care-food-assistance-program/

# 독일

	일·가정 양립		
1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연구	77	
	양육지원		
1	주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회수액이 증가함.	79	
2	가족 생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가족 정책 개선	80	
3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카탈로그 출시	81	
4	독일의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83	
5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이 체결됨.	85	
6	유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보고	86	
7	가족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사항	87	
8	가족부 장관, 베를린 산부인과 병원 베이비 가이드 시범 서비스 방문	90	
	유아교육·보육		
1	보육 환경 개선의 긍정적 발전	92	
2	독일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함.	93	
3	어린이집 등록의 어려움	94	
4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인력난 본격화	95	
5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종일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불평등함이 존재함.	97	
	아동·청소년지원		
1	팬데믹 이후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확대	100	
2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지원	102	
3	독일학교 지표/바로미터: 아동 빈곤의 심각함	103	
	돌봄		
1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	105	
2	초등학교 종일반 확장 투자프로그램의 시작	106	
3	아동 돌봄의 꾸준한 증가	107	
	기타		
1	가족 정책의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109	
2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3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및 요구사항	112	
4	중환자 아동을 위한 치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영상	113	

# 1 일·가정 양립

- 1.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연구
- ■독일사회가 얼마나 가족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는 가정은 아동 친화적 사회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본 물음에 대한 답은 독일 연방 가족부가 지원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인구학적 관점에서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 일· 가정 생활의 균형, 가족 친화적 주거임. 2023년 2월 23일 "가족 친화적이란 무엇인가? (잠정적) 부모의 생각과 기대"(der aktuelle Monitor Familienforschung "Was heißt hier familienfreundlich? Vorstellungen und Erwartungen von (potenziellen) Eltern") 연구보고서가 발간됨. SINUS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는 부모와 부모가 되려는 사람 들이 독일을 가족 친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가족친화적 사회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보여 주고 있고 가족의 필요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음.
- ■리사 파우스(Lisa Paus) 연방 가족부 장관은 "해당 연구는 가족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일반 대중들 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감을 느끼며, 부모수당(Elterngeld), 어린이집 확대(Kidnertagesbetreuung) 또는 아동수당 (Kinderzuschlag) 등으로 독일은 과거에 비해 가족친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위기의 시기에도 가정의 문제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된다. 연방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동기본생활권(Kindergrundsicherung)을 통해 가정이 필요로하는 혜택들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하였음.

##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 친화성은 가족이 사회로부터 환영 받는 느낌을 의미함.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자의 75%는 가족으로서 환영 받는다고 느끼고, 부모들 중 거의 절반이 독일이 (매우) 가족 친화적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연구 결과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 주며 가족 친화적 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함.
  - 가족 친화적 주거: 가정의 약 30% 만이 가족이 선호하는 거주지에서 충분히 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함.
  - 사회적 안전망: 부모 3명 중 2명이 가족을 빈고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일·가정 생활의 균형: 여러 개선 방안 중, 예를 들어 부모수당, 어린이집의 확대,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독일 가정이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임.
- ■해당 연구는 현재의 위기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줌. 이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치와 사회는 가족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가족 친화적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연방 가족부는 다른 연방 부처와 함께 가족 친화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아동을 위한 기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14804/1c81ea8e6ecd001d17bba9184141ebc3/mff-familienfreundlichkeit-data.pdf

2023년 02월 23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studie-zu-wichtigen-themen-fuer-ei ne-familienfreundliche-gesellschaft-214690

# **\$** 양육지원

- 1. 주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회수액이 증가함.
- ■자녀 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정부 정책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대신 먼 저 지급해 주고 돌려 받는 정책임. 2022년에는 4억 9,300만 유로 이상 돌려 받음. 이는 2021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약 5,300만 유로가 증가 했으며, 12.1% 증가한 것임.
- 양육비 선지급법(Unterhaltsvorschussgesetz UVG)에 따른 혜택에 대한 연방, 주 및 지 방 정부의 지출은 2022년에 25억 유로에 달함. 이는 2021년보다 4,880만 유로 즉 1.99% 증가한 수치임. 회수액을 통한 수입이 지출보다 증가했음.
- 양육비 선지급 사무소(Unterhaltsvorschuss-Stellen)는 양육비를 지급했어야 할 부 또는 모로부터 정부가 지급해 준 금액을 회수하는 임무를 지님. 독일의 모든 주에서 회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회수율은 20%로 향상됨. 연방 주 중에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인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로 26% 회수율을 보이며, 바이에른 (Bayern)과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는 24%임. 노르트라인-페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주는 가장 큰 발전을 보였는데, 2.010만 유로로 20% 이상의 증가를 나타냄. 비율은 한 해 양육비 선지급으로 지출된 금액과 회수된 소득금액의 비율로 계산됨.
-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힘든 업무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 또는 모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선지급된 양육비를 전액 회수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함. 장기 지급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회수 절차를 밟는데, 과거에 갚지 못한 양육비 선지급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됨.

2023년 02월 08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staat-holt-sich-deutlich-mehr-unterhaltsv orschuss-zahlungen-zurueck-214300

## 2. 가족 생활에 대한 동향 분석 및 가족 정책 개선

- 2023년 3월 20일, 연방 가족(청소년)부 장관은 여론조사연구소(Institut für Demoskopie, IfD)와 함께 "가족지수(Familienbarometer)"를 발표함. 이를 통해 독일 가족 생활의 중요한 트렌드를 분석하고 가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제시됨.
- ▮가족 지수의 초점은 다음과 같음.
  - 가족의 재정 안전성 증가
  - 수요에 따른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확대
  - 위기에 처한 가정의 시간 자율성 강화
- ▮가족 지표 연구 및 기타 최신 여론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은 여러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족에게 여러 어려움을 안겨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 93%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해 부모의 경제적 상황 평가는 크게 나빠졌으며, 부모 중 43%만이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동시에, 가족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경감 조치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됨.
  - 사회적 보장체계가 물질적 불평등을 막고 모든 아동에게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전체적으로, 특히 부모에서 높았음. 지원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70%는 가족 정책이 아동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함.
  - 아동기초수당 보장을 통해 경제적으로 위급한 가정이 지원되고, 아동 빈곤이 줄어들 것임. 전체의 60%인 과반수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75%가 아동기초수당 보장 도입을 지지함.
  - 재정적 안정 뿐 만 아니라, 보육 인프라의 보장 또한 중요함. 국가적 지원을 통한 보육의 안정이 보장 될 때 가족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음. 대부분의 가족에게 좋은 보육은 가족과 직장을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임.

- 가족과 직장 업무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공동 분담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모의 절반(46%) 가까이 육아, 가사 및 직장 생활을 공동 분담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적음.
- 전체의 49%와 6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56%는 가족정책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평 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함.
- 장기적으로 가정과 직장 생활 간 조화는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됨.
- 또한 가족의 의무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문제는 자녀 보육뿐만 아니라 노약자 부모나 다른 가족의 간병과 같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전체의 75%는 간병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급여 대체 수당을 요구함.
- ■본 가족 지수 연구 결과에 따른 연방가족부의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안정과 삶을 시작할 때의 기회 균등을 증진하는 아동 기초 수당 도입
  - 질 높은 보육 인프라를 보장하는데 투자
  - 파트너가 자녀 출산한 직후 2주간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출산 후 부모 휴가(Elternstartzeit)" 도입
  - 가족 돌봄 휴가제도(Familienpflegezeit) 개편을 통해, 돌봄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개선 하고자 함.

2023년 03월 20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trends-zum-familienleben-analysieren-und -familienpolitik-weiterentwickeln-222780

## 3.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카탈로그 출시

■ 가족 휴가 관련 연방 연합 실무부서(Bundesarbeitsgemeinschaft Familienerholung)는 70개 이상의 가족 휴가 리조트(Familienferienstätte)를 담은 2023~2024년도 새로운 카탈로그를 출판함. 가족 휴가 리조트는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들임. 독일 전국에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들이 여유로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가족 휴가 리조트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남녀노소 모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함. 이들 숙박시설은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 예를 들면 저소득층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 가정 또는 장애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 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함.
- 가족 친화적인 휴가 리조트는 바닷가, 산 또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식사 제공 여부와 숙박형태를 가족 구성원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함. 아동 돌봄 서비스 또는 여가 활동도 제공됨.
- 가족 휴가 리조트는 성수기에도 이용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며, 여러 연방주에서는 가족 휴가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재정적 지원은 지방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함.
  -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하, 주치의(보통 가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 (휴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숙박자금이 지원됨.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 한 명 또는 여러 자녀와 함께, 또는 한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숙박시설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부모 참석 없이 조부모가 소주와 함께 숙박시설 이용 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함.

## ■본 지원의 전제조건

- 가족이 바이에른 주에 살고 있으며, 자녀가 아동수당 (Kindergeld) 수혜자이어야 함.
- 숙박시설은 바이에른 주가 지원하는 시설이여야 함
- 방학 동안에는 다른 지방 주에 위치한 숙박시설 사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함.
- 1년에 1회 지원됨. 지원기간은 6일에서 최대 14일임.
- 세금, 사회기여금(건강보험, 실직보험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소득이 아래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아동수당, 아동추가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한부모가정(자녀 한 명): 21.000 €
  - 양부모가정(자녀 한 명): 21.000 €

- 각 자녀마다 4.800 € 추가
- 신청자가 생활에 중대한 변화(실직 또는 이혼)가 있을 시 소득산정은 재정지원 신청일자로 부터 지난 6개월간의 소득을 토대로 이루어짐.

2023년 04월 1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r-katalog-urlaub-mit-der-familie-ersc hienen-223834

## 4. 독일의 아동빈곤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 ■독일의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사회가 아동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 아동빈곤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음. 이는 독일 아동보호단체(Deutsche Kinderhilfswerk)의 「2023 아동보고서(Kinderreport 2023)」에 기반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음.
- 연방 가족부 장관인 리사 파우스는 "아동빈곤은 가족빈곤을 뜻한다. 아동기본보장 (Kindergrundsicherung)은 가족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계획이다. 동시에 아동기본보장은 아동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안에 있다. 7월 5일 채택된 독일 국가행동계획(Nationaler Aktionsplan)인, '독일 아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Neue Chance für Kinder in Deutschland)'는 연방정부, 주,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모두가 아동빈곤 대응을 위한 조치를 통합하고 함께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의 중심으로 이끌고자한다."고 언급함.
- ■독일 아동보호단체의 총재인 토마스 크뤼거는 "독일 아동보호단체는 연방 가족부와 함께 아동기본보장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동기본보장은 실제 아동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하고, 빈곤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는지, 사회문화적 최저기본생활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동빈곤 대응 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 큰 문제인 아동빈곤 대응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아동빈곤율이 매번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전보다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공된 지원만으로는 아동빈곤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시급히 충족하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 ■「2023 아동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는 다음과 같음.

- 독일 아동보호단체에서 수행한 「2023 아동보고서」에서는 독일 성인 대상 설문조사와 10~17세 아동 대상 아동 및 청소년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은 총 1,693명으로 아동 및 청소년은 682명, 성인 1,011명임.
- 정부와 사회의 적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 중 7%는 '독일에서 아동빈곤 대응을 위해 매우 많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5%는 '비교적 많이 노력 한다'고 보았음. 설문조사에 응한 아동 및 청소년 또한 성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5%는 아동빈곤 대응을 위해 '정부와 사회에서 매우 많이 노력한다.'고 보았고, 22%는 '비교적 많이 노력한다.'고 응답함.
- 아동빈곤의 원인: 성인 83%(전적으로 동의함 및 대체적으로 동의함)와 아동 및 청소년 93%가 아동빈곤의 주 원인을 저소득으로 지적함. 성인의 78%, 아동 및 청소년의 80%는 자녀 양육 지원 부족(예: 재정적 지원 또는 아동돌봄 부족)을 아동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 아동빈곤 대응 방안: 독일에서 아동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었음. 여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교육자료 지원,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문화 및 스포츠 참여,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무료 종일 돌봄 및 무료 급식, 저렴한 주택 공급이 포함됨. 학교와 어린이집에 더 많은 전문가와 사회복지사들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를 얻음.
- 아동빈곤 대응 위한 세금인상: 조사대상 성인의 62%는 독일의 아동빈곤 문제가 세금인상 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및 청소년의 더 많은 참여: 성인들은 특히 스포츠, 문화, 여가 활동을 하는 단체 (82%)에서, 가정(80%)에서, 그리고 학교(79%)에서 참여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지지함('매우 중요' 및 '중요'로 응답한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은 특히 학교 분야(91%)와 가정(90%)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기를 원하지만, 스포츠, 문화, 여가 단체(81%) 및 독일 전체 (80%)에서도 더 많은 참여를 희망함.

#### ■2023 아동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www.bmfsfj.de/resource/blob/228174/f84545059dda8d42b17e419e30c40163/kind erreport-2023-data.pdf

2023년 07월 06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armut-in-deutschland-wirksamer-be kaempfen-228152

## 5.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이 체결됨.

- 기본아동수당(Kindergrundsicherung)은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독일 연방정부는 제안된 법률 초안에 기초하여 기본아동수당에 관한 합의를 이룸.
- 지난 8월 28일 연방 가족부 리사 파우스(Lisa Paus) 장관, 재무부 크리스티안 린드너 (Christian Lindnder) 장관, 노동부 후버르투스 하일(Hubertus Heil) 장관은 연방 기자회 견에서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에 대해 발표함.
-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연방 정부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혜택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빈곤 위험에 처한 약 560만 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동기본수당의 목표임,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쉽고 그리고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임.
- 연방 가족부 장관 리사 파우스는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이 체결되었다. 수십 년간의 정치적 논의 끝에 독일의 아동 빈곤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은 바로 연방 정부이다. 이는 가장 포괄 적인 사회정책이다. 아동기본수당은 독일의 아동 빈곤 구조에 맞서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투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혜택)를 아동기본수당이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아동의 편에 서 있으며, 특히 빈곤의 위험, 그것에 영향을 받는 아동들의 편에 서 있음을 확고히 표명한다. 아동기본수당은 더 많은 사 회 정의를 구현 할 것이며, 독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이다.'라고 강조함.
- 아동기본수당에 관한 법률 초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연방 내각에 통과 되어야 하며, 아동기 본수당은 2025년부터 지급될 예정임.
- 아동기본수당(Kindergrundsicherung)은 아동기본보장수당(Kindergarantiebetrag)과 아동 추가수당(Kinderzusatzbetrag)으로 구성됨.
  - 아동기본수당은 모든 아동이 동일한 금액의 혜택을 받는 '아동기본보장수당', 즉 현재의 자녀수당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추가수당'으로 구성됨. 아동기본수당과 아동추가수당을 합하여 아동의 사회문화적 최저생계비를 충족하고자 함. 아동기본수당에서 아동추가수당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 빈곤위험에 처한 가족과 그들의 자녀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단순화될 것임.
  - 아동기본수당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음.
  - 아동기본수당 확인 절차(Kindergrundsicherungscheck)를 통해, 아동추가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지원 대상의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해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한부모 가정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부 또는 모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금까지 추가수당 금액 책정 시 양육비(Unterhaltszahlung)의 100%가 소득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45%까지 소득에 포함됨. 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저 소득이 600유로 이하일 경우 양육비 선불지급 (Unterhaltsvorschus: 다른 부모 한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금액이 좀 더 유리하게 책정될 것임.

2023년 08월 2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kommt-229760

#### 6. 유아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보고

- ■독일의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음. 이는 연방청소년부 (Bundesjugendministerium)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국립조기지원센터(Das Nationale Zentrum Frühe Hilfe)의 새로운 연구 결과임.
- 지난 9월 26일, 국립조기지원센터는 '독일의 0~3세 영유아(Kinder in Deutschland 0~3 2022)' 연구를 발표함.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특히 어린 영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냄.
- 연방청소년 장관인 리사 파우스는 '본 연구 결과는 독일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빈곤 속에서의 성장은 아동 발달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조기지원 서비스(Frühe Hilfen)를 통해 특히 위태로운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의 아동을 우선 지원하여 부정적 발달을 방지하고자 한다. 독일의 모든 아동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본 연구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7,81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아과 의사 258명이 참여함. 조사는 U3-U7a(3개월에서 48개월의 유아) 아동발달조기발견검사의(Früherkennungsuntersuchungen)\* 일환으로 이루어짐.
  - \* 독일에서는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정기 소아과 발달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U1에서 U9 까지, 즉 출생에서 8세까지 발달 검사를 소아과 의사에게 받는 것이 의무임.
-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스트레스와 그들이 소유한 자원, 지원 서비스 이용 및 평가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짐. 조사에 참여한 소아과 의사들은 각 가족의 아동 건강 및 발달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함. 이 설문 양식은 소아 청소년 의사 전문의 협회(Berufsverband der Kinder- und Jugendärzt\*innen e. V. BVKJ)와 긴밀한 협력 하에 개발됨.
-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부모의 관점과 소아과 의사의 평가 모두를 통해 독일 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상황을 추적하고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기반을 형성함.
-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빈곤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줌. 빈곤의 영향을 받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매우 좋음'이 64%에 불과하였고, 빈곤에 시달하는 가정의 영유아 중 21%는 발달상태가 연령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 결과는 조기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함. 자녀 출산 전후 가정에서 가족건강관 리사(Familien-Gesundheitspflege), 아동간호사(Kinderkrankenpflege) 또는 가족 조 산사 (Familienhebamme)의 도움정도를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중 92%가 '(매우) 도움이 되었음'으로 평가함.

2023년 09월 26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studienergebnisse-zeigen-gesundheitszust and-von-kleinkindern-231138

## 7. 가족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사항

■ 2024년부터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은 인상되며, 자녀병가 일수(Kinderkrankentage) 는 늘어나고, 간호학(Pflegestudium) 교육수당과 가족 추가 지원금 등이 변경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아동추가수당

- 부모 자신만의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이 충분하지만, 가족 전체의 필요를 충당하기에 충분 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 아동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연방 가족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아동추가수당을 월 최대 250유로(한화 약 35만원)에서 자녀 당 최대 292유로(한화 약 41만원)로 인상하도록 함. 아동추가수당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가족포털, Familien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아동세금면제 수당

- 아동세금면제 수당은 2024년에 아동 1인당 약 360유로(한화 약 51만원)가 인상된 6,384 유로(한화 약 916만원)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매달 지불되는 아동수당 Kindergeld 또는 소득 정산 시 세금이 면제 되는 아동세금면제 수당 Kinderfreibetrag 둘 중 세금 혜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 2024년까지 추가 인상이 예상됨. 이 수당은 소득세에 반영되어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임.

#### ▮양육비 선지급

-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대방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받는 한부모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가족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24년 1월부터 선지급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 0~5세 아동: 월 최대 230유로(한화 약 32만원)
  - 6~11세 아동: 월 최대 301유로(한화 약 43만원)
  - 12~17세 아동: 월 최대 395유로(한화 약 56만원)

#### ▮자녀 병가일수의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자녀와 부모 1인당 연간 정규 자녀 병가 일수가 10 일에서 15일로 늘어났음. 한부모의 경우,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남. 자녀가 여러 명인 경 우 앞으로, 자녀 한 명당 총 35일까지, 한부모의 경우 7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는 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되며, 자녀가 입원할 경우 2024년부터는 자녀 병가 수당을 무제 한으로 받을 수 있게 됨.

- 본 규정은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 규정이 종료된 후에도, 부모가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됨.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의 폐쇄 시, 부모들이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녀 병가 일수가 여러 차례 연장되었음.
- 자녀 병가 수당은 일반적으로 세후 급여의 90%를 지급 받음. 자격 조건은 부모와 자녀 모두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녀가 만 12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여야 함.

#### ■ 부모수당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연방 재무부 장관의 재정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부모에 대한 부모 수당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 연합정당은 부모 수당 변경에 합의했음.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부모 수당 수급 자격이 세금 정산 전 소득 한도가 부모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연간 30만 유로(한화 약 4억 3천만원)에서 20만 유로 (한화 약 2억 8천만원)로 낮아짐. 2025년 4월 1일 부터는 부모 둘이 합친 세 전 연간 소득이 17만 유로(한화 약 2억 4천만원)로 소폭 인하될 예정임. 한부모의 경우 2024년 4월 1일부터 15만 유로(2억 1천만원)의 소득 한도가 적용됨.(\*즉 자격 조건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서 부모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 또한 줄어 들 예정임.)
- 부모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새롭게 규제됨. 앞으로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까지 최대 1개월 동안만 기본 부모수당을 부모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다태아 및 조산아의 경우와 파트너십 보너스, 부모수당 플러스의 경우 부모 모두 동시 수급이 가능함.

## ▮시민수당의 증가

- 시민수당이나 사회보조금(\*기본생활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은 기본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월 일시불로 기본급여를 받음. 2024년부터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이 인상될 예정임.
  - 1인가구의 경우, 기본급여가 2024년에는 502유로(한화 약 74만원)에서 563유로(한화 약 805만원)로 인상됨.

- 공동 가구를 구성하는 부부의 경우 파트너 당 451유로(한화 약 65만원)에서 506유로(한화 약 72만원)로 인상됨.
-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기본 급여가 상이함: 0~5세는 357유로(한화 약 72만원: 39유로 인상), 6~13세는 390유로(한화 약 55만원: 42유로 인상), 14~17세는 471유로(한화약 67만원: 51유로 인상)가 인상됨.
- 재학생들의 경우 학용품 등 학교 물품에 필요한 금액을 더 받게 됨. 이 변경 사항은 2024년부터 시작되는 두 학기 모두 적용됨. 상반기에 130유로(한화 약 18만원), 하반기에 65유로(한화 약 9만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될 예정임.

2023년 12월 28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spuerbare-verbesserungen-fuer-familien-234802

## 8. 가족부 장관, 베를린 산부인과 병원 베이비 가이드 시범 서비스 방문

- ■베이비 가이드(Babylotsen)는 산부인과에서 젊은 부모에게 직접 조언하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역할을 함. 가족부 장관은 천주교 사회복지 재단인 카리타스의 대표(Eva Maria Wleskop-Deffaa)와 함께 베를린의 성요셉 병원을 방문하여 본 서비스를 확인하고 격려함.
- 연방 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생애 첫 몇 년은 향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출산 전후로 예비부모를 지원함으로써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연방 정부, 연방 주, 지방 당국 및 시민 사회의 공동 과제이다. 연방 가족부는 수년 동안 시범 서비스를 포함한 조기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베를린 성요셉 병원과 독일 카리타스협회의 팀이 모든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함.

## ▮젊은 부모를 위한 가이드 서비스

-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많은 부모에게 도전이며, 특히 출산 전에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음. 많은 가족이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다양한 지원 서비 스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 서비스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모와 연락하여 부모를 안심시키고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 대부분의 아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므로, 산부인과는 가능한 한 많은 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장소임.

#### ▋동등한 삶의 기회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

- 최근 발표된 독일 국립조기지원센터(das Nationale Zentrum Frühe Hilfen: NZFH)의 전국 조사 "독일의 아동"(Kinder in Deutschland: KiD 0-3 2022)에 따르면, 아동의 건 강한 성장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모든 가정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를 조기에 지원하는 가이드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연방 가족부는 아동의 생애 첫해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 지원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연간 5,100만 유로(한화 약 720억원)의 장기 자금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가이드 서비스 (Lotsendienste)도 포함됨.

2023년 12월 20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lisa-paus-besucht-lotsendienst-in-berliner -geburtsklinik-234864

## **♣** 유아교육·보육

- 1. 보육 환경 개선의 긍정적 발전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보육 분야에서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지난 1월 2일 발표된 2022년 어린이집 환경 및 참여 활동 개선법(KiTa-Qualitäts- und Teilhabevers besserungsgesetz, KiQuTG)의 세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역에 따른 교육 환경의 질적 차이는 여전히 큼.
- 앞으로 독일 연방주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7개의 분야에 연방 기금의 50% 이상 투자할 것임. 7개의 분야에는 교사-아동 수 비율 개선,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 돌보미를 통한 아동돌봄(Kindertagespflege) 강화 등이 있음.
- 연방 가족부 장관인 리사 파우스는 어린이집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아동이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함.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환경법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며, 연방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약 40억 유로를 연방주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긍정적 발전
  -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이 2020년에 비해 개선됨. 3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학급의 교사 대 아동수가 2021년에는 1:4.0(2020년에 비해 0.2명 감소), 3세 부터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학급은 1:8.0(2020년에 비해 0.3명 감소)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교육에 참여한 학생(예비교사) 수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0, 2021 학년도에 73,220명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2021년 3월 1일 시점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아동 돌봄 기관)에서 일하는 교사의 수가 659,827명으로 최고치에 달함(2020년에 비해 23,918명 증가).
- 이런 긍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차이는 여전히 현저하게 크며, 개선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줌. 교사 대 아동 수 비율을 예로 들면, 3세 이하 학급의 교사 한명 당 아동수 가 2.9명에서 5.9 명까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어린이집 환경법 (Das Kita-Qualitätsgesetz)

- 어린이집 환경 개선의 장기전 발전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법(KiTa-Qualitätsgesetz)이 20 대 입법 기간 동안 전국 표준을 기반으로 한 환경개발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 으로 전환될 예정임. 전문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 부는 총력을 다 할 것임.

2023년 01월 02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positive-entwicklung-bei-der-qualitaet-inder-kindertagesbetreuung—208106

- 2. 독일 정부는 2023년 6월까지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함.
- 2023년 6월까지 독일 연방정부는 "언어-어린이집(유치원 포함)" 6,000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90%에 가까운 수치임. 6월 이후에는 지방정부에 의해 지원이 될 예정임.
- 연방 가족부는 2022년 말까지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개월 연장한 2023년 6월까지 109밀리언(1억 9백만)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이로 인해 2016년 시작된 본 지원 정책의 구조와 노하우는 유지 되면서, "언어-어린이집"의 계획은 보완하게 되어 안정적으로 실행 될 수 있게 됨.
- 2023년 6월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언어-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임.지방정부가 본 지원을 인계하면서, 어린이집의 언어교육이 시범프로젝트의 성격을 벗어나, 지방정부에 적합하고 그에 맞는 법적 기반에 초석을 둘 수 있게 될 것임.
- ■교육부 장관인 리사 파우스는 연방 주들과의 오랜 협상을 통해 "언어-어린이집" 지원 계획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해 언어교육 계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언급함. 지방 정부의 지원에 의해 "언어-어린이집"이 특수 지원이 아닌 표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2개의 연방주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주들이 "어린이집 환경법 (KiTa-Qualität sgesetzt)" 차원에서 향후 2년 동안 40억 (4 빌리언)유로를 "언어-어린이집"을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2023년 1월 1일 부터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참여에 관한 제 2법 (Kita-Qualitätsgesetz) 이 시행됨. 2024년까지 연방정부는 교육 및 보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연방주를 지원할 것임. 이와 함께 연방, 주 및 지자체가 함께 지난 2022년 여름에 시작한 전문 절차(Fachpro zess)를 통해 전국 표준을 갖추고, 이에 맞게 전국적으로 동등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안을 구상하고자 함.

■ 연방정부는 연방주와 함께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전문인력(교사) 확보를 위해, 전문가, 관계자들과 함께 전략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임. 이는 영유아교육 및 종일 학교(Ganztag Schule)계획 실행의 전제 조건임.

#### ▮ 연방 프로그램 "언어-어린이집"

- 2016년 아동의 언어 발달 향상을 위해 시작된 어린이집임. 이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안 중하나임. 본 연방 프로그램은 언어발달 지원이 가장 필요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본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융합된 언어 습득', '포괄적 교육', '가족 참여'를 강조함.
- 연방 프로그램은 "언어-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지원함. 2021년부터 "언어 어린이집"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교육을 언어 교육에 통합하는데 새로운 초점을 둠. 각 연방주의 지원을 통해 각 주의 구조에 맞는 언어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2023년 01월 30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foerdert-sprach-kitas-bis-ende-juni -2023-weiter-214622

## 3. 어린이집 등록의 어려움

- 독일청소년연구소(DJI)의 Equal-Access-Study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떠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살펴봄.
-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이 같은 연령대의 아동보다 늦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의 국가 교육 리포트(das nationale Bildungsbericht, 2022)에 따르면 만 3세 이하 아동의 평균 35%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반면, 이민자 자녀들은 21%에 불과함. 낮은 어린이집 등록 비율은 부모의 교육 정도, 낮은 소득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불평등의 구조적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며, 독일, 스웨덴, 캐나다의 지자체 어린이집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책임자와의 질적 인터뷰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짐.
-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안토니아 숄츠(Dr. Antonia Scholz) 박사와 브리타 멘젤 (Britta Menzel)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체 보육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로 행정부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접근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분산형 보육시스템으로서 지역을 설계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3세 미만의 어린이의 어린이집 접근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이용 가능하고 저렴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취약한 환경(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저소득층, 낮은 교육 수준의 부모 또는 독일어 구사가 원할하지 않은 부모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정보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기관을 마련해 다가가야 할 것임. 가족센터와 같은 가족 모두의 필요가 충족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관을 이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립 또는 확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임.
- 소외계층 가정이 간소화된 사전 등록을 통해 보다 쉽게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입학 절차를 집단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임.

2023년 05월 02일

출처: https://www.dji.de/themen/kinderbetreuung/hindernisse-auf-dem-weg-zum-kita-platz.html

#### 4.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인력난 본격화

- 새로운 영유아 보육교육 지표 연구(Fachkräftebarometer Frühe Bildung)에서 보육교육 분야의 인력, 노동시장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를 발표함.
- ■3세 미만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권한이 법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어린이집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어린이집 시설, 영유아에 대한 공식 통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 ■이러한 인상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시설 내 인력 부족 현상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문성 기준이 낮아졌으며 영유아 보육·교육, 돌봄 및 양육 부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2026년부터 시작되는 초등 종일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는 보육(아동 돌봄) 시스템에 대한 부담 역시 가중시킴.

-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차세대 교사들에게 보육·교육 분야의 취업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교육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됨. 새로 발간된 영유아 전문 인력 확충 및 교육 이니셔티브(Weiterbildungsinitiative Frühpädagogische Fachkräfte WiFF)의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전문 인력 지표 (Fachkräftebarometer Frühe Bildung)는 이러한 의문에 실증적으로 분류하고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교직원 증가는 지속되었지만, 아동 돌보미(일정의 교육과정을 거친 이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3~5명의 유아들을 돌보는 형태)의 성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아동 돌보미의 수는 약 44,800개에서 41,900개로 감소함. 코로나 이전과 달리 돌봄을 받는 아동 수도 감소함. 가장 최근에는 166,300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았으며, 이는 2020년 약 174,000명(-4%)에 비해 감소한 수치임. 현재 아동 돌보미 1인이 평균 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음.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동일한 수준임. 돌보미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시스템(키타 시스템 Kita-System)이 U3(3세 미만 유아)의 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음.
- ▮영유아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직원 친화적인 노동 시장은 고용 조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015년에는 전체 교사 및 (부)원장직의 15%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었지만, 2022년에는 그 비율이 11%에 불과했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급여는 26% 증가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석과 이를 채울 수 있는 인력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음. 2012년에는 공석 100자리에 실업자로 등록된 교사가 142명이었지만, 최근 수치는 62명에 불과함. 이 직업군의 공석 수는 지난 3년 동안 20% 증가한 반면, 등록된 실업자는 4%로 감소했음. 영유아교육 분야의 직업별 실업률은 1.1%에 불과함.
  - 2) 어린이집 교육 환경의 질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비슷한 규모의 시설에서 (부)원장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방 주에 따라 주당 최대 15시간까지 차이가 남.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 3세 미만은 교사 1 인당 최대 3명, 3세 이상은 교사 1인당 최대 5명, 학교에서는 교사 1인당 최대 11명까지로 아동 수에 차이를 나타냄. 또한 각 주마다 교사자격 수준과 보조교사 사용 여부도 다름.

2023년 10월 25일

출처: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personalkrise-in-der-kindertagesbetr euung-spitzt-sich-zu.html

- 5.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종일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불평등함이 존재함.
- 독일청소년연구소(DJI: Das Deutsche Jugendinstitut)의 아동 돌봄에 관한 연구 (Kinderbetreuungsstudie KiBS)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돌봄 자리의 공급과 수요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며, 모든 부모가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음.
- 2026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종일반 자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며, 이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독일은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 임.)으로 확대될 예정임. 2022년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교 외 활동(음악 또는 스포츠)과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여전히 기존 제도로는 충족할 수 없지만, 학부모의 요구가 종일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부모들이 학교 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독일 전체 초등학생의 5%가 학교 외 활동 또는 돌봄에 참여하지 않음. 이러한 격차는 거의 모든 연방 주에서 나타남. 그 외 3%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보다 주당 최소 5시간이 적었음.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돌봄 자리와 시설 확대가 필요함.
- 현재 돌봄의 자리 부족으로 일부 가정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평등은 지난 몇 년간 더욱 증가했음. 이민가정과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은 이민가정이 아닌 경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 비해 아동 돌봄 자리를 확보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음. 모든 아동의 참여도를 높여 평등한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표는 현재 달성되지않고 있음. 이는 DJI 아동 돌봄 연구(KiBS)의 2022년 부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2023년 DJI 보육 보고서'의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Grundschulkinder entsprechensie den Bedarfen der Eltern?)" 연구의 주요 결과임.

## ■돌봄 수요의 정체

- 2018년까지 학교 외 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학교 외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과 거의 일치하게 증가했음. 그러나 2019년부터는 동독과 서독 모두에서 이러한 증가 세가 정체되고 있음. 서독의 경우, 2020년까지 돌봄 시설의 확대로 인해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크게 좁혀 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돌봄 시설이 만들어져야 함.
- 일부 부모들만 종일반 서비스를 원함

- 최근 몇 년 동안 돌봄 서비스의 확대는 종일반 돌봄에 매우 집중되었음. 그러나 KiBS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연방 주에서는 일부 부모들이 점심시간까지만 돌보는 짧은 돌봄 서비스에도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함. 따라서 연방 주정부의 돌봄 관련 책임자들이 초등학생을 위한 질적으로 좋은 점심시간 보육에 관한 컨셉을 개발해야 할 것임(\*독일의 초등학교는 점심시간 전 11-12시에 모든 수업이 끝남).

#### ■ DJI의 아동돌봄 연구(KiBS)

- 지난 7년 동안 KiBS 팀은 매년 아동 돌봄에 관한 분석 자료를 작성해 왔으며, 이 자료는 주제별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매년 반복되는 주제로는 부모의 요구 사항에 관한 업데이트와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아동의 조기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임. 또한 서비스 이용비(돌봄 비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가정과 직업 간의 균형성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짐.
- 따라서 2022년 DJI 아동돌봄 보고서의 연구5(Studie 5 des DJI-Kinderbetreuungsreports 2022)에서는 아동이 처음 가정 외 돌봄 (어린이집 또는 돌보미를 통한 돌봄)을 이용하는 시기부터 취학할 때까지 이용의 지속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조사함. 예를 들어, 가족의 거주 지역이나 이용되는 돌봄 형태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었음. 동독 지역 아동은 평균 16 개월에 처음으로 가정 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서독 지역의 아동은 평균 23개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함. 평균적으로 돌보미 (Kindertagespflege)를 통한 돌봄을 받은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 입학 시기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더 어렸음. 또한 어린이집 입학 연령과 부모의 교육 수준, 아동의 이민 배경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은 유아교육 기관에 늦게 입학하는 반면, 학력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훨씬 일찍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DJI 아동돌봄 보고서의 연구3(Studie 3 des DJI-Kinderbetreuungsreports 2022)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관련 상황을 살펴봄. 2026년부터 초등학생의 종일반 돌봄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취학 후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알 수 있음.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교 외 활동 프로그램을 원했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했음. 그러나 2020년 과 2021년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입학 전 학교 외 활동 및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정 10곳 중 1곳은 입학 첫 해에 학교 외 활동 및 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첫 학년도에 불만을 나타낸 부모는 소수에 불과 했음. 이는 취학 전 돌봄을

희망했지만, 실현하지 못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다른 돌봄 해결안을 찾았기 때문임.

- KiBS는 독일 연방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부(BMFSFJ)의 지원을 받고 있음. 아동 돌봄 요구 사항과 실제 돌봄 서비스 이용 빈도 및 정도에 대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는 BMFSFJ의 연례 팜플렛 "Kindertagesbetreuung Kompakt"("아동 돌봄 간략보고")에 게 재됨.

2023년 11월 29일

출처: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nicht-nur-in-der-kita-ungleichheiten -im-zugang-zu-ganztaegigen-angeboten-setzen-sich-in-der-grundschule-fort.html

# **\$** 아동·청소년지원

- 1. 팬데믹 이후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확대
- 정부 부처 간 실무 담당 그룹(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이 발표한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임. 연방 가족(청소년)부 장관이 함께한 이번 전문가 회의의 주요 주제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2023년 2월 8일, 독일 연방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Gesundheitliche Auswirkungen auf Kinder und Jugendliche durch Corona)"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상호 실무 그룹(IMA)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함. 본 보고서는 연방 가족 (청소년)부 장관과 연방 보건장관이 공동으로 제출함. 보고서의 핵심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 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정신건강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연방 가족(청소년)부 장관은 "약 73%의 청소년이 현재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으로 매우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전쟁, 인플레이션 및 기후 위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들이 추가 되었다. 빈곤 가정, 한부모 가정, 이민자 가정, 협소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거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더 심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위기를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는 개인의 자원 또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다.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이 짊어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실무 그룹은여러 제안을 하였다. 이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젊은 세대 연합(Bündnis für die junge Menschen)'의 힘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다른 정부 부처의 전문가 뿐 아니라 '젊은 세대 연합'의 회원도 본 회의에 참석함. 연방 가족(청소년)부 장관은 2022년 12월 본 연합을 창단 하였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중매체, 문화, 학문 및 정치 분야의 150명 이상이 이 연합에 가입하며 공동 선언서에 서명함. 이들은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정부 부처 간의 상호 실무 그룹(IMA)은 개선이 필요한 5분야를 제시하고, 각 분야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함. 종합 보고서는 이 분야에 관해 연방 정부가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한 구체적인 조치도 알림. 개선에 관한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학교, 어린이집, 소아과 의사 및 청소년 및 가족 지원 분야에서 구현될 예정임.

- 조기 지원 분야(Handlungsfeld Frühe Hilfen): 연방 정부는 올해 혜택을 확대할 것임. 총 56백만 유로의 예산이 확보되어 자녀 출생 직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웰컴 방문을 통한 지원,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직접 지원함. 예를 들면 아 가족 산파(family midwife)를 지원 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동시에, "부모되기 정보 (elternsein info)" SNS를 통해 젊은 부모들을 위한 지자체의 여러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줌. 이민, 정신 건강 및 영양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디지털 상담 전문가들을 강화할 것임.
- 보육 분야(Handlungsfeld Kindertagesbetreuung): 어린이집 환경 개선법 (Kita-Qualit ätsgesetz), 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한 정부 투자 계획 및 전문인력 확보 전략은 보육 서비스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대해 약 40억 유로를 지원하며, 건강, 영양 및 운동 분야 개선 또한 포함되고 있음.
- 학교 분야(Handlungsfeld Schule): 2023~2024년부터 연방 청소년부의 모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긴급한 정신적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해 정신 건강코치(Mental Health Coiaches)가 학교에 지원 될 예정임.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제를 느낄 때 그들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정신적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적인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임. "고민 상담 전화 (Nummer gegen Kummer)"를 통한 학교 상자 캠페인(Schulboxenaktion)도 지속 진행되며, 초등학교 종일반 확대 사업에서도 건강지원 분야는 중요한 부분임.
- 건강 분야(Handlungsfeld Gesundheitswesen):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소아약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연방 보건부는 이미 여러 다양한 단기적인 조치를 취했음. 예를 들어, 병원 내 소아과 진료의 매출 보장 및 2023년과 2024년 각각 3억 (300 밀리언) 유로의 추가 자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 치료를 지원함. 예방 및 건강 증진도 강화되며, 정신과 및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이해 관계자와 협조하여 더 많은 치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심리치료사가 부족한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치료 받을 때까지의 대기 기간을 줄이고자 함.
- 청소년 및 가족 지원 분야(Handlungsfeld Jugend- und Familienhilfe): 청소년, 아동 및 가족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 강화법(Jugendstärkungsgesetz)으로 창출된 새로 운 법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함. 아동은 부모의 허락 없이 청소년 복지국(Jugendamt)에서 심리사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는 교육상담소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02월 08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ehr-unterstuetzung-fuer-kinder-und-jug endliche-nach-der-pandemie-214736

## 2.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지원

- "커버차일드(coverCHILD)"는 새로운 치료법, 포괄적인 치료 접근 방식 및 예방조치 개발 에 관한 데이터를 통합한 플랫폼임.
- "커버차일드"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은 어떻게 지냈고, 현재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미래의 위기 상황에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건강이슈를 검토함. 또한 본 프로젝트는 기존 구조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위기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동 코로나19 연구 플랫폼

- 본 플랫폼의 목표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각 학문간 연구들 즉 팬데믹이 가져 온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결과에 관한 데이터와 연구들을 모아 놓음. 연구 플랫폼은 아동 및 청소년을 치료하는 모든 독일 대학병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개의 분야로 나눠짐.
- 아동, 청소년 코로나19 관련 질병과 예방 및 치료 분야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 필요한 프로 그램 개발 분야를 주로 다루고, 기타 주제로는 백신접종 및 검사, 즉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중 보건 조치 개선, 팬데믹이 초래한 윤리적 문제 등을 다룸.
-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장기관찰법 및 연구방법센터(Zentrum für Dauerbeobachtung und Methoden)와 함부르크-에펜도르프대학 의료 센터(Universitätsklinikum Hamburg-Eppendorf UKE) 그리고 연방 및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국가 연구 데이터 인프라 (Nationale Forschungsdaten-Infrastruktur NFDI)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NFDI4Health 메타데이터 구조를 활용하고 발전시켜, NFDI4Health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컬렉션을 생성할 예정임.
  - \* NFDI4Health: 국립 연구 데이터 인프라 4건강(National Research Data Infrastructure for Health)을 의미하며, 독일에서 건강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연구 데이터 인프라임.

#### ■ 대학병원 네트워크 (Netzwerk Universitätsmedizin: NUM)

- 커버차일드는 대학병원 네트워크 프로젝트(NUM) 중 하나임. NUM을 통해 36개 독일 대학 병원 모두가 처음으로 대규모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는 2020년에 시작되어, 모든 대학병원의 코로나19 연구를 조정하고 있음.
- 앞으로 NUM은 장기적으로 다른 질병을 조사하고, 의학, 의료 시스템 및 사회 관련 분야 기관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 시키고자 함. NUM은 특히 임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환자 치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가장 중요한 취지는 복잡한 의료 데이터의 공동 수집 및 사용에 있음. 이를 위해 대학병원 네트워크는 독일 의료 시스템이 미래의 팬데믹의 위기에 더욱 잘 준비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함. NUM은 연방 교육 및 연구부가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F) 자금 지원을 하며 베를린 샤리티 대학병원 (Charite Universitätsmedizin Berlin)이 운영하고 있음.

# ■ 커버차일드 연구 링크:

https://csh.nfdi4health.de/collection/coverCHILD

## ■ 커버차일드 상세 정보 관련 링크:

https://coverchild.de/

2023년 06월 22일

출처: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kinder-und-jugendliche-in-krisen-un terstuetzen.html

# 3. 독일학교 지표/바로미터: 아동 빈곤의 심각함

■ 2023년 6월, 독일 전역의 일반 및 직업학교 교사 1,032명을 대상으로 아동 빈곤, 시간제 근무, 디지털화 및 포용성(Inklusion)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음. 본 설문조사의 주최인 로버트 보쉬 재단은 2019년부터 독일 학교 바로미터를 통해 독일 내 학교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의 재정 상황이 우려되는 아동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됨. 로버트보쉬 재단의 '독일학교 바로미터'는 현재 교사와 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최근 발표된 결과에서 교사들은 2021~22학년도 대비 아동 빈곤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함.
- 비네 발퍼(Sabine Walp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은 재정적 또는 학업에 있어 눈에 띄게 압박을 받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022년 말 함부르 크-에펜도르프 대학 의료 센터(Universitätsklinikum Hamburg-Eppendorf UKE)의 마지막 COPSY 설문 조사(COronoa und PSYche)에서도 아동의 불안감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갈등 또한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긴 봉쇄 기간은 과도한 미디어 (온라인) 사용을 초래했다. 이 긴장된 상황에서 규모가큰 반에서 학생 간의 편차를 줄이며,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 ■본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부모의 재정 상황에 대한 걱정(33%) 외에도 교사 3명 중 1명은 아동이 학교 준비물이 구비 되지 않았거나(37%),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오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고 함(30%). 또한 교사의 29%는 아동, 청소년의 여가 활동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함. 교사 4명 중 1명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참여도가 낮아졌다고 함(24%).
-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34%)과 교사 자신의 업무량(31%)이 현재 교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타냄. 학생들의 3/4 이상이 수업 중 집중력 문제를 보였고(81%, 2022년: 80%), 과도한 온라인 사용(79%, 초등학교 66%)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또한 교사 3명중 1명(31%)은 아동과 청소년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파트타임(정교사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교사)에 재직 중인 교사 중 2/3가 근무시간 연장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연 초 부터 극심한 교사 부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파트타임 교사의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음. 이러한 맥락에서 응답자의 38%가 현재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파트타임 교사 중 2/3은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고, 그 중 40세 미만의 경우 73%에 달함.

2023년 10월 03일

출처: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deutsches-schulbarometer-kinderar mut-wird-sichtbarer.html

# \*\* 돌봄

- 1. 초등학교 종일반 돌봄에 관한 컨퍼런스
- 연방 가족부 장관은 초등학교 종일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함. 연방 청소년부(Bundesjugendministerium)와 연방 교육부(Bundesbildungsministerium)가 공 동으로 회의를 주최 하였으며, 본 컨퍼런스의 주제는 "종일반 개선을 위한 성공 요인"임.
- ■연방 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부모가 종일반 돌봄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동 친환경적이고 수준 높은 종일반 교육 및 돌봄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의 성공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초등학교 종일반은 아동이 받게 되는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전문가 회의를 통해 종일반 확장에 관한 현 상황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연방 정부의 투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며, 법적 자격에 대한 사항을 논의함. 본 컨퍼런스는 현장 참여와 온라인 형식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학계와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학교 행정 및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전문가적 견해와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함으로써, 종일반 교육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참가자들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패널 토론 및 총 21개의 전문가 포럼에 참여함. 본 컨퍼런스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종일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
- ▮종일반 교육과 돌봄에 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초등 아동에 대한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는 아동의 교육 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가족의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2021년 종일반 지원법 (Ganztagsförderungsgesetz: GaFöG)이 만들어 진바 있음.
  - 2026~27학년도부터 법적 권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적용됨. 향후 2029~30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독일 초등학교 학제는 4년임) 아동이 종일반의교육과 돌봄을 받을 법적 권리를 가질 때까지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임. 연방 정부는 운영 비용에 3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2026년부터는 매년 예산을 확대하여, 2030년부터는 연간 13억 유로가 추가 지원될 것임).

2023년 04월 26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ongress-zur-ganztagsbetreuung-in-der-g rundschule-224178

# 2. 초등학교 종일반 확장 투자프로그램의 시작

- ■독일 연방 정부는 초등학교 종일반 확장 투자를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방 주에 30억 유로를 제공함. 연방 가족부 장관(Lisa Paus)과 연방 교육부 장관(Bettina Stark-Watzinger)은 함께 이에 대해 서명하였으며, 그리하여 연방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반 교육 및 돌봄을 확대할 예정임. 이에 대해 독일의 16개 연방 주 모두 행정 협정에 동의함.
- 연방 가족부 장관은 "새로운 투자 프로그램의 시작은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연방 및 연방 주 정부는 초등학교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초등학교 종일반은 교육적 불이익을 줄이고 인생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교육의 성패에 관한 부모의 책임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종일반의 돌봄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하고, 특히 여성의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독일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은 종일반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양적 또는 질적 확장을 위한 연방 주, 지방 자치 단체의 추가 투자 조치에 관하여 제공됨. 건물 및 토지 취득, 신축, 개조 및 확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재·개조와 종일반에서 필요한 교육 및 돌봄 제공 및 장비 또한 포함됨. 해당 되는 주의 투자 프로그램이 게시되는 즉시 각 해당 연방 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연방 교육부 장관은 "아동은 더 많은 교육 기회와 기회 평등이 필요하다. 종일반 교육과 돌봄은 개별적 지원, 더 많은 참여 기회 그리고 일-가정의 균형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최대 30억 유로를 이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질적인 투자로, 종일반의 환경 개선에 관해 학문적 또는 시민 사회적 관점에서 꾸준히 동행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와 연방 주 정부가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다. 교육 정책의 전환은 공동작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초등학교 종일반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은 2021년 종일반 개선법 (Ganztagsförderun gsgesetzt Ga-FöG)에서 규정한 초등학생의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2026-27학년도부터 법적 권리는 모든 1학년 아동에게 적용됨. 그 이후에는 2029-20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4학년의 모든 아동에게 종일반 교육 및 돌봄을 받을 법적 권리가 주어짐. 그때까지 종일반 확장 사업은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임.

2023년 05월 17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investitionsprogramm-ganztagsausbau-star tet-225520

# 3. 아동 돌봄의 꾸준한 증가

■ 7월 13일 연방가족부는 "보육 콤팩트(Kindertagesbetreuung Kompakt)" 제 8판을 발표함. 제8판에 따르면, 2022년에 어린이집이나 가정 돌보미(Kindertagespflege: 보육 자격보유한 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5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통한 가정 외 돌봄을 받는 만 3세 미만의 아동이 증가함.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거의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세~취학전 아동의 높은 가정 외 돌봄 비율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독일의 만3세~취학 전까지의 아동은 2,651,611명임. 이는 전년도 보다 약 39,000명이 증가한 것이며, 전체 이 연령대 아동의 92%임. 즉, 이 연령대 거의 모든 아동이 가정 외 돌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세 미만 자녀의 가정 외 돌봄 비율은 35.5%임. 2006년에 비하면 현격히 증가한 추세로, 2006년에는 13.6%인 것을 감안하면, 20%p 이상이 증가한 것임.
- 2021년 처음으로 가정 외 돌봄의 비율이 하락한 후, 1년 이내에 거의 4%가 증가함. 그 결과 가정 외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증가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4~2019년 수준으로 회복됨. 따라서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 ▮가정 외 돌봄 자리에 대한 권한 부여로 인한 영향

- 연방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린이집의 질적, 양적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음. 2013년 8월 1일 부터 만1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한 가정 외 돌봄 자리에 대한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 되면서, 만3세 미만 영유아의 가정 외 돌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비율은 2013년 29.3%에서 2022년 35.5%로 증가함.

# ■더 많은 공급 확보

- 보고서에 의하면 가정 외 돌봄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특히 만3세 미만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해당됨. 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돌봄 이용률과 돌봄 수요의 차이는 13.2%p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73%가 가정 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하지만 방과 후 돌봄 또는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는 55%에 그쳤으므로, 돌봄 이용률과 돌봄 수요에는 18%p의 차이가 있음.

# ■전문가 확보 및 유지

- 연방정부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숙련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종일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은 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2026년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종일반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로 교육 전문가들의 수요는 보다 증가할 것임.

#### ■ 2026년부터 시행될 초등학생 종일 돌봄 법적 권한 부여

- 2026년 8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모든 아동에게 종일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2027년에는 1~2학년, 2028년에는 1~3학년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2029년 8월부터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모든 초등학생이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음. 연방정부는 이를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35억유로(한화로 약 4조 9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임. 연방정부는 종일반 운영 비용에 기여하기 위해 연방주에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기금은 2026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30년부터 연간 13억유로(한화로 약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임.

# ■ 어린이집 품질 개선법(das Kita-Qualitätsgesetz)

- 유치원 품질 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통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총 약 40 억 유로(한화로 약 5조 6천억원)를 투자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과 참여 증진을 하고 자 함. 본 법은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문 인력 확보, 어린이집 환경 관리 강화 또는 보육 및 유아교사 자격과 같은 환경 개선의 추가 개발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함.

2023년 07월 13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immer-mehr-kinder-in-der-tagesbetreuun g-227290

# \*\* 기타

- 1. 가족 정책의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
- ■독일청소년연구소(DJI)는 가족 정책의 금전적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와 어떤 장벽이 있는지 가족의 이민 배경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해당 연구의 제목은 '가족을 위한 금전적 혜택 청구의 장벽(Barrieren der Inanspruchnahme monetärer Leistungen für Familie)'임.
- ■독일에서 생활기본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 중 30%~60%가 이를 신청하지 하지 않고 있음.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의 경우,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70% 가까이 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금전적 혜택을 의도치 않게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임.
- ■독일청소년연구소의 연구원인 다그마 뮐러는, "이는 가족 및 사회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역행하는 것"으로 설명함. 다그마 뮐러는 "정부의 혜택 수급 체계를 잘 알고,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혜택을 받게 되어, 유사한 필요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배제되 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언급함.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민 배경이 있는 가족의 혜택 수령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루어짐. 연구의 초점은 생활 기본보장과 빈곤퇴치와 관련된 혜택들, 특히 아동관련 분야의 혜택 수령 여부에 초점을 둠. 예를 들어 사회수당 (Sozialgeld),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과 같은 혜택으로, 이는 정부가 계획 중인 아동기본보장 (Kindergrundsicherung)에 유입되는 것들임.

####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가족관련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민배경을 고려한 기존 연구는 소수임. 이민자 또는 이민배경의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생활 기본보장 혜택을 더 많이 수령함. 이는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합류되는 어려움과 낮은 소득에 있다고 봄. 혜택을 필요로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중 혜택을 청구하는 부분에서 이민 배경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이민자들 중 외국인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 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몇몇 연구에서는 혜택을 청구하는데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함.

- 신청의 어려움: 문헌조사에 의하면, 금전적 혜택을 신청 하지 않는 이유로는, 혜택에 대해 모르는 경우, 낮은 액수, 언어장벽, 수치심, 국가에 대한 낮은 신뢰 및 차별대우가 있음. 수혜를 신청하지 않는 다른 주된 이유로는 복잡한 신청절차,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그리고 각 담당 기관들 간의 불협화음 등 높은 관료적 장애물을 꼽을 수 있음. 위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가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각각의 이유들이 다른 이유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간 그룹간의 차이가 있는지 등의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해외 사례(국제적 접근): 해외 문헌조사를 통해 금전적 혜택에 대한 신청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봄. 적극적인 홍보, 혜택 청구 및 신청 방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혜택수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디지털 장비와 기술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된경우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따라서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와 동행할 사람이 필요함.
- 빈곤 예방을 위한 정치적 조치: 혜택 신청과 관련된 연구는 정부가 계획 중인 빈곤 예방 정책과 가족관련 수당의 디지털화와 같은 부분에서 정치적 맥락을 가짐. 아동 관련 서비스 들은 아동기본보장에 합류되며, 육이수당(Elterngeld)과 같은 혜택은 디지털화를 통해 접근 용이성을 창출하고자 함. 각 해당 그룹별 수당 신청 및 신청 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한 기본 정보는 정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임.

2023년 06월 07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warum-familien-geldleistungen-nicht -in-anspruch-nehmen.html

# 2.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 ■독일의 공공의료보험기관인 DAK-Gesundheit의 연구에 의하면, 취약 가정의 아동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아동보다. 외로움을 느끼고 아픈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월 27일, DAK-Gesundheit은 2021-2022학년도 아동의 복지와 건강 상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자주 아프고 외로운 감정을 느낀 것으로 나타남.

- ■독일연방 청소년부 장관 산하 의회 국무장관인 에킨 델리괴쯔 (Ekin Deligöz)가 연구 결과 보고회에 참여하였음. 에킨 델리괴쯔는 '소외 계층의 아동 상황은 코로나 이전에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그들의 건강 상태는 또래 들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아동이 빈곤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아동 기본보장 (Kindergrundsicherung)정책의 실행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신건강 코치와 같은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함.
- DAK-Gesundheit의 이사인 아드레아스 스트롬(Andreas Strom)은 '사회적 배경이 교육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건강예방 차원에서, 본 연 구 결과는 건강을 위한 조건 또한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건강 한 삶의 공평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여러 측면의 조치와 전략 그리 고 관련 파트너 간의 상호협력이 시급하다'고 함.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5~10학년의 아동 중 약 33%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자주 느끼며, 친구가 없다고 느낌. 사회적 소외 계층의 아동 중 절반이 외롭다고 한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그룹의 아동 28%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신체적 고통이나 증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동에게 더 자주 보임. 풍요로운 가정의 아동의 21%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가지 이상의 통증을 경험하는 반면, 사회 취약 계층의 아동 38%는 신체적적 통증을 경험함.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은 계층과 상관없이 약 25~27%로 이며, 19%가 규칙적인 복통을 호소함.
  - 사회 소외 계층의 아동 중 44%가 정서적 문제인, 우울감, 기쁨의 부재, 자존감 상실 등을 호소함. 이에 반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의 26%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함.
  - 설문 조사에 참여한 모든 아동 36%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수면 문제를 겪음. 사회 소의 계층의 아동 50%는 수면에 문제가 있으며, 그 중 22%는 수면제 복용경험이 있음. 사회 소외 계층의 수면 문제는 장시간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 즉 휴대폰, 게임 콘솔 및 노트북, 컴퓨터 사용과도 연관이 있음.

■본 연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dak.de/dak/unternehmen/reporte-forschung/praeventionsradar-202 3\_40822

2023년 07월 27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die-gesundheit-von-schulkindern-haengtvon-der-sozialen-herkunft-ab-228928

# 3.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및 요구사항

- PETRA 연구기관은 독일 연방가족부의 의뢰로 '아동 복지와 접촉권(Kindeswohl und Umgangsrecht)' 연구를 수행하였음. 부모의 별거와 이혼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하였으며, 부모가 갈등 없이 상호작용하고 자녀의 바람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줌.
- 부모의 별거와 이혼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됨. 본 연구는 별거 또는 이혼 시 아동이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녀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통찰력을 제공함. 연구는 아동 중심 접근 방식(kindzentrierter Ansatz)으로 아동의 관점에서 연구 문제에 접근하였음.
- 피터 뷔트너(Dr. Peter Büttner, Forschungsgruppe PETRA) 박사는 '아동 중심 접근 방식으로 진행한 본 연구는 독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구이며, 별거 및 이혼 연구 분야에서 의 진전을 나타낸다. 연구 결과는 자녀의 관점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다. 연구의 중심은 별거 또는 이혼 시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주는 영향이다'라고 언급함.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녀의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유대 및 관계. 그리고 부모 간의 접촉 경험임.
  - 자녀를 돌보는 방식(어느 부모의 집에서 얼마나 지내는지, 누가 얼마나 돌보는지에 관한 것)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중요한 요소가 아님.
  - 자녀의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긍정적인 가족 관계에 있으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를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함.

- 갈등이 있거나 거주지 또는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요구와 바람이 고려되어야 함. 자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정은 자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줌.
-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가 다양한 결정 상황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은, 아동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2023년 08월 22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in-trennungsfamilien-staerken-und -ihre-anliegen-beruecksichtigen-229046

# 4. 중환자 아동을 위한 치료에 관한 정보를 담은 영상

- 아동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영상으로 소개함으로써 치료 및 서비스 정보 여부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자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리면 가족들은 큰 불확실성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리고 질병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질병의 진행 과정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가 많음.
- 영상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호스피스 활동과 완화의료(죽음을 앞둔 중증 환자 케어: Palliative Care)에 대해 알리는 것이 목표임. 이 영상은 환아 가족이 언제,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 줌.
- 가족부 장관인 리사 파우스는 독일에 약 100,00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생명이 단축되는 병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며,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여러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 했다고 함.
- ■본 영상은 해당 가족뿐만 아니라 중환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함. 이는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터키어, 아랍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로 번역되었으며, 다른 언어로도 소개될 예정임.

■이 영상은 비텐/헤르데케 대학(Universität Witten/Herdecke)의 다텔른 아동 완화의료센터(Kinderpalliativzentrum Datteln)의 보리스 체르니코프 교수(Prof. Dr. Boris Zernikow)의 지휘 아래 '독일 내 중증 환자 및 임종자 치료를 위한 헌장'(Charta zur Betreuung schwerstkranker und sterbender Menschen in Deutschland)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됨. 독일 아동 호스피스 협회(Der Deutsche Kinderhospizverein), 독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협회(Der Deutsche Hospiz- und PalliativVerband), 연방 아동 호스피스 협회(Der Bundesverband Kinderhospiz) 및 독일 아동 완화의료 재단(Die Deutsche KinderPalliativStiftung)도 참여함. 제작은 독일 연방 가족부의 지원을 받았음.

# ■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경감

- 독일에는 해당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소아과 병원, 개인 진료 의사 및 외래소아환자 서비스(Ambulante Kinderkrankenpflegedienst)에서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그러나 가족은 질병이 발병한 이후부터 아동 및 청소년 호스피스 사업과 소아 완화 치료(pädiatrische Palliativversorgung/palliative service for Childre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주요 목표는 중환자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생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일상생활에서 개별화된 지원과 완화, 지지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질병 증상의 완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 영상내용

- 중증 소아과 환자들을 치료하며, 돌보는 방법은 다양함.
- 소아 청소년 병원(Kinderklinik)과 개인 진료 소아과 의사들에 의한 것 외에가정에서 지내면서 외래환자케어서비스(outpatient care service: ambulanter Kinderkrankendie nst)를 받는 것
- 호스피스(Hospice work) 또는 소아 완화치료 서비스(pädiatrische Palliativversorgung /palliative service for Children)는 중환자 아동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일상의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증상 완화(예를 들어, 통증 또는 숨쉬기 어려움)를 돕는 것 등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을 함. 지원은 소아 청소년 환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이루어짐.

- 호스피스 또는 완화치료 팀의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외래와 병원에 입원해 있을 시에도 가능함.
- 소아전문 완화병동/병원도 있음: 병이 악화 되었거나, 중환자 아동 또는 해당 가족들이 잠 시 휴식이 필요할 때 또는 마지막 시점이 다가 왔을 때 등
- 특수 전문가로 구성된 완화 치료팀 SAPV(Die Spezialisierte ambulante Palliativversorgung)은 간호사, 의사, 사회 복지사 그리고 심리치료사로 구성 되어 있음.
- 위 서비스는 질병의 시작시점, 병이 악화 되었을 경우, 질병 과정 중, 또는 마지막 순간이 거나 어느 시점이나 어느 문제이거나 항상 지원 받을 수 있음.(\*지원은 모두 무료임)

2023년 11월 2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urzfilm-beantwortet-fragen-zur-versorgu ng-schwerstkranker-kinder-233892

# 영국

	양육지원	
1	보육수당의 대폭적인 인상, 사상 최대 규모의 보육 확장에 첫 걸음을 내딛음.	119
2	65만 가구, 비과세 보육으로 보육비 절감	120
3	2세 이하 영아 대상 2024, 2025년 지자체 지원금 예시 금액 발표	121
4	'보육비 지원 계획 아래에 있는 친인척 영유아' 여론조사 결과(잉글랜드만 해당)	122
1	교육기준청(Ofsted) EIF 커리큘럼 로드쇼 개최	123
2	Coram Family and Childcare 2023 보육서베이 결과 발표	124
3	SEND와 대안교육 부문 개선 계획	125
4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교육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간	126
5	2023-2024 유아기 추가 교부금 지침	129
6	보육서비스 신청자 및 등록된 제공자를 위한 지침	130
7	아이돌보미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데이트	131
8	연합 보고서, 보육 부문 인력 위기를 드러냄.	132
9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Ofsted 보육 제공 및 점검 현황 (2023년 8월 31일 현재)	133
	돌봄	
1	아동가족부 장관, 사회적 주택 소유자들에게 아이돌보미를 위해 문을 개방할 것을 촉구함.	134
2	잉글랜드 신규 아이돌보미 보조금 지급 계획	135
	기타	
1	영국 왕립재단 영유아기 센터 캠페인 실시	137

# **\$\$** 양육지원

- 1. 보육수당의 대폭적인 인상, 사상 최대 규모의 보육 확장에 첫 걸음을 내딛음.
- 영국 정부는 통합급여(Universal Credit)의 최대 보육료가 6월 28일부터 매월 1,630파운 드까지 거의 50% 상승될 예정이라고 밝힘.
  - 가족에게 월 최대 522파운드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이 지원됨.
  - 많은 부모는 첫 청구서 지불이 연체되지 않도록 즉시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이하 DWP)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임.
  - 보육 인력 강화 계획과 함께 생후 9개월부터 학령기까지 무상 보육의 총체적 확장을 도모 하고자 함.
- 정부의 역대 최대 아동 보육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은 6월 28일부터 총 9 억 파운드 상당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달 말, DWP는 영국의 부모가 통합급여로 매월 보육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한 자녀의 경우 951파운드, 두 자녀 이상의 경우 1,630파운드까지 인상할 예정임. 이는 이전한도인, 한 자녀 646파운드, 두 자녀 이상 1,108파운드와 비교하여 47% 증가한 금액임.
- 정부는 또한 적격한 부모가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근무시간을 늘릴 때에 그 첫 달 보육료를 충당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부모의 근로에 가장 주요한 장벽의 하나가 제거됨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해당 부모들은 다음 달 보육료 청구 전에 보육료의 85%를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전월에 대해 지불할 금액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육을 더욱 가치있고 보람있는 직업으로 인식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보육 부문이 직면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에서 컨설팅을 시작함. 교직원의 효과적인 배치와 훈련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당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이번 조치는 무상보육에 관한 정부의 역사적인 확대(2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를 위한 15시간 무상보육(2024년 4월부터), 생후 9개월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 15시간 무상보육 (2024년 9월부터), 그리고 무상보육 30시간으로 확대(2025년 9월부터))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적 조치임.
- ■생후 9개월부터 2세 유아의 무상보육 제공을 위하여 보육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시간당 금액이 평균 6파운드에서 8파운드로 30% 인상됨. 이는 보육을 위한 재정 지원의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냄.
- 정부는 또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새로운 채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든 신임 교사부터 리더급까지 해당 부문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 취득 및 학위 과정을 신설 고려하고자 함.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경제적 비활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추진 활동의 핵심 기둥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5년간 35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음.

2023년 05월 3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massive-boost-to-childcare-payments-marks-first-step-in -largest-ever-expansion-of-childcare

# 2. 65만 가구, 비과세 보육으로 보육비 절감

- 5월 24일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이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2023년 과세연도에 649,935가구가 비과세 보육으로 보육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7,500가구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정부의 추가 지원을 통해, 매년 수천 가구가 보육,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 가정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휴일 돌봄 클럽, 아침 및 방과후 돌봄 클럽, 아이돌보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승인된 보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지난해에는 정부 자금 5억 3,300만 파운드가 보육비를 절감한 영국 전역의 가구들과 공유되었음.
- ■1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 또는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16세까지 매년 자녀 1인당 최대 2,000파운드, 장애 아동 당 최대 4,000파운드를 정약 할 수 있음.

- 비과세 보육 계정으로 8파운드를 지불할 때마다, 각 가구는 자동으로 2파운드의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음. 각 자녀마다 3개월당 최대 500파운드, 자녀가 장애가 있을 경우 최대 1.000파운드까지 절약할 수 있음.
- 이것은 영국 국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올해 물가상승을 절반 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이자 동시에 가계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임.
- ■백만 이상의 가구가 비과세 보육 적격 대상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가구들은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여 가계 절약을 도모할 것을 권유함. 비과세 보육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완료할 수 있으며, 연중 언제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할 수 있고 계정 내 사용하지 않은 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음.
- 이는 주당 30시간 무상보육의 확대 제공에 따라 생후 9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그 자녀가 취학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계획에 의한 조치임.

2023년 05월 24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650000-families-cut-childcare-costs-using-tax-free-childcare

- 3. 2세 이하 영아 대상 2024, 2025년 지자체 지원금 예시 금액 발표
- ■교육부는 2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2024, 2025학년도 지자체 보육 지원 금액을 발표함. 현재 시점에서 본 내용은 예시 금액이며, 최종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보육 지원금 산출 공식에 대한 혐의를 마친 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제시된 예시 금액은, 2세 영아의 경우 평균 8.17파운드(한화 약 13,000원)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액수는 6.89파운드부터 11.86파운드까지 다양함. 9개월부터 2세까지 예시 금액 모델링은 9개월부터 2세까지 수혜 자격을 갖춘 영아에 대한 평균 지원 금액이 11.06 파운드(한화 약 18,000원)임을 시사하고 있음. 이 연령대 그룹의 액수 범위는 9.33파운드에서 16.17파운드로 나타남.
- ■실리 제도(Isles of Scilly)와 런던시(City of London)는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이 두 지역은 정부로부터 영아기 지원금을 포함하는 중앙 보조금을 받기 때문임.
- 지역별 구체적인 금액은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에서 살펴볼 수 있음.

2023년 08월 03일

출처: https://www.pacev.org.uk/news-and-views/news/news/

- 4. '보육비 지원 계획 아래에 있는 친인척 영유아' 여론조사 결과(잉글랜드만 해당)
- 영국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전문협회(이하 PACEY)는 보육과 관련된 지원금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옴. PACEY는 아이돌보미가 친인척 영유아를 돌보게 되면, 보육비 지원 시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PACEY는 최근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와 관련 논의에 이어 여론조사를 실시함. 그 내용은 관련 규정의 개정이 어떻게 보육제공자들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돌보미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 여론조사에는 684명이 참여하였으며, 친인척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자녀를 친척에게 맡기고 본인은 더 많은 영유아를 보육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친인척 자녀를 돌보고 그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 시간을 청구하는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 72.4%가 찬성함.
- PACEY 멤버십 및 마케팅 책임자 Ka Lai Brightley-Hodges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함. '압도적인 양의 응답은 이것이 문제임을 의미하고 있음. 우리는 잉글랜드 아이돌보미에 관한 오래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음. 단지 더 많은 보육비 지원 시간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 돌봄에 대해 더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강조함.
- ■정부는 보육비 지원 시간 확대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38,000개의 추가 보육제공 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보육비 지원 계획에 친인 척 영유아를 포함시킨다면, 보육제공 장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웨일즈에서 본 규정 개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잉글랜드에서도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2023년 10월 26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poll-results-related-children-under-the-fun/

# **♣** 유아교육·보육

- 1. 교육기준청(Ofsted) EIF 커리큘럼 로드쇼 개최
- 영국 교육기준청(Ofsted)는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 시설을 위한 EIF(교육 점검 프레임워크)Education Inspection Framework) 커리큘럼 로드쇼를 5회기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본 행사는 2023년 봄 학기에 영국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힘.
- Ofsted에서 교육을 점검 할 시, 언어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줄 예정임.
-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의 대표 두 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별도로 등록해야 함.
- 지역별로 행사 일정 및 참석 등록 웹사이트가 오픈되었으며, 레스터(Leicester), 링컨(Lincoln), 버밍엄(Birmingham), 루턴(Luton), 노리치(Norwich)에서 진행될 예정임.
- 등록된 아이돌보미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에 시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난 2022년 웨비나 녹화본을 YouTube에 공개하여 시청할 수 있게 함.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cIl4MNC7Rk)

- Ofsted는 또한 EIF 점검 및 EYFS(Early Years Foundation Stage)에 관한 새로운 Q&A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이러한 안내 자료는 유아기 시설 점검 핸드북과 함께 읽어야 함.
  - Ofsted에 등록된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에 관한 안내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fsted-eif-inspections-and-the-eyf s/registered-early-years-providers

- 등록된 아이돌보미를 위한 안내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fsted-eif-inspections-and-the-eyf s/childminders

■ Ofsted의 Early Years 블로그도 공개함.

2023년 01월 27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updates-from-ofsted/

# 2. Coram Family and Childcare 2023 보육서베이 결과 발표

■ Coram Family and Childcare가 22번째로 진행한 영국내 보육시설 가용성 및 비용조사 인 "2023 보육서베이(Childcare Survey 2023)" 결과를 발표하였음. 주요 결과에 의하면, 2세 이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 드러남.

#### ■ 보육시설 충분성

- 잉글랜드 지자체의 단 48%만이 풀타임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충분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수치임.
- 잉글랜드 지자체의 5분의 1미만(18%)만이 장애 아동을 위한 충분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4세 유아를 위한 15시간 무상보육 제공에 적합한 세팅을 갖춘 지자체의 비율 또한 6% 하락한 73%로 나타남.

#### ■ 보육시설 비용

- 2세 이하 영아의 주당 25시간 어린이집 보육비용의 평균은 148.63파운드로, 이는 2022 년 대비 5.6% 상승한 수치임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거주하는 3~4세 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주당 30시간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풀타임 보육(주당 50시간)을 이용을 위해 추가로 20시간을 지불할 경우, 평균 보육비용은 잉글랜드 117.60파운드, 웨일즈는 98.79파운드임.
-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가정이 연간 1,140시간에 해당하는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기 중에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주당 30시간이며, 주 50시간 풀타임 보육을 이용하려면 주당 20시간 추가 보육비가 필요하며 보육비용은 평균 102.37파운드임.

■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Childcare Survey 2023(Coram Family and Childcare)

https://www.familyandchildcaretrust.org/childcare-survey-2023-report-landing-page

2023년 03월 09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hildcare-survey-2023-from-coram-family-and/

# 3. SEND와 대안교육 부문 개선 계획

- ■교육부는 잉글랜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이하 SEND) 및 대안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계획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본 계획은 SEND 또는 대안교육을 제공받는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2022년 3월 협의한 대안교육 초록서를 따름.
- ■계획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함.
  - 1) 받은 피드백에 대한 정부의 답변
  - 2) 그 피드백의 결과로 정부가 수행할 개선 사항
  - 3) 정부가 시험하고 검토할 제안
- 로드맵에는 개선 계획에 수립된 잉글랜드 SEND와 대안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요약되어 있음.
- SEND 및 대안교육 초록서(SEND and Alternative Provision Green Paper)는 현재 SEND 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이슈들을 탐색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성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현재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좌절을 줄이면서 가족을 위한 경험을 개선하는 것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 부모와 보호자의 지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계획은 EHCP(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s)를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필요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간소화함으로써 지역 관료주의를 없애고자 함.

- ■이 계획은 SEND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들, 그리고 대안교육 부문을 위한 정부의 상당한 투자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9~20년도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2023~24년까지 100억 파운드 이상이 될 것임.
- 또한 대안교육 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주(state) 재정지 원 대안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82%가 특수한 교육적 필요(SEN, Special Educational Need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대상들이며, 이것이 지역 SEND 시스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임.
-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관하여서 이 계획에서는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최대 5,000명의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교사들이 레벨 3 SENCo(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예정임.
- ■유아에 대한 교육 제공에 있어 필요를 조기에 판단하고 유아들의 필요에 관해 부모와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

2023년 03월 02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nd-and-alternative-provision-improvement-plan

#### 4.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한 교육위원회 조사 보고서 발간

- ■교육부의 지출과 행정, 정책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원은 교육선발위원회(Education Select Committee)를 임명하였으며, 교육선발위원회는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춘계 예산에서 정부가 보육에 초점을 맞춘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줌.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을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보육제공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 ■특히 본 보고서는 보육제공자들이 자금 조달과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정부는 보육제공자를 위한 보육자격보조금(childcare entitlement subsidy)을 확대 해야 함.
  - 위원회는 보육 수당이 수년 동안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재정적 지원 없이 '무료 시간' 보장을 확대하여 보육제공자들로 하여금 재정적 손실로인해 파산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정부는 현재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억 400만 파운드 (한화 약 3,978억 6,000만원) 투입을 발표하였으나, 재정연구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이것이 지난 몇 년 간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밝힘.
  - 교육부는 30시간 보육 제공을 '무료 시간'으로서 안내하는 대신, '자금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 시간으로 언급해야 함을 권고함. 학부모는 '무료'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 있음. 해당 시간은 학기 중에만 제공되고 보육제공자들은 재정적인 부족함을 충당하기 위해 종종 추가 시간 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임.
- ■둘째, 위원회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세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 핵심적인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어린이집의 역할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기업세와 부가가치세 면제를 권고함. 법적인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육기관들은 높은 과세를 감당해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지원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할 경우 과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셋째, 교직원 대 유아 비율의 적정선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음.
  - 본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는 교직원 대 유아 비율을 1대 4에서 1대 5로 변경하는 제안에 반대하면서, 이것이 보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함. 위원회는 교직원대 유아 비율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육의 질과 교육성과가 저하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릴 것을 권고함.
- 넷째, 위원회는 비과세 보육(Tax-Free Childcare) 제공을 간소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춘계 예산 발표에서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았던 비과세 보육 계획에 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함.

- 본 제도는 맞벌이 가정에 대해 보육비용 20% 할인 또는 연간 최대 2,000파운드(한화 약 331만원) 지원을 제공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19년의 경우 8억 65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 4,345억원)가 예상되었으나 수령 가정이 저조하여 지급된 금액은 2억 3600만 파운드(한화 약 3,922억 923만원)에 불과하였음. 심지어 등록한 가정의 상당 비율이 본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섯째, 위원회는 의무적 특수교육(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y) 이 필요함을 권고함.
  - 현재 레벨3 자격을 갖춘 교직원만 이 교육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 부문에서 일하는 더 많은 교직원이 SEND 유형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의무적인 교육을 받 아야 한다고 주장함.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EYFS(Early Years Foundation Stage) 법률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 여섯째, 위원회는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촉진할 것을 권고함.
  - 유아교육 및 보육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은, 교육부가 해당 전문 분야의 인재 영입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임.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과 초등학교 사이에 동등한 존중의 부족을 우려함.
  - 신입교사 훈련에 사용된 Early Careers Framework를, Ofsted에 등록된 모든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 대상으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근로유지 및 경력 개발을 촉진해야 함. 다른 교직에 상응하는 경력에 따른 급여, 지위 및 고용조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매력적이지 않는 직업군이 될 수 있고 양질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러므로 보육제공자가 교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eadership Quality Fund 도입을 권장함.
-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권고함.
- 정부는 춘계 예산 발표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대한 더 나은 지원 의지를 나타냄. 이를 위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공급 측면의 개혁, 인력 개발, 모든 영역에서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제공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는 더 광범위한 유아기 전략(Early Years Strategy)의 일부를 형성해야 함. 단순히 자금 지원 자격을 확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본 보고서는 2017년 유아기 전략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함.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203/education-committee/publications/

2023년 07월 26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education-committee-publish-report-on-suppor/

# 5. 2023-2024 유아기 추가 교부금 지침

- ■교육부는 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 하에 보육시설 확장을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들이 포괄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억 400만 파운드(한화 약 3366억원)의 현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한 유아기 추가 교부금(Early Years Supplementary Grant, 이하 EYSG)에 관한 지침은 지자체,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 학교를 위한 교부금으로, 잉글랜드에서 유 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지자체가 해당함. 본 지침은 EYSG를 통해 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칙을 설명하고 있음.
- 2023-2024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육 제 공 기관들이 받는 자금의 지원 액수를 늘릴 수 있도록, EYSG는 지자체에 지불되는 시간당 금액을 늘릴 예정임.
- ■본 지침은 지자체와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이 2023-2024 회계연도에 대한 EYSG가 어떻게 산출되고 지자체에 지불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각 지자체에 대한 EYSG 할당액은 2023년 9월에 발표될 예정임.
- ▮유아기 추가 교부금 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years-supplementary-grant-2023-to-2024/early-years-supplementary-grant-2023-to-2024-methodology

2023년 07월 07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years-supplementary-grant-2023-to-2024

- 6. 보육서비스 신청자 및 등록된 제공자를 위한 지침
- ▋영국(잉글랜드) 교육기준청은 보육서비스 신청자 및 등록 제공자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 ■보육 등록에는 '1) 보육사 최대 3명 포함'. '2) 보육 제공자 4인 이상'의 두가지 유형이 있음.
  - 보육사는 혼자 또는 다른 보육사 및 보조 인력과 함께 일할 수 있으며, 보육 인력이 3명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가정보육시설 등록이 필요함.
  - 가정보육시설은 개인 소유 주택이며, 보육시설에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것과 차량을 포함함.
- 보육 인력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보육시설 등록 교육기준청(Ofsted) 또는 아이돌보미 에이전시에 등록할 수 있음.
- ▮가정보육시설 제공자(보육 인력)는 다음과 같음.
  - 1) 교육기준청 등록 보육사
  - 2) 에이전시 등록 보육사
  - 3) 보육 보조인력
  - 4) 견습생
  - 5) 학생
  - 6) 자원봉사자
- ■보육이 제공되는 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16세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야 함. 그 대상은 보육이 제공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가족 또는 그 외 가구구성원), 청소도우미, 보육 보조 인력과 같이 보육이 제공되는 시간 동안에 해당 장소에서 머무는 사람임. 본 내용은 교육기준청에 알려야 하며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보육법 2006 제18조는 '보육'을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아동에 대한 의료적 건강관리는 제외함. 만일 의료인이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위하여 시설에 방문한 경우 그들은 보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으로 간주되지 않음. 의료인은 보육을 제공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됨. 보육 제공자는 의료인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대와 역할 요구사항을 설정해야 함.

- 가정보육시설은 집단보육으로 정의되므로, 어린이집 또는 기타 데이케어에 관한 모든 요건, 예를 들어 교직원 비율 및 자격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가정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 허가가 필요한 지를 지자체 계획 부서에 확인해야 함. 등록 요건은 보육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른 법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음.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지침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gov.uk/guidance/childcare-on-domestic-premises)

2023년 09월 21일

출처: https://www.gov.uk/guidance/childcare-on-domestic-premises

# 7. 아이돌보미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데이트

- 보육사(Childminders)는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거주 시설에 서 아동을 돌봄. 이들은 교육기준청 또는 보육사 에이전시에 등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 이번 보육사에 관한 조사 분석은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된 보육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됨.
- 보육사와 그들의 운영 특성을 더 잘 이해함으로서, 보육사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본 조사 분석에서는 보육사 직종에 대한 진입 장벽과 이탈이유에 대한 일련의 분석과 추세를 살펴봄.
  - 보육사의 수는 2013년 56,200명에서 2023년 27,9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50% 정도 감소하였음.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등록 철회 인원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 지난 회계연도(2022-23)에는 5,200명의 보육사가 등록을 철회하였고 반면 1,700명의 보육사가가 신규 등록함.
  - 2022-23년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한 보육사의 평균 연령은 37세였고, 2018-19년 평균 36세에서 약간 증가한 수치임. 동일 기간 활동을 많이 한 보육사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2018-19년 평균 연령 46세에 비해 증가함.
  - 보육사의 사직 평균 연령 또한 2022-23년 48세로 2018-19년 45세에서 증가하였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보육사 집단의 노령화로 인해 향후 몇 년간 보육사의 사직이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2022-23년 사직한 보육사의 교육기준청 평균 등록 기간은 11년으로 나타남. 반면 보육사의 18%는 등록 후 첫 3년 이내에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58%가 40세 미만이었음.
- 보육사 및 보육제공 시설 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보육사 신규 등록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보육사의 유지 개선 모두 필요함.

2023년 09월 07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years-inspections-statistical-commentaries-202 2-to-2023/a-focus-on-childminders

- 8. 연합 보고서. 보육 부문 인력 위기를 드러냄.
- 유아교육 및 보육연합(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Coalition)과 리즈 대학교 (University of Leeds)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직원의 57%와 아이돌보미의 38%가 내년에 직군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지 및 복귀: 영국의 보육 수혜 자격 확대 제공'에 관한 연구는, 9개월 된 아기의 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무상보육 30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육 확대의 첫 단계를 준비하는 것임.
-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과 새로운 수요를 합하면, 기존 공급을 유지하고 보육제공의 확대 실 시를 위해서는 2024년과 2025년에 약 50,000명 정도의 추가 교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 산됨.
- 또한 본 연구는 유아기 보육 및 교육 부문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어린이집 응답자의 87%, 아이돌보미 응답자의 63%가 전문가의 지원 없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돌보거나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함.
- ■이 연구보고서는 지속 가능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으로는 인력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권장 사항을 제시함.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음.
  -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보육 보조금 비율을 높임.
  - 교육부 경력개발 허브 재구축
  - 시설을 벗어나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많은 현장의 교육을 제공.

- 자금이 지원되는 보편적이며 양질의 특수교육(SEND) 접근성 보장
- 교직원들이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대체교 사 시스템을 개발함.
- 아이돌보미를 위한 전문가 및 멘토링 제도를 상설프로그램화 함.
- 대학원 보조금 제도를 다시 시작하고 2028년까지 대학원생 인력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2023년 11월 06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oalition-report-reveals-the-scale-of-the-wo/

- 9.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Ofsted 보육 제공 및 점검 현황 (2023년 8월 31일 현재)
- 이번 조사결과는 2023년 8월 31일 기준 Ofsted에 등록된 보육 시설 수 및 최근 점검 결과 자료, 2023년 8월 31일까지 수행된 점검 및 규제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fsted에 등록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 수는 62,300개로, 2022년 8월 31일 이래 3,320개(5%) 감소함. 이러한 감소의 대부분은 아이돌보미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 8월 31일 기준 Ofsted에 등록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 유형 및 수는 다음과 같음.
- EYR(Early Year Register)에 등록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공급되는 보육 장소는 126만개소로, 2022년 8월 31일 이후 17,800개소(1%) 감소함. 이는 보육 제공기관의 수보다 보육 실행 장소의 수가 더 천천히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 가장 최근 점검에서, 보육제공 기관의 96%가 작년과 같이 '우수' 또는 '탁월' 판정을 받음.하지만 2019년 8월 31일 이후 '우수'비율은 20%에서 14%로 감소함.

2023년 11월 17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august-2 023/main-findings-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august-2023

# \*\* 돌봄

- 1. 아동가족부 장관, 사회적 주택 소유자들에게 아이돌보미를 위해 문을 개방할 것을 촉구함.
- 잉글랜드의 주택 협회 및 사회적 주택 소유자는 아이돌보미가 임차한 주택에서 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아이돌보미 직종에 대한 진입을 독려하고 부모를 위한 보육의 가용성을 높일 것을 촉구 받고 있음.
- 2023년 8월 21일, 아동가족부 장관인 Claire Coutinho는 주택 협회 및 주택 소유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임대조건으로 자신의 집에서 보육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계약상의 제한 조건이 완화되고, 예비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함. 이는 임차인에 대한 불공평한 장벽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보미 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한 새로운 조치의 일환임. 정부는 새로운 보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 사상 최대 규모의 보육 부문 투자가 될 것임.
- 이러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80억 파운드(한화 약 13조 3000억원) 이상을 보육 부문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 특히 어머니가 유연한 보육 지원을 받고 직장에 복귀하며 나아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이미 아이돌보미가 최대 4명의 아이돌보미로 그룹을 구성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커뮤니티 센터나 마을회관과 같이 그들의 집 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Levelling-Up and Regeneration Bill: LURB)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정부는 등록 기간을 약 10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자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최대 1200파운드(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창업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지난 10년간 잉글랜드에서 아이돌보미 수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잉글랜드의 이러한 추세를 뒤집고, 2024년 4월부터 무상보육의 획기적인 확대와 함께 부모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과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아이돌보미 부문의 성장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이미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에게 무상보육 지원금을 인상하였음. 3~4세의 유아는 평균 5.29 파운드(한화 약 8,162원)에서 5.62파운드(한화 약 9,309원)로, 2세 영아의 경우 평균 6파운드(한화 약 9938원)에서 7.95파운드(한화 약13.168원)로 인상함.
- 현재 아이돌보미는 까다로운 등록 절차에 직면해 있음. 아이돌보미 에이전시인 Tiney가 수 집한 자료에 의하면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예비 아이돌보미 8명 중 1명은, 그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거주 공간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계약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있음.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부는 계약조항으로 인해 사업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집주인의 모기지 계약사항에 이러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됨.
-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동가족부 장관은 지역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예비 아이돌보미들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맺을 것을 촉구함.
- 기존 정책적 제공에 더하여, 2024년 4월부터 해당 자격을 갖춘 맞벌이 부모는 2세 자녀를 위한 15시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며, 2024년 9월부터는 생후 9개월부터 15시간 무상보육, 그리고 2025년 9월부터는 30시간의 무상보육이 제공됨. 이러한 정책은 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시간을 확보하거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2023년 08월 2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nister-urges-social-landlords-to-open-the-door-to-child minders

# 2. 잉글랜드 신규 아이돌보미 보조금 지급 계획

-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신규 아이돌보미를 위한 보조금 신청이 2023 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알림. 보조금은 2023년 3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기준 청(Ofsted)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600파운드, 아이돌보미 에이전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200파운드를 지급할 예정임.
- 에이전시 등록 아이돌보미는 1,200파운드를 2회로 분할지급 받게 됨. 등록 후 처음에 600 파운드를 지급 받으며, 운영을 시작 한 후 최소 한 명 이상의 영유아 돌봄을 6개월간 지속할 때. 두 번째 보조금(600파운드)을 지급 받음.

- 수혜자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 2023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31일 까지 아이돌보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 후 또는 보조금 시행 계획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수혜자들은 해당 시행계획으로 두 개 이상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본 보조금 지급 계획은 잉글랜드에서만 시행되며, 새로 등록하는 아이돌보미(보조금 신청 전 12개월 이내에 교육기준청(Ofsted) 또는 아이돌보미 에이전시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만 해당함.

2023년 10월 02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hildminder-start-up-grants-scheme-upd ate-s/

# \*\* 기타

- 1. 영국 왕립재단 영유아기 센터 캠페인 실시
- 왕립 재단 영유아기 센터(Royal Foundation Center for Early Childhood)는 생애 초기 5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을 시작함.
- ■캠페인의 제목은 "Shaping Us"임. 본 캠페인은 웨일스공비(Princess of Wales)가 주도 하며 영유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생애 초기의 경험이 미래 삶의 결과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임신부터 5세까지의 생애 초기 동안 영유아의 두뇌는 놀라운 속도로 발달함. 캠페인 영상은 총 5개의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음. 내용은 두뇌 발달(Our developing brain), 사회적 관계 수립(Building social connections), 자기 감각 발달(Developing our sense of self), 감정 관리(Managing our emotions), 소셜 네트워크(Our social network)임.
- ■웨일스공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린 구성원들과 그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공동의 시간, 에너지,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함.
- 캠페인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며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음. 트위터에서 The Royal Foundation Center for Early Childhood를 팔로우하고 캠페인 해시태그 #ShapingUs를 사용하여 대화에 참여 가능함.
- 캠페인 관련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shapingus.centreforearlychildhood.org/

2023년 01월 31일

출처 : https://shapingus.centreforearlychildhood.org/

# 스웨덴

	임신·출산지원	
1	정부는 여름 동안 출산의료서비스 강화 위해 1억 크로나(한화 약 122억 2,900만원) 추가로할당	141
1	양육수당의 유연성 증가에 대한 제안	142
2	정부의 새로운 국가보조금 통한 육아 지원 강화	142
3	정부의 현대화된 양육지원 제안	143
4	육아지원제도의 개선사항	144
	유아교육·보육	
1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및 교장들의 국가 직업전문 프로그램의 설계에 참여	146
2	학교에서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확보	146
3	정부보조금이 유치원의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조정	147
_ 4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필요	148
5	교사 및 유치원 교사양성과정 개혁	149
6	학생들의 초기 언어 발달에 위한 더 나은 후속 조치	150
7	정부의 유치원 내 디지털학습도구 사용에 대한 조건 변경	150
8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 도구에 대한 교육청의 새로운 과제	151
	아동·청소년지원	
1	조직범죄방지위원회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53
2	장기 결석 예방을 위한 정부의 학교사회팀에 투자	153
3	아동보건협회의 예방작업 강화	154
_ 4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함.	155
5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보건프로그램	156
6	정부의 교육청 학생결석조사 임무 부여	157
	코로나19	
1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159
	기타	
1	2023년 6월까지 주택보조금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임시 추가 수당의 연장	160
2	정부의 첫 100일: 학교	160
3	정부 법안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162
4	LVU(어린이 돌봄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아동 권리 관점	163

# \*\* 임신·출산지원

- 1. 정부는 여름 동안 출산의료서비스 강화 위해 1억 크로나(한화 약 122억 2,900만원) 추가로 할당
- 정부는 출산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1억 크로나(한화 약 122억 2,900 만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함.
- ■보건부장관 아코 안카르베리 요한손(Acko Ankarberg Johansson)은 "정부는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에 추가 기금으로 지자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 기금은 작업 환 경. 새로운 작업 방법 및 인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출산의료서비스는 접근성과 평등, 사람 중심적인 돌봄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 지방의료서비스와 산부인과 클리닉 간의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작업 환경의 결함들과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산부인과의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임.
- 지방 출산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총 85억 크로나(한화 약 1조 398억원)가 할당되었음. 정부는 2023년에 출산의료서비스 및 여성 건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17억 크로나(한화 약 2,079억 6,100만원)를 배정함. 올 여름에는 출산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1억 크로나(한화 약 122억 3,300만원)가 현재 지방의료시스템에 지급되고 있음. 본 자금은 지방의 인구수에 따라 할당 됨.

2023년 07월 06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7/regeringen-avsatter-ytterligare-100-000-0 00-kronor-for-att-forstarka-forlossningsvarden-under-sommaren/

# **\$\$** 양육지원

- 1. 양육수당의 유연성 증가에 대한 제안
- 현재 사회부가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양육수당의 목적은, 유연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가족 생활과 노동 시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향상하는 것임. 이를 위해, 양육수당의 이 중일(Dubbeldagarna) 기간 연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 양육수당의 이중일(Dubbeldagarna)은, 부와 모가 자녀 출산 1년 이내에 30일 동안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 이중일수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자녀 월령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제안됨.
- ■노인 및 사회 보험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이중일(Dubbeldagarna)은 부와 모 모두가 육아휴직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여 공동육아를 강화하고, 부모가 육아수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과 유연성을 제공함. 이중일은 여성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는 산모가 출산 합병증으로 인한 병원 방문 시 위험 감소 및 산후 우울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 정부는 증가된 노동 시장 참여와 가족 생활을 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위하여 더 많은 지원을 부모에게 제공하기를 희망함. 본 제안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기본적인 예산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처리되어야 함. 따라서 본 제안이 국회에 제출되는지 여부는 정부예산과 예산 법안의 최종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질 것임. 본 양육수당의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은 정부 정당과 스웨덴 민주당 사이의 합의에 기반 한 것임.

2023년 04월 14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4/forslag-om-okad-flexibilitet-i-foraldrapenni ngen-pa-remiss/

#### 2. 정부의 새로운 국가보조금 통한 육아 지원 강화

■ 부모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범죄 예방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함. 정부는 2023년 육아지원 대책 강화를 위해, 가족법 및 육아지원당국에 총 SEK 375,000,000크로나(한화 약 450억원)에 달하는 주 보조금을 지불하고 후속 조치하는 임무를 부여함. 이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육아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 임.

- 정부의 목표는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제공하는 것임. 본 투자는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육아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대상 육아지원 노력에도 기여할 것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은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더 필요함.
- 사회복지부 장관 Camilla Waltersson Grönva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권리가 있으며, 밝은 미래를 누려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방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 ■육아지원은 사회복지의 개방적인 활동, 산모 건강 관리, 아동 건강 관리 및 가족 센터 등에서 제공됨. 부모지원과 같은 조기 및 예방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촉진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음.
- ■사회복지부 장관 Camilla Waltersson Grönva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지자체와 지역의 시작점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의 필요성과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해야 한다."
- ■본 투자는 2023년 예산안에 발표되었으며, 정부의 영구적인 투자임.

2023년 06월 22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regeringen-starker-foraldraskapsstodet-ge nom-nytt-statsbidrag/

## 3. 정부의 현대화된 양육지원 제안

- 정부는 양육수당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모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어 육아의 삶이 편안하게 만드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2024년 예산안에는 '이중일수(Double Day)'를 2배로 늘리고, 자녀가 15개월이 될 때까지 이중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수당을 가까운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지원 변경 안이 제시됨.
- '이중일수(Double Day)'는 자녀의 생후 1년 동안 30일 동안 부와 모에게 동일한 자녀에 대해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이중일수를 60일로 늘리고, 자녀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될 때까지 이중일수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는 또한 양육수당을 가까운 친척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제안함.

- 이중일수를 통해 자녀가 어릴 때 부와 모가 함께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어 공동 양육이 강화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 사용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이 제공됨.
-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는 가정과 직장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 육수당을 가까운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함. 이 제안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구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양육수당의 유연성을 높이고 삶을 편안하게 만듦.
- ■본 새로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제안됨.
- 부모수당 예산은 2024년에 약 SEK 2천만 크로나(한화 약 24억원) 증가하고, 2025년부터 매년 약 SEK 500만 크로나(한화 약 6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사회보험공사는 IT시 스템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에는 SEK 1,100만 크로나 (한화 약 13억)를 받게 되고 2025년부터는 매년 SEK 800만 크로나(한화 약 9억원)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임.

2023년 09월 15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9/regeringen-foreslar-en-moderniserad-foral draforsakring/

#### 4. 육아지원제도의 개선사항

- 2024년 예산안에서 부모수당 변경에 대한 정부 제안이 스웨덴 의회에서 승인됨. 새로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임.
- 부모는 자녀 생후 첫 해 30일 동안 동일한 자녀에 한해서 동시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로운 조항에서는 이중일수가 60일로 늘어났음. 또한, 자녀가 12개월이 아닌 15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이중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중일수제도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함께 휴가를 낼 수 있게 하여 공동 양육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부모수당 사용 방법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더 많이 제공할 것임.

- ■부모수당을 가까운 친척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하려는 정부 제안도 스웨덴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통과됨. 예를 들어, 부모는 동거인에게 부모수당을 양도할 수 있지만,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는 양도할 수 없었음.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공동 양육하는 부모는 각각 45일 이상의 부모수당을 부모수당 보험에 가입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90일 이상의 부모 수당을 다른 피보험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부모가 질병수당을 받는 경우, 부모수당이 개인의 질병 수당 적격 소득(SGI)에 따라 계산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낮은 수준의 부모수당인 하루 SEK 180크로나(한화 약 2만3천원)로 보상받을 것 인지 선택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은 유연하고 평등한 육아지원제도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
  - 노인·사회보험 장관은 "본 제안은 부모가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는 삶의 시기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근로정책과 부모가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킨다"라고 언급함.
- 새로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제안은 정부와 스웨덴 민주당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음.

2023년 12월 19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12/flera-forbattringar-i-foraldraforsakringen/

## **♣** 유아교육·보육

- 1.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및 교장들의 국가 직업전문 프로그램의 설계에 참여
- 2023년 2월 9일, 스웨덴 정부는 학교 시스템 전문가 위원회의 19명의 위원을 임명함. 위원회의 임무는 정부가 이전에 결정한 학교 교장, 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국가 전문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임.
-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전문직 프로그램은 유아교사, 교사, 교장의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의 매력을 높이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 작업에 이러한 전문직 그룹의 대표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학교 시스템 전문가 위원회는 국가 전문직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교육청의 자문 기관이 되어야 함. 위원회는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수준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가적인 자격 시스템에 대한 설문 조사 작업을 수행하며 스웨덴 국립 교육청을 지원해야 함.
- 정부는 19명의 위원을 임명하였으며, 위원 중에는 유치원 교사, 교사 및 교장 대표 10명, 학교 시스템 내 대표 3명, 대학 대표 4명, 교육청 대표 2명이 포함됨. 위원들은 스웨덴의 교사협회, 학교 지도자협회, 지자체 및 지역, 전국 사립학교 연합, 대학 협회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임명되었음.
- ▮위원회는 2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임.

2023년 02월 09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2/forskollarare-larare-och-rektorer-ska-varadelaktiga-i-att-utforma-nationellt-professionsprogram/

- 2. 학교에서 더 많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확보
- ■오늘날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에서 학교 간 큰 차이가 있음. 이에 정부는 학교 교장이 더 많은 교과서와 교사를 위한 안내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으로 SEK 6억 8,500만 크로나를 확보함. 이를 통해 교육의 공평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스웨덴 학생은 더 많은 교과서가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에 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교과서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 이는 스웨덴 교육계에서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정부는 한 학생이 과목당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게 하는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더 많은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3월 2일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장이 학습 교재 구입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결함. 정부보조금은 출판사에서 제작한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교사 안내서를 구입할 수도 있음.
- ■교육청은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작성할 것이며, 프레임 워크의 목표는 여름 학기 전에, 각학교에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예산을 작성하는 것임.
- ■보조금은 2023년에는 총 SEK 6억 8,500만 크로나가 배정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연간 5억 크로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2023년 03월 03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3/regeringen-gor-det-mojligt-for-skolor-att-soka-bidrag-for-fler-larobocker/

## 3. 정부보조금이 유치원의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조정

- 정부는 유치원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정을 변경함. 영유아 집단 크기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더 많은 인력 고용이나 직원의 역량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됨. 본 규정 변경의 목표는 정부보조금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더 잘 조절되도록 하는 것임.
- "정부보조금은 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며, 이는 영유아 집단 수 축소, 더 많은 유 치원 교사 확충, 유치원 교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은 그들의 유치원에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갖게 되었다."고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언급함.
- ■국회는 2023년 유치원의 질적 향상 조치를 위한 정부보조금에 SEK 8억 크로나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정부보조금 총액은 약 SEK 28억 크로나이며, 보조금 중 일부인 SEK 8억 크로나는 전적으로 영유아 집단 규모를 줄이기 위한 것임. 나머지 보조금은 유치원 교직원 유지 및 채용, 유치원 교사 및 기타 직원의 역량 개발에 사용될 수 있음.

■이 새로운 규정은 보조금 전체가 3가지 영역에 모두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유치원 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교육청은 정부 보조금의 사용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2023년 03월 06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3/statsbidrag-anpassas-for-att-mota-forskol ors-lokala-behov/

## 4.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필요

- 유치원 교사 및 일반교사들은,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 예를 들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 교사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할 것임.
- ■교육부 장관(Lotta Edhol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오늘날 교사는 근무 시간 내에 점점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들 중 일부는 다른 직원에게 맡겨도 되는 업무 이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이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완수할 충분 한 시간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교사가 문서 작업이나 타 업무에 시간을 할애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어서 교육 위원회 위원(Patrick Reslow, 스웨덴 민주당원)은 다음과 같이 말함. "유치원 교사 및 일반 교사는 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아동과 학생의 학습 및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 및 일반 교사의 주요 업무인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정부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을 임명할 계획임. 예를 들어, 법률에 관한 것이나 또한 교장의 요구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 등을 포함함. 조사관은 무엇보다도 유치원 교사 및 일반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여 더 많은 시간을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본 조사는 2024년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전국교사연합의 회장을 역임한 Bo Jansson이 특별 조사관으로 임명됨.

2023년 05월 31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5/regeringen-vill-att-larare-ska-lagga-mindr e-tid-pa-administration-och-mer-tid-pa-undervisningen/

## 5. 교사 및 유치원 교사양성과정 개혁

- 잘 훈련받은 교사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임. 스웨덴 정부는 교사 및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입학 요건을 높이는 방안, 교사교육 강화 방안, 그리고 교육과정에 집중도를 더하여 지식, 인지과학 및 실제적인 교수법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할 계획함.
- 현재의 교사양성과정은 2011년에 도입됨. 그러나 그 이후로 학교와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많은 신규졸업자들은 학교에서의 실제 실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교사양성과정을 개혁하고자 함.
- ■교육부 장관 멧츠 퍼슨(Mats Pers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교사양성과정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스웨덴의 영유아와 학생을 교육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은 오늘날의 요구와 조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과목 및 교육적 지식, 인지 과학 및 실용적인 방법론에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교사양성과정을 종료할 때 교사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많은 수의 학생이 교사양성과정에 입학하기는 하지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고등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학생들보다 중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입학 조건을 높이는 문제는 수년 동안 논의되었음.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할 것임.
- 현재 27개 교육기관에서 교과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내 연구 인력이 부족함. 질을 높이고 이용 가능한 교사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스웨덴 민주당의 학교정책대변인 패트릭 리슬로(Patrick Reslow)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스웨덴의 모든 아동에게 더 나은 학교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견실하고 목적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직은 아마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적 역할 중 하나이고, 이는 오늘날 스웨덴 학교가 해결해야 하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협력 당사자들이 교직을 강화시키기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3년 07월 05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7/larar—och-forskollararutbildningarna-ska-re formeras/

## 6. 학생들의 초기 언어 발달에 위한 더 나은 후속 조치

- 아동과 학생의 스웨덴어에 대한 지식 향상은 학교 내에서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기본적 인 요소임. 학생의 언어 및 지식 개발을 추적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은 초기단계에 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려면 읽기, 쓰기, 산수 등 학생의 기본 능력을 조기에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지식 개발을 조기에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 ■무엇보다도 정부는 유치원의 필수 매핑자료와 초등 1학년 평가 지원을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청에 검토하도록 함. 목표는 학생의 지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그림을 얻고, 학생에게 필요할 수 있는 작업방법들과 방식들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얻는 것임.
-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지식 개발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학생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임. 따라서 교육청은 새로운 통계 수집 등을 통해 학생의 초기 지식 발달을 더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것임.
-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교육청을 위해 SEK천만 크로나(한화 약 12억원)를 배정할 것을 제안함. 예산은 스웨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2023년 09월 07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9/battre-uppfoljning-av-elevers-tidiga-sprak utveckling/

#### 7. 정부의 유치원 내 디지털학습도구 사용에 대한 조건 변경

●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 능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유치원 및 학교에서 는 미디어 시청 시간을 줄이고 독서의 양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립교육청에 유치원 교육과정에 미디어 시청시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 노동시장통합부 장관 Johan Pehrson은 '우리 정부는 화면(미디어)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유치원과 학교 내에서의 더 많은 독서 수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디어로부터 멀어지고 책과 가까워지는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함.
-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미디어 시청이 없는 환경은 아동 간의 또래관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집중하고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조성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아동이 유치원에서 되도록 미디어 시청시간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함.
- 현재의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교사가 모든 아동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하여 국립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의 디지털화 영역을 다시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당국은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학습 도구 관련 사항을 변경하도록 제안함. 유치원에서 디지털 학습 도구를 사용하려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와 문서화된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선별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3년 10월 02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10/regeringen-vill-ta-bort-kravet-pa-digitala-l arverktyg-i-forskolan/

- 8. 독서량의 증가와 스크린타임의 감소를 위한 학습 도구에 대한 교육청의 새로운 과제
- ■정부는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신 교육청은 수업 내 학습 도구의 선택 및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이나 권장 사항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음. 교육청에 부여된 이 임무는 교사들이 균형 잡힌 학습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들은 관계 능력, 주의력, 집중력과 같은 기본 기술은 물론 읽기, 쓰기, 계산 능력은 아날로그 활동 및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된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어린 연령의 아동의 경우 주로 물리적인 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디지털 학습도구는 명확한 과학적인 증거와 문서화된 교육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교사들은 이제 수업 내 학습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명확한 지침을 받을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원이며, 물론 각 경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이것이 스크린타임에서 독서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수업 내 사용되는 학습 도구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조건과 요구에 적합하고 조절되어야 함. 정부는 지난 9월 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학습자료 접근성 강화 법안을 의결함.
이 법안에는 무엇보다도 교육법에서 교과서, 학습 자료 및 학습 도구를 정의하고, 학생들이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23년 11월 20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11/nytt-uppdrag-till-skolverket-om-larverktyg -ska-ge-mer-lastid-och-mindre-skarmtid/

# **\$** 아동·청소년지원

- 1. 조직범죄방지위원회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23년 2월 21일, 스웨덴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범죄방지위원회가 소집됨. 본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와 아동·청소년이 심각한 범죄에 처했을 때의 조치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난 2022년 12월, 조직범죄방지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설립됨. 위원회의 설립 목표는 18 개월 동안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작업을 강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임. 위원회의 활동은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는 조치를 가져올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조직 범죄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
- 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 법무부 조정국무차관, 재무부 국무차관 외에도 경찰청장, 경찰청 운영과장, 관세청장 및 세무국장이 포함됨.
- 법무부 장관은 2023년 1월 18일 첫 번째 회의를 위해 예정보다 일찍 협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동안 스톡홀름에서 폭력 관련 범죄가 만연했기 때문임. 그리하여 본 회의는 두 번째 회의가 될 것이며 아동·청소년 및 범죄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과 청소년이 심각한 범죄에 처했을 때 개입을 하기로 함.

2023년 02월 21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2/radet-mot-organiserad-brottslighet-samlas -med-sarskilt-fokus-pa-barn-och-unga/

#### 2. 장기 결석 예방을 위한 정부의 학교사회팀에 투자

- 결석률이 높은 학생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외될 위험도 큼. 정부는 학교에서의 안전과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사회팀에 투자하기로 함. 2023년에는 SEK 7,500만 크로나의 예산이 배정됨.
- ■교육부 장관(Lotta Edhol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학교는 소외, 학대 및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 요소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조기 개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본 투자의 결적정인 이유이다."

- 사회복지부 장관(Camilla Waltersson Grönva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소외 감소와 범죄 예방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와 사회복지서비스가 예방책을 가지고 나란히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과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 개선을 위해노력하고 있다."
- ■학교사회팀은 학교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협력하여 학생이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며,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부는 2023년에 학교사회팀의 인건비로 SEK 7,500만 크로나의 새로운 보조금을 배정하고, 2024년과 2025년에 투자액은 연간 SEK 2억 5천만 크로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정부는 학교에서 사회팀을 구성하고 조직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교육청-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 공동 임무를 부여하였음.

2023년 04월 14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4/regeringen-satsar-pa-skolsociala-team-for -att-minska-langvarig-franvaro-i-skolan/

## 3. 아동보건협회의 예방작업 강화

- ■스웨덴 정부는 국립보건복지위원회에 가정 방문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아동 건강 관리 지원을 촉진하도록 지시함.
- ■스웨덴의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는 보다 통합되고, 예방적이며, 건강 증진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함.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아동과 그 가족의 사회적 접촉을 증가함으로 써 평등한 건강관리를 위한 조건과 통합적 기회가 강화될 것임. 이를 위해 국립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보건협회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임무를 맡음.
- 사회부 장관(Jakob Forssmed)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은 건강 증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건강 격차를 감소시키며, 또한 모든 아동의 학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스웨덴어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에서 차이를 만든다."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 확대

-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것임. 이 임무에는 확대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후속 조치를 제안하는 것도 포함됨.

## ▮ 아동의 언어 능력 추적 조사

-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 건강관리 또는 다른 적합한 주체 내에서, 아동의 스웨덴어 능력 및 발달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사할 것임. 이 임무에는 지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어떻게 아동보건협회가 거주 지역 단체에 언어 능력 부족에 대해 알릴 것 인지도 조사할 것 임.
-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SEK 5000만 크로나를 별도로 책정하여 아동보건협회의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임. 정부는 2024년에 SEK 1억 크로나, 2025년부터 매년 SEK 2억 크로나를 추가로 할당할 것으로 추정함.

2023년 05월 08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5/barnhalsovardens-forebyggande-arbete-sk a-starkas/

- 4.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함.
- 신경발달장애(NPF)를 가진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학교에서 실패를 경험을 위험이 더 큼. 스웨덴 정부는 교육청과 특수교육 학교 기관(SPSM)에게 신경발달장애(NPF)를 가진 아동과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강화 업무를 부여함.
  - \* NPF는 "Neuropsykiatriska funktionsnedsättningar"의 약자임. 이는 신경발달 장애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및 틱 장애와 같은 신경 발달에 영향을 주는 장애를 포함함.
-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오늘날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많은 아동은 학교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적응과 지원요구를 인식하고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와 학교 교사는 신경발달장애 (NPF) 아동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청과 특수교육청(SPSM)은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및 교육에 관련된 기타 교직원을 위한 특수 교육학에 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정부는 이 임무를 위해 2023년 봄 개정 예산안에서 SEK 500만크로나(한화 약 6억500만원)를 더 투자할 것을 제 안함. 정부는 이제 국가 기관에 대한 임무를 변경하여 국가 기관이 신경발달장애(NPF)를 가진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전문교육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음. 목표는 NPF를 가진 아동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또한 2023년 봄 개정 예산안에서 정부는, 특수교육청(SPSM)이 신경발달장애(NPF) 분야에서 더 넓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잇도록 SEK250만 크로나(한화 약 3억250만원) 를 별도로 할당할 것을 제안함. 본 제안의 목표는 교육 관리자들이 특수교육청(SPSM)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임.

2023년 06월 29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6/barn-och-elever-med-neuropsykiatriska-funktionsnedsattningar-ska-fa-battre-stod/

## 5.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보건프로그램

- ■스웨덴 정부는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함.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통합된 아동 및 청소년 보건 대책을 만드는 것임.
- ■사회복지부 장관 Jakob Forssmed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조치가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동등한 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보건부 장관 Acko Ankarberg Johansson은 '국가 보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 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그들을 위한 보다 일관되고 정기적이며 평등한 건강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 정부는 국가 보건 복지위원회, 공중보건부,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 특수 교육 학교청, 의료 및 사회적 평가 준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20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를 수행함.

- ■본 과제의 주된 책임을 맡은 국가 보건 복지위원회는 건강 상담, 양육 지원이 핵심이 되는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임. 이러한 틀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직업군을 위해 사람 중심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이 과제는 후속 조치에 적합한 데이터소스를 식별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됨. 국가 보건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공중보건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함.
- ■국가 보건 복지위원회는 참여 당국 및 기타 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에 높은 수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직업군이 본 과제에 포함될 것임.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을 바탕으로 스포츠 운동, 야외단체, 문화계 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건강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

2023년 08월 10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8/nationellt-halsoprogram-for-barn-och-unga -ska-ge-battre-och-mer-jamlik-halsa/

#### 6. 정부의 교육청 학생결석조사 임무 부여

- 학생들의 결석은 오늘날 학교에서 큰 문제임. 또한 학생 부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함. 따라서 정부는 교육청에 학생결석조사를 하도록 임명함.
  - 교육부 장관은 "결석율이 높은 학생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잦은 결석 은 향후 실업, 정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함.
- 지난 11월에 정부는 학교의 안전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함. 조사는 국가 결석 등록 시스템 대한 제안을 제출하는 것이 포함됨. 정부는 이미 교육청에 의무 학교 양식에 따른 학생 결석 조사 임무를 맡기고 있음.
  -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결석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적인 결석 등록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그보다 먼저 결석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본 과제는 2024년 당국의 규정 틀 내에서 제공되며, 조사는 2021년 교육청의 조사 이후, 학생 결석 정도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임. 해당 과제는 2024년 12월 에 종료될 예정임.

2023년 12월 22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12/regeringen-ger-skolverket-i-uppdrag-att-k artlagga-elevfranvaron/

## \*\* 코로나19

- 1.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함.
- ■스웨덴 정부는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대한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함. 본 임무의 담당 기관 은 공중보건국임.
- 공중보건국은 업데이트된 지침 개요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감염 또는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언제 아동이 유치원에 머물거나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할 것임. 이러한 권장 사항은 다양한 유형의 감염들이 발생할 경우, 아동이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것임.
- 사회복지부 장관인 Jakob Forssmed은 '질병과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언제 가정에서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 사항은 부모와 유치원에 큰 도움이 된다.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공동 책임이다.'라고 언급함.
-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정에 머물라는 권장 사항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영향을 미쳤음. 예를 들어,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유치원의 가정 보육 권장사항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임시 육아휴직 혜택을 이전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했음. 2022년에 혜택을 사용한 경우 2019년과 비교하여 약 28% 증가함.
- ■노인 및 사회보험부 장관 Anna Tenje은 '유아교육은 평생학습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므로 높은 출석률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자녀가 적극적으로 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치원 결석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유치원 내 감염 확산을 제한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힘.
- 공중보건부는 이러한 정보를 지침으로 마련하여, 유치원 원장과 관련 직원에게 배포해야 할 예정임.

2023년 08월 0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8/tydligare-rad-om-smitta-i-forskola-ska-ta s-fram/

## \*\* 기타

- 1. 2023년 6월까지 주택보조금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임시 추가 수당의 연장
- ■스웨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스웨덴 복지를 개선해야 하는 사회보험 분야의 제안서를 제출했음. 국회가 예산을 채택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임시 추가 주택 수당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 이 제안은 스웨덴 민주당원, 온건당, 기독교 민주당원 및 자유당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함.
- 주택보조금을 받는 가족을 위한 임시 추가 수당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 이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노인 및 사회 보험부 장관 Anna Tenje는 다음과 같이 말함. "급격한 물가 인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를 둔 가정에 큰 타격을 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 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임시 추가 수당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가정은 가계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특히 생활필수품과 전기 비용이 인상되었음. 주택 수당은 재정이 취약한 일반가정과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혜택이라 볼 수 있음.
- 별도의 신청 없이 예비주거수당 규모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수당으로 지급되며, 최대 수당은 월 SEK 1,325크로나임.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에 SEK 5억 2천만 크로나를 배정함.

2023년 01월 0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01/det-tillfalliga-tillaggsbidraget-till-barnfamilj er-med-bostadsbidrag-forlangs-till-och-med-juni-2023/

## 2. 정부의 첫 100일: 학교

■학교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야임. 학교와 관련된 분야는 스웨덴의 가장 중 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당이 스웨덴 민주당과 함께하는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임. 이 협력은 \*Tidö 협정을 기반으로 하며, 100일이 지난 현재, 이 분야에서 많은 조 치가 이루어졌으며 더 많은 작업이 진행 중임.

- ■정부는 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발표함.
- ■교장, 교사 및 유치원 교사를 위한 국가 전문 프로그램
  - 정부는 교장, 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직업을 강화하고 직업의 매력을 높이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전문직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임.
  - 전문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구조로 구성되도록 제안되었으며, 이는 교장, 교사 및 유치원 교사의 전반적인 직업생활 동안 고품질 역량 개발의 구조적인 제공의 기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인 교사 및 공인 유치원 교사가 자격 수준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국가 자격 시스템을 포함함. 이는 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역량과 진로를 개발하고 명확히 하는 방법임.

#### ■학교 구역 내에서 시행된 조치

- 2023년에 특수 교사, 특수 교육 개입 및 특수 교육 그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SEK 6억크로나를 투자함.
- 2023년에 고품질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SEK 6억 8,500만 크로나를 투자함.
- 2023년에 이전보다 더 어린 학생들에게도 방학학교를 제공할 수 있도록 SEK 1억 크로나를 투자함.
- 더 많은 졸업생이 교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졸업생을 위한 새로운 단기 보완 교육학 교육(KPU)에 투자함.
- 실습학교를 통한 교원양성 과정의 실무중심교육의 질을 강화함.
- 2023년에 독서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SEK 500만 크로나 증액함.
- ■학교 협력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 중/ 해당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 중임.
  - 첫 번째로 수업 계획을 수정하고 학생 선택을 폐지하여 내용이 많은 과목에서 교육 시간을 늘림.

-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수업 시간을 1시간 연장
- 극단주의 및 이슬람주의와 관련된 위험 요소가 있는 학교에 대한 감독 및 검토를 강화
- 학교 협력 프로젝트의 목표
  -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스웨덴 학교에서의 지식 결과를 높임.
  - 학교의 안전과 업무 질서를 지속적으로 강화함.
  -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개발하고 제공자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질이 부족한 행위 자를 위한 공간을 크게 줄임.
  - 스웨덴 전역의 학교에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고 운영 품질을 강화함.
  - 교직의 지위를 높이고 근무 조건을 개선함.
  - (\* Tidö 협정은 스웨덴Västmanland의 Tidö 성에서 유래했으며, 그곳에서 4명의 정당 지도 자가 협정을 협상함.)

2023년 01월 20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3/01/regeringens-forsta-100-dagar-skolan/

- 3. 정부 법안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 성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법안이 제안됨.
- 정부는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과 성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결정함. 이 개정안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들의 보안과 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높이고, 그들이 보호자와 함께 보호시설로 옮겨오게 된 동반자로만 간주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함 임. 또한 폭력적인 부모와의 교류로부터의 보호도 본 제안을 통해 강화됨.

- 스웨덴의 많은 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음. 이제 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거주 지원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제안됨. 아동은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재에 대한 자체 결정을 받아야 함. 또한 이를 위해 특별히 임명된 사회복지사가 필요함.
  - 사회복지부 장관 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개정안은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성인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큰 발걸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와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이 이 새로운 규정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 개정안은 의료 서비스 및 학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보호자 중 한 명이 보호시설에 머무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폭력적인 보호자와의 접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것임.
- 법안의 제안에 따르면 보호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리 감독관의 허가가 필요함. 이는 또한 이 분야의 불량 행위자 및 복지 범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본 제안은 장애 또는 폭력 및 억압 등으로 인한 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대한 조건들도 강화함. 변경 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제안됨.

2023년 10월 26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10/proposition-fran-regeringen-starker-rattigh eterna-for-barn-och-vuxna-i-skyddat-boende/

## 4. LVU(어린이 돌봄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아동 권리 관점

- 아동의 권리와 안전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야이며, 아동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는 보호받아야 함. 이는 특히, LVU, 아동 돌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하는 취약 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용됨. 정부는 아동 권리의 관점 및 LVU 내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임명할 것임.
  - 총리 Ulf Kristersson는 다음과 같이 말함. "우리는 아동의 돌봄을 위해 아동 권리 관점을 강화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오랜 기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물 중독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핵심적인 원인인 경우, 의무적인 약물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 사회복지부 장관은 Camilla Waltersson Grönvall은 다음과 같이 말함. "\*Lilla hjärtat 이라는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사건에 따른 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다. 그러나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조되고 조사되어야 하는 의무적 보호 법안에는 여전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정부가 곧 결정할 이 임무에는 방문 중과 LVU 치료가 종료될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법안을 조사하는 것이 포함됨. 부모를 위한 필수 약물 검사와 사회 복지 위원회가 LVU 치료가 종료된 후 지금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을 추적해야 할 의무, 사회복지서비스와 법원의 처리 과정 내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도 조사될 것임.
- ■오늘날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및 과제가 변화함에 따라(낮은 연령에서의 폭력의 증가 등) 현 상황에 맞추어 법률이 어떻게 어린이의 보호와 지원 요구에 대응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Tidö협약에 따라 가정에서의 상황으로 인해 조직 범죄나 기타 심각한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조사하는 등 LVU에 따른 보살핌의 기초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 Lilla hjärtat: Lilla hjärtat사건은 2020년 스웨덴 형사 사건이며, 2016년 4월 25일에 태어난 Esmeralda Gustafsson이 2020년 1월 30일 노르셰핑(Norrköpin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임.
  - \* Tidö협약: 티도 협약은 스웨덴 의회당 기독민주당, 자유당, 온건당, 스웨덴 민주당 간의 서면 합의로, 2022년 10월 14일에 공개됨.

2023년 11월 29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3/11/starkt-barnrattsperspektiv-i-lvu/

# 중국

임신·출산지원							
1	광둥성, 모자보건관리 조례 개정안 발표(6월 1일 시행)	167					
2	중국 랴오닝성, 출산·육아 지원 정책 발표						
3	산시성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4	광시, 세 자녀일 경우 출산 휴가 일수 최대 158일						
5	후베이성, 임산부 의료 보장 지원에 관한 8가지 조치 발표						
6	프리랜서의 출산 보험 가입 제안에 대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의 답변						
일·가정 양립							
1	광둥성, "마마강: 워킹맘을 위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173					
	양육지원						
1	선전시, '선전시 육아 지원금 관리 조치' 초안 발표	174					
2	육아휴가 강제 시행 제안	175					
3	영유아 돌봄 등 가사 서비스 표준화 예고						
4	장먼시,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 온라인 서비스 출시	178					
유아교육·보육							
1	산둥성 교육청, '산둥성 유치원 운영 지침' 발표	179					
2	중국 샤먼시, "의료+보육" 모델 탐색						
3	가정보육관리방법 초안 발표						
4	쓰촨성,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 발표	182					
	아동·청소년지원						
1	베이징시, 미성년자 보호 조례 수정안 심의 중	184					
2	후난성, 만 14세 미만 아동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3	'베이징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계획'의 2023년 업무 목록 발표	186					
기타							
1	쓰촨성, 비혼 여성의 출생 신고 합법화	187					
2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안전성 강화	187					

# **\$** 임신·출산지원

- 1. 광둥성, 모자보건관리 조례 개정안 발표(6월 1일 시행)
- 광둥성 보건위생위원회는 4월 3일에 모자보건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본 개정안 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광둥성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여성과 아동, 신생아 수 모두 중국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지역임. 광둥성 모자보건관리 조례는 1998년 처음 발표된 이후 2004년, 2010년에 개정된바 있음.
- ■이번 개정안에는 혼전, 임신 전 건강검진,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신생아 건강 관리 절차, 선천적 결함 예방 및 주요 전염병의 모자 간 감염 방지, 위중증인 임산부와 영유아 치료 지원, 보조 생식 기술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사회적으로 모유 수유를 적 극 지지하고, 의료 및 보건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모유 대체품을 홍보하거나 제 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함.
- 또한 개정안은 혼전, 임신 전 건강검진 통합 추진하여, 현 정부가 혼인신고처 주변에 건강 검진 시설을 마련해 대중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임신·출산 기간 동안 여성의 생리·심리 변화가 심하여, 다양한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본 조례는 임신, 출산 여성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보건기관이 규정에 따라 임신, 출산 여성, 태아 및 신생아에게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 출산 여성의 심리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며, 심리지원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조직 및 지역사회가 임신, 출산 여성에게 심리건강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
- ■세 자녀 출산 정책 이후, 고령 산모가 증가하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보장, 선천적 장애예방, 보조 생식 기술 사용 범위 등에 대해 요구사항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안전, 건강 보장을 보다 강화함.

2023년 04월 04일

출처: https://gdio.southcn.com/node\_5201f00af5/c2bdcaded1.shtml

# 2. 중국 랴오닝성, 출산·육아 지원 정책 발표

- ■중국 랴오닝성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랴오닝성은 인구 구조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출산 관련 휴가를 연장하며 3세 미만 영유아 보육료를 개인 소득세 특별 부가 공제 범위에 포함할 예정임.
- 랴오닝성은 인구 구조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 작업 팀을 만들고 일련의 정책을 발표함. 또한 결혼 휴가,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연장하고 육아 휴직 및 한자녀 부모의 입원 돌봄 휴가를 신설함. 나아가 차별화된 임대 및 주택마련 우대 정책을 수립하고 포괄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등 앞서 서술한 출산지원 내용을 "랴오닝성 인구 및 가족계획 규정"에 포함함. 그리고 3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용을 개인 소득세 특별 부가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조건에 맞는 위탁 보육기관은 세금과비용 감면을 누릴 수 있음.
- ■라오닝성은 출산 육아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음. 현재 랴오닝성의 모든 시, 현(시, 구)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자보건기관이 있으며 기관의 역량 강화와 보건 특화 진료 추진을 위해 노력 중임. 2022년 기준, 랴오닝성 전체의 임산부 사망률, 영아 사망률,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라오닝성은 3세 미만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현재 랴오닝성 인구 1,000명당 3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이 2.53개씩 마련됨. 랴오닝성은 위탁 보육서비스 산업의 규격화, 전문화 및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랴오닝성 위탁 보육기관의 등록 절차에 대한 시행 규칙"을 제정함.

2023년 07월 18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71706904326239720&wfr=spider&for=pc

## 3. 산시성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8월 17일 산시성 정치협상회는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함. 여러 지역의 정치협상회 위원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해당 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됨.

- 성급 정치협상회 위원이자 의료보장국 부국장인 스원쥔(Shi Wenjun)은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사용되는 비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함. 스원쥔은 '의료보험 정책 개선과 출산 적극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산시성의 출산 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출산 수당이 출산 휴가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산 휴가 보급에 제약이 있고, 출산 휴가 동안 사용되는 비용이 여전히 고용주에게 부과되어 기업의 고용 부담이 가중됨. 또한 생식 보조 의료가 아직 총괄 기금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짐. 또한 출산보험 혜택이 신생아보험 가입과 연계되지 않아 신생아 가정의 보험 가입 비용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 다양한 참여형 출산 휴가 체제 모델을 도입하여 여성 출산 지원 혜택을 유지해야 함. 첫째 출산 휴가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개인, 가정, 기업, 국가, 사회가 적절하게 분담해야 함. 둘째, 출산 수당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법정 휴가에 발생하는 출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 셋째, 출산보험을 개선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출산보험 비용 지급 모델을 최적화해 여성의 공정한 고용과 직업개발을 촉진해야 함.
- ■서북대학교 공공관리학원 학장인 레이샤오캉은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레이샤오캉은 최근 몇 년 동안 산시성 아동복지사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고품질 아동복지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모든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제도를 마련하고, 0~18세 아동에 대한 포괄적 수당 제도를 2단계로 나눠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서비스를 도입해야 함.
  - 위기 아동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 지원을 강화하며 시장, 사회단체, 풀뿌리 커뮤니티를 동원해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함.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 사회복지사 및 사회 조직을 투입해야 함.

2023년 08월 18일

출처: https://news.hsw.cn/system/2023/0818/1659432.shtml

- 4. 광시. 세 자녀일 경우 출산 휴가 일수 최대 158일
- 광시는 '광시 좡족 자치구 근로자 출산 보험 잠정 방법'을 공포하여 광시 근로자 출산보험 정책을 규범화하고 지역 간 출산보험 혜택 결산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없애고자 함.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방법은 처음으로 자치구 내 출산보험 정책을 통일함. 보험 가입, 비용 납부, 보험 혜택과 기준, 취급 관리 등을 규범화함. 기업은 0.5%의 납부 비율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치구 내 각 총괄구는 2년의 과도기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납부 비율을 통일할 수 있음. 자치구는 경제발전 수준과 기금 수용능력 등에 따라 납부 비율을 적시에 조정할 예정임.
- ■출산 의료비 보장 내용을 분류하여 규정함. 첫째, 출산 의료비의 지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둘째, 출산 보험의 보장 범위에 외래 산전 검사를 추가함. 셋째, 산부인과 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기본의료보험의 지급범위에 부합하는 경우 직원의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위 조치는 전체적으로 출산 의료비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출산 비용을 절감함.
- ■본 방법은 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 또는 임신 중절 수술 휴가 기간 동안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 1 자녀와 2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국가 법정 출산 휴가 98일을 기준으로 30일 연장하여 128일을 사용할 수 있고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58일로 연장할 수 있음.
- ■본 방법은 '국가와 자치구의 산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출산 의료비', '각종 불임·성기능장애 등을 치료하는 의료비' 등 조항을 삭제함. 산아 제한 국책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출산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요건을 일부 삭제하여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출산 보험의 출산 지원이라는 순기능을 강화함.

2023년 08월 17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74444822474255685&wfr=spider&for=pc

- 5. 후베이성, 임산부 의료 보장 지원에 관한 8가지 조치 발표
- 후베이성이 임산부 의료비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 의료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최근 후베이성 의료보장국과 후베이성 재정청은 '적극적인 임산부 의료 보장 지원 조치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신생아 보호 강화, 프리랜서 임 산부의 의료 혜택 증진 등 8가지 적극적인 임산부 의료 보장 지원 조치를 마련함. 이를 통 해 후베이성 피보험자의 출산 의료 보장 수준 향상을 기대함.

- ■임산부 의료 보장 관련 정책을 개선 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도시 및 농촌 주민 모두임산부 의료비 보장 범위에 포함됨. 프리랜서는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프리랜서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직장인과 동일하게 산전 검사, 입원과 출산, 계획 임신 관련 의료비 보장 혜택을받을 수 있음.
- 또한,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 혜택과 보장이 개선됨. 출산 기간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비용은 분만 횟수, 자연 분만 여부와 상관 없이 입원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연도의 기본 의료보험 결산비 최고액과 합쳐서 보장할 예정임. 유산 전조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비는 기본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고 유산 또는 유도 분만으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비도 지역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됨.
- 피보험자는 보다 편리한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 증명서, 출산 서비스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공할 필요 없이 출산 보험 혜택 또는 기본 의료 보험 관련 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또한, 산전 검사 비용은 의료 보험의 진료 보장 범위에 포함됨. 신생아에 대한 보장은 더욱 강화되어 출생 연도에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비용 없이 바로 의료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누릴 수 있음. 이듬해 보험 가입 시, 집중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재 납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11월 30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83984110372010129&wfr=spider&for=pc

# 6. 프리랜서의 출산 보험 가입 제안에 대한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의 답변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프리랜서의 출산보험 가입 허가 제안에 대해 중국의 국가의 료보장국은 최근 모든 여성의 출산 의료비가 상응하는 정책 보장을 받고 있다고 답변함.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프리랜서를 출산보험 보장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임.
- ■국가의료보장국은 중국 모든 여성의 출산 의료비가 현재 상응하는 정책 보장을 받고 있다고 밝힘.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음. 프리랜서와 미취업 여성은 규정에 따라 근로자 의료보험 또는 도시 및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규정에 부합하는 입원 분만 등 의료비는 기본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출산보험은 고용주와 그 직원에 한해 적용되며, 프리랜서는 고정된 소속이 없어 출산 보험의 법적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 하지만 프리랜서가 출산 후 회복하는 과정이 근로소 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프리랜서를 출산보험에 포함하는 것이 그들의 걱정을 덜 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미 일부 지역이 '프리랜서의 직장인 대상 기본 의료 보험 과 출산 보험 동시 가입'을 추진함.
- ■국가의료보장국은 '프리랜서의 호적 가입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답변함. 도시화의 가속화과 대규모 인구이동에 알맞은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미 거주증 소지자가 거주지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누리고 거주 중 소지자가 거주지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각급 재정에서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관련 문서를 발표한 바 있음. 국가의료보험국도 4년 연속 주민 의료보험 가입 호적제한을 풀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21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장국 등 8개 부처는 프리랜서가 취업지에서 기초노령연금, 기초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각지의 호적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표함.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를 단번에 실현하기 어려운 초대형 도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현재 많은 지역이 거주증 기반 보험 가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2023년 12월 25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86232142372572089&wfr=spider&for=pc

## \*\* 일·가정 양립

- 1. 광둥성, "마마강: 워킹맘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광둥성에서 "마마강(워킹맘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마마강(워킹맘을 위한 일자리)" 정책 목표는 기업에서 일부 전문기술과 관리직을 마마강으로 설정하도록 장려하고, 워킹맘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마마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규모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임.
- ■마마강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마마강 취업 서비스 강화, 수급 대응 효율성 향상,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지원, 마마강 취업 모범 사례 육성, 취업 알선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조치 가 제안됨.
- ■마마강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 취업 욕구와 기업 등 직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조직하며, 기업 등 고용당사자가 개발하는 일자리 정책임. 합법적인 근로연령 범위 내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취업을지원하고, 근무 시간과 관리 모델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 분야임. 마마강의 근무시간은자녀의 등원시간을 고려해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임.
- 중산시는 2021년 마마강 취업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여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022년 말 기준, 중산시는 총 5번의 마마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1400명 이상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마마강 사회보험 보조금, 직장 보조금으로 총 353만 위안의 예산을 지원함.

2023년 04월 17일

출처: http://gd.people.com.cn/n2/2023/0417/c123932-40379821.html

## **\$\$** 양육지원

- 1. 선전시, '선전시 육아 지원금 관리 조치' 초안 발표
- 중국 선전시는 1월 11일 '선전시 육아 지원금 관리 조치' 초안을 발표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초안에 따르면, 육아 지원금은 자녀 수와 가족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됨. 초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 자녀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은 37,500위안임. 두 자녀, 한 자녀 가정 역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초안에서 제시한 기준은 선전시 주민의 평균 지출, 영유아 양육비용 등을 고려한 것임.
  - 쌍둥이·다둥이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번째 자녀의 지원금 기준을 적용함.
  - 재혼 가정의 경우 현 배우자와 낳은 자녀의 수를 계산해 지원금을 산정함. 만약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가 만 3세 미만이면 해당 자녀는 이전 가정의 자녀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 ■ 지원금 산정 기준

- 첫 번째 자녀는 출생신고 후 일회성으로 3,000위안을 지급하고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1.500위안 지원
- 두 번째 자녀는 출생신고 후 일회성으로 5,000위안을 지급하고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2.000위안 지원
- 세 번째 자녀는 출생신고 후 일회성으로 10,000위안을 지급하고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3,000위안 지원

2023년 01월 16일

출처: http://news.cyol.com/gb/articles/2023-01/16/content\_EAAdMPsaNj.html

## 2. 육아휴가 강제 시행 제안

- ■5월 1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중국인구보〉이론판에 천훙과 미훙의 '중국 육아휴직 시행 현황 및 영향 요인 분석'이 게재되었으며, 저자는 육아휴직 시행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안을 제시함.
- ■육아휴직은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는 정책임. 중국은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시행하고 있음. 육아휴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촉진, 여성의 평등한 고용촉진, 부모의 평등한 육아에 대한 인식 제고,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 등 측면에서 의의가큼. 지금까지 전국 31개 성에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함.
- 저자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공존하는 중국의 인구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도입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함.
  - 중국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늦게 도입한 편으로, 제도의 발전 속도가 더딘 편이고 체계성이 떨어짐. 또한 관련 법규와 정책의 부족, 기업의 저조한 참여, 휴가 내용과 방식의 획일성, 가족지원정책의 취약성, 관련 지원대책의 부족, 관리 감독 개선 필요, 아버지의 육아 참여 저조 등 문제를 안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비용 부담과 평등 육아 실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힘.
  - 현재 각 성의 육아휴직 비용 부담 모델을 보면, 고용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이 육아휴직 시행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 육아는 집안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육아로 인한 책임과 스트레스가 여성 의 출산 의지를 꺾고 있음. 육아휴직의 취지는 육아의 평등 실현이었으나 다른 나라의 현실을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권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 유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의 진보이지 만, 육아휴직은 모두 지방 법규에 속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들이 모두 전 국적인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전국적으로 강제성 있는 정책과 세칙을 시급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휴가기간, 수당기준, 지급주체, 휴가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육아휴직 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급주체가 주로 고용주라는 점임.

- 중국의 가족 문화는 일본, 한국과 비교적 가깝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과 같은 뿌리 깊은 인식으로 여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임.
-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 기 시작했고 이제 아버지의 육아 책임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지원정책 보완 외에도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임.
- 이에 대해 저자는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 실정에 적합한 육아휴직 비용을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할 것을 제안함. 이 때 전국 지역별로 출산보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현재 중국의 출산보험 적용범위는 도시 여성근로자로 제한되어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을 권함. 또한 정부, 고용주, 직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출산보험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해야 함.
- 또한 국가 출산 지원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버지의 육아 책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육아휴직 정책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예를 들어, 적립금 제도로 고용자의 육아휴직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립금이 높은 기업에 세금 감면 및 기타 우대 정책을 제공하고 적립금이 낮은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임.
  - 남성 선택적 휴가를 피하기 위해 부모의 육아휴직과 아빠의 출산휴가를 시행해야 함. 남녀 의 평등한 양육을 옹호하고 널리 알려 부부가 함께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가족 문화와 새 로운 출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 또한 가족 양육 지도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해야 함.
  - 가정에서 남녀 간 및 세대 간 육아 분업 문제를 해결해야 함. 중국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전통이 있어 노인과 아동 부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대 간 지원을 위한 정책 인세티브를 강화해야 함.

2023년 05월 21일

출처: https://m.cyol.com/gb/articles/2023-05/21/content\_8EzBd8cW49.html

# 3. 영유아 돌봄 등 가사 서비스 표준화 예고

-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가사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업무요점'을 공동 발표함. 본 업무요점에 따르면, 중국은 가사서비스 표준화 프 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을 향후 도입할 것임.
-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사 분야에는 약 300가지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이 발표되었으며, 노인 돌봄, 모자 돌봄, 시간제 서비스 등 세분화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가사 서비스 표준화는 가사 서비스 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상무부가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가사 서비스 표준화 프로젝트를 관련 부서와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관련 부서가 '가정 요리 서비스 지침', '가정의 일상 청소 서비스 지침',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침' 등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도록 안내하고, 가정 서비스의 표준화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동시에 지방 표준 시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이 국가급 서비스 표준화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가사 서비스 기업 표준을 이끄는 '선도자' 그룹을 육성할 것임.
- 직업 윤리 향상도 '가사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업무요점'의 핵심 내용임. 상무부가 가사도우미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온·오프라인 교육 자원을 통합해 가사도우미에게 무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기간과 평가 기록을 가사도우미 신용 파일에 포함시킬 것임. 업계의 고용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 플랫폼도 구축할예정임.
- 상무부는 '가정흥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각지가 가사수급을 이어주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가사 서비스 도우미 배출 지역과 가사 서비스 기업의 연결을 추진할 것임. 또한 온라인 채용을 혁신하고 숏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가정 서비스 채용 시즌'을 홍보해 가사 도우미 공급을 늘리고 업계 규모를 확장할 계획임.
  - \* 가정흥농: 가사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질적 발전을 통해 농촌을 진흥시키려는 국가 사업.

2023년 05월 26일

출처: http://news.china.com.cn/2023-05/26/content 85611937.shtml

- 4. 장먼시,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 온라인 서비스 출시
- 장먼시 의료 보험국은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 온라인 서비스를 출시함. 올해 7월, 장먼시는 신생아 보험 가입 경로를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기관(2곳)'으로 이원화하여 신생아 출생 즉시 보험 가입 후 결산이 가능하도록 함. 단, 신생아 사전 보험 시 등록한 문건의 기한은 출생 후 6개월까지임. 온라인으로 신생아 사전 보험 신청 후 호적 신고를 거친 뒤 지역의료보험 기관에서 보험 가입 정보를 수정해야 정식 가입이 완료됨.
- 장먼시 의료 보험국은 위챗 미니 어플에 '신생아보험 사전 등록 정보 변경' 기능을 추가해 신생아 의료보험 가입을 온라인 상에서 완료하도록 함.
- 신생아 호적 신고를 완료한 후 시민은 위챗 미니 어플을 통해 정보를 수정한 후 보험 가입을 마칠 수 있고 이후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예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호적 신고를 마친 신생아 역시 미니 어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또한 외래 진료소 선택및 등록기능을 활용하여 신생아를 위한 1급 이하 지정 의료기관 및 지정 소아과전문 의료기관 선택이 가능함.
- 11월 22일 기준, 장먼시에서 신생아 보험 가입 예비 등록을 신청한 인원은 총 2,793명에 이르며 그 중 388건의 입원비 결제가 완료됨. 총 2,686,600 위안(한화 491,841,772.52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으며 그 중 개인이 1,051,700 위안(한화 192,537,032.74원)을 지불하고 의료보험 기금이 1,634,900위안(한화 299,304,739.78원)을 지출함. 단일 최대 의료비는 108,800위안(한화 19,918,255.36원), 의료보험 직접 결제액은 80,600위안(한화 14,755,619.32원)으로 신생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임.

2023년 11월 25일

출처: http://www.jiangmen.gov.cn/home/bmdt/content/post\_2982880.html

# **♣** 유아교육·보육

- 1. 산둥성 교육청. '산둥성 유치원 운영 지침' 발표
- ■최근 산둥성 교육청은 '산둥성 유치원 운영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유치원 운영 감독 강화 및 유치원 운영 규범화 작업에 앞장서고 있음.
  - 지침에 따르면, 과학적인 유·초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은 놀이를 기본 활동으로 하고 적어도 하나의 초등학교와 학습 공동체를 설립해 해야 함.
  - 또한 유치원은 원아 모집 시 입학시험이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실험반/특별반을 개설할 수 없음.
  - 지침은 유치원 설립 시 반드시 허가를 받고 규정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유치원은 유아의 바른 품성과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성교육을 놀이 방식으로 일 상생활에 녹여내야 함. 유치원은 놀이를 기본 활동으로 삼고 유치원이 초등학교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놀이 활동에서 유아가 공간, 놀잇감, 놀이또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매일 최소 1번 45분 이상의 자유 놀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함.
- ■유·초 연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학습 공동체를 설립해 5세 반은 2학 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함. 유치원은 규정에 따라 교사 지도용 도 서를 선정하고, 유아의 연령적 특성과 인지적 수준에 부합하는 그림책을 인당 15권 이상 마련해야 하고 동일 서적은 최대 5권까지 반별로 배치할 수 있음. 유치원은 학기마다 보육 과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를 담당 교육부처에 보고해야 함.
- ■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해 유치원 일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함. 식사 간격은 3.5~4시간으로 배정하고 오전 휴식 시간은 원칙적으로 2시간 이상이어야 함.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는 등원 후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해야 하며 그 중 체육활동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함.

- 규정에 따라 교직원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모든 항목에서 통과해야함. 교직원은 기관에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신입 원아는 예방접종 증명서와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해고 유치원 은 유아 건강성장 파일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유아의 건강검진 분석 결과와 개선 조치를 공 유해야 함. 그리고 유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급간식위원 회를 구성하여 학기마다 영양 분석 시간을 최소 한번은 가져야 함. 또 유아에게 안전한 식 수를 제공하기 위해 수질 검사를 학기마다 최소 한번 실시해야 함.
- ■유치원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원아를 모집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제외한 그 어떤 형식의 시험이나 검사는 허용되지 않음. 학급별 최대 인원은 3세 반 25명, 4세 반 30명, 5세 반 35명임. 유치원은 실험반/특별반을 개설할 수 없고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유아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음.

2023년 01월 06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54275012336989854&wfr=spider&for=pc

# 2. 중국 샤먼시. "의료+보육" 모델 탐색

- 중국 샤먼시는 2023년에 보육시설 2000개 이상 증설할 계획이며,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돌봄서비스 시설은 3.5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샤먼시는 2022년에 총 32개의 보혜성 보육시설을 신설한 바 있음. 보혜성 보육시설 증설과 개선작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 샤먼시의 보육수용 인원은 15,000여 명으로 영유아 인구천 명당 제공 가능한 돌봄서비스 시설은 2.8개에 이름. 이는 푸젠성에서 제시한 2.5개라는 연간 기준을 넘어선 것임. 이로써 샤먼시는 보혜성 보육시설 수와 보육시설 등록 통과 비율측면에서 푸젠성 내 선두가 되었음.
  - \* 보혜성 보육기관: 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정부 기준 보육비용 수용, 교직원 사회보 험 가입 등)
- 샤먼시는 보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위해, 보혜성 보육시설에서 "의료+보육" 융합 모델을 탐색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좋아하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가 유능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화페이위엔(华菲园)의 경우, 샤먼시 모자보건소 소아 건강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지식 교육을 제공함. 또한 의료진은 원아의 건강 스크리 닝을하고 정서 발달 평가를 실시함. 해당 보육시설은 샤먼시 모자보건소의 의료 자원을 활 용하여, 원아의 보육시설 입소 부터 건강 데이터를 만들고 영양 섭식상태 분석, 정서 발달 평가, 아동 건강검진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담당자에 따르면, "의료+보육"모 델은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 규범화. 정교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 2023년 샤먼시는 보육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보육시설 10곳에서 "의료+교육"모델을 시 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또한 대형 병원·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보육 시설이 삼자 협력하는 "의료+교육" 신모델을 탐색할 계획임.

2023년 02월 23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58318029929642975&wfr=spider&for=pc

#### 3. 가정보육관리방법 초안 발표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5일 "가정보육관리방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가정어린이 집에 대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음.
- 초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서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종일 보육, 반일 보육, 시간 제 보육, 임시 보육 등 위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대 5명을 보육할 수 있음. 가정어린이집은 등록 시 "가정 위탁 보육 서비스"임을 명시해야 함.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생활 돌봄, 균형 잡힌 식사, 조기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심신 건강을 도모함.
- 가정어린이집 사업주는 심신이 건강하고 정신질환 병력과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가정어린이집의 돌봄 인력은 보육교육, 위생건강 등 영유아 돌봄 경력자이거나 전공자여야 하고 영유아 보육, 심리 건강, 식품 안전, 응급구조와 소방안전 등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함. 가정어린이집의 사업주이자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상술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가정어린이집은 돌봄 인력 당 최대 3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음. 가정어린이집의 건축 면적은 영유아 당 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가정어린이집은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과 온도가 적절한 등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함. 가정어린이집은 지하실이나 반지하일 수 없으며 창문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장 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이 외에도 가정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녹화된 자료는 90일 이상 보관해야 함.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자와 서면 계약을 통해 보육 서비스에 있어 쌍방의 책임, 권리, 의무와 쟁점 사안 처리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함.

2023년 03월 18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60660440202147414&wfr=spider&for=pc&sa=vs\_ob\_realtime&sfr \_fb=901

- 4. 쓰촨성,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 발표
- 12월 15일 쓰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법안을 발표함.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현재 쓰촨성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서비스 수급 문제, 지원 정책, 서비스 표준과 인재 양성 시스템 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법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질이 보장되고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접근성 과 편리성을 지닌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쓰촨성 정부는 위탁보육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유치원의 위탁보육 학급 개설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 기관 및 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민간이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로 함. 그리고 농촌 지역의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합리적으로 배치할 예정임.
- ■위탁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위탁보육 서비스 인재 양성 및 직업 훈련을 추진하고 인재 관리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기로 결정함. 동시에 쓰촨성 인민정부 위생건강 주관부서에 위탁보육 서비스 기관에 대한 등급 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함. 또한 의료 보건 기관과 위탁보육 서비스 기관의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임. 그리고 종합적인 위탁보육 서비스 기관을 지어 보육 서비스 지도, 인력 양성, 가족 양육 지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제도의 안전장치의 측면에서 현 지역수준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투자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공공 서비스에 포괄적 위탁보육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로 결정함. 건설 보조금, 운영 보조금, 특별 포상 및 보조금, 구매 서비스, 소비쿠폰 배부 등 보편적 위탁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영유아 가정을 지원할 방침임. 더불어 지역사회 위탁보육 서비스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해 서비스 기관의수도, 전기 및 가스 요금 기준을 주민 생활 가격에 맞춰 책정할 예정임.

2023년 12월 15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352910762645759&wfr=spider&for=pc

# \*\* 아동·청소년지원

- 1. 베이징시, 미성년자 보호 조례 수정안 심의 중
- 베이징시 16회 인민대표상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미성년자 보호 조례"의 수정 안을 심의하였음. 본 조례안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 및 온라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수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관련 사안을 처리할 때 6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미성년자 보호 우선
  - 미성년자의 존엄성 존중
  -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달 단계와 특징 고려
  - 미성년자의 의견 청취
  - 교육과 보호의 연계성 강화
- ■학교와 유치원은 교내 순찰, 정기 점검, 전문 모니터링 등 조치를 통해 학교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함. 학교, 유치원의 교육과 생활 시설, 위생환경,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 의 약품, 의류, 교구, 식기, 운동기구 등 학습, 생활, 활동에 쓰이는 용품은 관련 기준에 부합 해야 함.
- ■학교와 유치원은 돌발 상황 대응, 학교폭력 예방,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중보건사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갖춰 정기적인 훈련을 진행해야 함.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폭력을 적시에 처리해야 함.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 성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미성년자와 보호자에게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노동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 자의 채용을 금지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시설, 술집, 온라인 서비스 영업 장소 등 미성년자가 근무하기에 부적절한 곳은 만 16세를 채용할 수 없음. 만 16세가 지난 미성년 자를 채용한 업체/기관/개인은 업종, 근로시간, 근로 강도와 보호 조치에 있어 국가 규정에 따라야 함.
- ■수정안은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해야 하는 사이버 폭력 예방 시스템과 미성년 자에게 제공하는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보호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 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게임을 하지 못하게 게임 상품을 분 류해야 함. 또한 미성년자가 현금 충전, 온라인 결제 등 온라인 팁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함.

2023년 03월 24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61209389987568537&wfr=spider&for=pc&sa=vs\_ob\_realtime

- 2. 후난성, 만 14세 미만 아동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 중국 후난성에서 14세 미만 아동은 증명서 지참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광역버스, 고속버스 등 도시 간 혹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버스는 제외되며, 9월 개학 전해당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함.
- ■본 대중교통 무상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성 정부: 사업 타임라인과 세부 조건 등 전반을 총괄 관리
  - 교통 운수 부처: 각 부처와 협동해 정책 세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기업이 해당 정책을 이 행하도록 촉구
  - 위생 건강 부처: 각지에서 14세 미만 아동이 유효 증명서를 지참할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도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유 버스/지하철 기업이 14세 미만 아동이 증명서를 지참할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지 관리 감독
  - 학교: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카드 가입을 안내하고 14세 미만 학생 관련 정보를 버스/지하철 기업과 공유

- 재정부처: 현지 관련 재정 지원 정책을 활용해 버스와 지하철 기업에 관련 보조금을 적시 에 배부하고 재정 자금 감독 강화
- 발전계획부처: 해당 정책을 현지 도시 버스 가격표 규정 문건에 포함하고 실제 시행 상황 모니터링 강화

2023년 09월 18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364216441848850&wfr=spider&for=pc

- 3. '베이징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계획'의 2023년 업무 목록 발표
- ■최근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베이징시 부녀아동공작위원회 판공실은 36개 관련 유관 부서와 협력해, '베이징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계획'의 2023년 업무 목록을 수립함. 본 업무 목록을 토대로 아동 친화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 ■위탁 보육 서비스 보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 보육 시범 기관 55곳을 설립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유치원은 2~3세 유아반을 증설해 원아를 모집하도록 할 예정임. 일부 기업이 미혼, 가임여성의 채용을 꺼리면서 사회 취업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아동 친화는 물론 여성 친화, 가족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의료, 공공 문화 체육 서비스 분야도 아동 친화적으로 바꿀 예정임.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아동 내원 시 병원의 진료 서비스 수준과 편리성 제고, 체육시설 건설, 청소년 스포 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내용이 본 업무 목록에 포함됨.

2023년 09월 20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77509993002781173&wfr=spider&for=pc

# **22** 기타

- 1. 쓰촨성, 비혼 여성의 출생 신고 합법화
- 쓰촨성 보건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쓰촨성 출생 신고 서비스 관리 방법"이 2023년 2월 15 일부터 시행됨. 2019년 3월 20일 발표된 "쓰촨성 출생 신고 서비스 방법"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혼인 여부, 자녀 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고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임.
- 출생신고는 출생인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지역의 출산과 양육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성. 보건 건강 서비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임.
- ■기존에는 출생 신고할 때 혼인증을 제출해야 해 미혼모가 출산 지원금과 법정 휴가 등 제 도적 혜택을 누릴 수 없었음.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쓰촨성에서는 미혼모라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보험, 육아휴직 등 출산과 관련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비혼출산장려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 이는 출생신고와 호적등록을 혼동한 결과로, 실제로 출생신고는 호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쓰촨성 보건건강위원회는 본 개정안이 미혼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권익 증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함.

2023년 02월 09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57313002033629782&wfr=spider&for=pc

#### 2.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안전성 강화

■ 2023년 7월 10일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영아의 '식량'인 조제분유는 억만 가정의 행복과 국가 및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특별식품이라고 밝혔음. 최근 총국은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조제법 등록에 관한 행정조치 수정안'(이하, 조치)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총국 특수식품국장 저우스핑(周石平)은 본 조치가 '식품안전법'의 가장 엄격한 4가지 요구사 항을 이행하고 제품의 조제법 등록 요구 사항을 더욱 엄격히 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영아 조제 분유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본 조치는 총 6장 52조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에서 영아용 조제분유를 생산, 판매 및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 및 등록 절차, 라벨링과 설명서,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함.
-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제법 등록 기준 강화 및 검증 요구 기준 세분화
  - 영아 조제분유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영양성분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복합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여 조제분유 등록을 신청하는 '변칙 포장', 신청 자료 위조, 신청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연구 개발 능력, 생산 능력, 검증 능력을 지니지 못한 경우 등 등록 불 허 기준 8가지를 명확히 제시
  - 라벨과 표식 규제를 통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 라벨링 금지 문구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여 수입산 우유 원료, 해외 목장에서 유래, 생태 목장, 수입 원료, 무공해 우유 원료 등 모호한 정보를 전달하는 라벨은 사용 불가
  - 영아와 부녀자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고 모유 또는 유사 용어 사용 불허
  - 기타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건강 관리 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한 내용 서술 불가
  - R&D 혁신 장려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에 독립적인 연구개발 기관이 있는 경우 지주계열사가 그룹의 연구개발 능력 일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인증서 재발급 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처리 시간을 단축할 예정

2023년 07월 11일

출처: http://edu.people.com.cn/n1/2023/0711/c1006-40032578.html

# 호주

	임신·출산지원	
1	다태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태아 출산 보조금	191
	으로 보고 있는 기정 양립 의 기계	
1	일하는 여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JobSeeker)보다 세금감면, 양육보조금 지원 선호	193
	양육지원	
1	2023 호주 아동보육 지원금 인상에 관한 모든 것	194
2	아동 주간	196
	 유아교육·보육	
1	호주,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 발표	197
2	서호주 지역사회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승인과 모니터링	198
3	2023년 연방 예산: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200
4	유치원 등록 인원 감소, 무료 보육의 보편화 촉구	201
5	무료 보육제도의 과도한 지원으로 토요일에도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하도록 요구받는 빅토리아 부모들	203
6	가정보육 서비스의 66%가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기준치 이상의 평가를 받음.	204
7	3세 아동을 위한 조기 학습	205
8	생애 초기 투자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	206
9	영유아 교사들에게 1200만 달러 지원금 제공	207
10	조기교육 분야 홍보를 위한 온라인 세션	208
1	홍수로 피해입은 서호주(Western Australia) 및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의 가족 및 유아교육 및 돌봄 서비스 긴급지원	210
2	아동의 목소리에 맞춘 품질 실천-맥그리거 방과 후 돌봄(Macgregor Outside School Hours Care)센터 사례	211
	기타	
1	호주 아동의 등하원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212
2	타즈매니아 교육부, 학교 수업의 중요성 강조 캠페인 시행	213
3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규칙에 대한 국가 정책	213
4	부적절한 감독으로 Genius Learning센터에 \$15,000 벌금 부과	215
5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료 건강 및 발달 검사	216
6	NSW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217

# **\$** 임신·출산지원

- 1. 다태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태아 출산 보조금
- 2023년 3월 20일, 호주 다태아 협회(AMBA, Australian Multiple Birth Association)의 Andersen Cooke 협회장은 다태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 규모를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 다태아 출산 보조금(Multiple-births grant)

- 본 보고서는 입원 시간과 관련된 더 많은 비용, 조산으로 인한 일할 기회 상실, 더 많은 육아 필수품 및 장비 구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태아 출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지적함.
- 호주의 병원비용은 대부분 메디케어(호주의료보험)나 민간 건강 보험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이 한명을 출산하는 것에 비해 쌍둥이 출산이 약 \$13,000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남. 이 비용은 세 쌍둥이 이상의 경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제안은, 쌍둥이 출산 시 \$15,000의 새로운 "다태아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추가 자녀 한명 당 \$15,000 추가 지원 하는 것임.
- 세쌍둥이 또는 그 이상의 출산의 경우, \$15,000를 가족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10,000과 자동차 또는 주택 공사를 위한 \$5,000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
- 2023년 출산율을 기반으로 번 보고서는 이러한 보조금의 연간 예산을 68백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 ■ 기존의 지원금 체계의 확장

- 본 보고서는 다태아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확장할 것을 제안함.
- 연방 정부는 현재 신생아 수당(Newborn Payment), 신생아 보조금(Newborn Suppleme nt) 및 다태아 수당(Multiple-birth Allowance)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부모의 소득 수준에 의해 차등 지원함.

- 현재 다태아 수당은 세 쌍둥이의 경우, 연간 약 \$4,500, 네 쌍둥이 이상의 경우 2주에 약 \$6,000를 지급하지만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에 만 지급 가능하며,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해당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지원금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야 하며 쌍둥이 가정 및 상위 소득을 가지고 있는 다태아 가족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음.

2023년 03월 20일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3-03-20/twins-triplets-multiple-births-call-more-financial-help-budget/102098222

# 1 일·가정 양립

- 1. 일하는 여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JobSeeker)보다 세금감면, 양육보조금 지원 선호
- 호주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구직촉진수당(JobSeeker) 보다 세금 감면 및 양육보조금 지원이 더 선호되고 있음.
- Resolve Strategic(호주에 본사를 둔 리서치 기관)는 1609명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조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61%는 세금 감면 또는 양육보조금과 같은 정책으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였음.
- 재무부 장관(Stephen Kennedy)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여성과 복지 수혜자들이, 일정 기간 더 일을 하게 될 경우 직면하게 되는 높은 재정적 불이익에 대해 경고하였음. 현재 호주 세제법에 의하며, 자녀가 있는 여성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일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여성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가족의 수입증가로 인해 가족 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가족 세제 혜택과 양육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임.
- 정부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가족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4년 동안 45억 달러"의 약속 외에도 일하는 여성이 주당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에서 오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많은 여성이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한다면,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알바니즈 정부(the Albanese government)의 경제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재무부 장관이 언급함.
- 정부는 예산에 자녀가 있는 여성의 직장 복귀 장려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가 포함할 것임. 그러나 본 예산에 3일 이상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세금 장벽 제거가 포함될지는 불확실함. 이에 야당의 재무부 대변인(Angus Taylor)은 정당(the Coalition)이 여성 노동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맥락에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2023년 04월 23일

출처: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voters-favour-tax-breaks-childcare-subsidies-for-workin g-women-over-jobseeker-raise-20230419-p5d1li.html?btis=

# 🞎 양육지원

- 1. 2023 호주 아동보육 지원금 인상에 관한 모든 것
- ■7월 10일부터 약 120만 호주 가정이 보육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예정임.
- 연방정부는 새로운 보육 보조금(CCS: Child Care Subsidy) 제도를 시행중이며, 대부분의 호주 가정에서 더 큰 액수의 아동보육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임. 또한 더 많은 가정에서 본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보육 보조금 지원 제도 변경 전에는, 연간 가구 소득이 \$80,000(한화 약 6,800만원)인 이하인 가정이, 보육비용의 85%를 보조 받았으나,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으로 90%까지 보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액은 낮아지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연간 가구 소득 최고액이 \$356,756에서 \$530,000로 인상됨. 이는 더 많은 고소득 가정이 보육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원주민 아동의 경우 연간 가구 소득의 액수나 양육자의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2주마다 최소 36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가구 소득에 따른 보육 보조금 지원은 다음의 표와 같음.

가구소득	현재 보조금	새로운 보조금
\$ 70,000	85.0%	90%
\$ 80,000	82.5%	90%
\$ 90,000	79.2%	88%
\$ 100,000	75.8%	86%
\$ 120,000	69.2%	82%
\$ 140,000	62.5%	78%
\$ 160,000	55.8%	74%
\$ 180,000	50.0%	70%
\$ 200,000	50.0%	66%
\$ 220,000	50.0%	62%
\$ 240,000	50.0%	58%

가구소득	현재 보조금	새로운 보조금
\$ 260,000	48.9%	54%
\$ 280,000	42.3%	50%
\$ 300,000	35.6%	46%
\$ 350,000	20%	36%
\$ 400,000	0.0%	26%
\$ 450,000	0.0%	16%
\$ 500,000	0.0%	6.0%
\$ 530,000	0.0%	0.0%

(해당 표는 안내서용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 보육 보조금 신청방식

- 보조금은 보육서비스 제공자(예: 유치원)에게 직접 지급됨.
- 신청을 위해서, 아동 양육자는 센터링크(Centrelink)에 연결된 마이가브(MyGov) 계정이 필요함.
-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에서 자격 및 CSS 청구 방법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함.

#### ■ 보육 보조금 신청 자격

-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만13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 상으로 함.
- 정부에 등록, 승인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양육자가 아동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당사자여야 함.
- 거주지 및 예방 접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총 소득 기반? 순 소득 기반?

- CCS는 총 소득인 과세 소득을 기반으로 함.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서 허용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임. 면세 한도(연간 \$18,200) 미만으로 받는 소득도 과세 소득으로 간주됨.

2023년 07월 10일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3-07-10/childcare-subsidies-are-increasing-here-s-what-you-n eed-to-know/102581828

# 2. 아동 주간

- 아동주간은 아동의 재능, 기술, 성취 및 아동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적 축하 행사임. 아동 주간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빅토리아(Victoria) 주 아동 수 천명 이 아동 주간 축제에 참여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의거하여, 이번 2023년 아동주간의 주제는 "아동의 쉴 권리, 놀 권리, 즐기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임.
- 아동주간에는 지역 의회, 비영리 단체, 학교 및 영유아 보육 서비스 기관에서 전시, 특별행사, 가상 공간 및 온라인 기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아동의 성취를 축하하는 활동을 할 예정임.
- ■모든 아동주간 행사는 출생부터 12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이 유익하고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2023년 아동주간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에 의하여 선정됨. 보조금 수령 단체는 아동주간 활동비용으로 최대 1,0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됨. 모든 행사는 아동 주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보조금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아동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김.
  - 전국 아동주간 주제를 기념하는 양질의 행사를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함.

2023년 10월

출처 : https://www.vic.gov.au/childrens-week

# **♣** 유아교육·보육

- 1. 호주,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 발표
- 호주 정부는 교육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교사 인력 지원 실행계획 (National Teacher Workforce Action Plan)을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 ■본 실행계획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기존 교사가 학교에 남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
- ■실행계획의 5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음.
  - 교사 공급 개선: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수 증가
  - 초기 교사 교육 강화: 교사 공급을 위한 교육대학교 및 대학원의 초기 교사교육 지원과, 준비된 교원을 보장
  - 현직 교사 수 유지: 현직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여 현직 교사를 유지함.
  - 전문성 향상: 교사의 학생, 지역 사회 및 경제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식
  - 미래 교사 인력에 대한 이해: 미래의 교사 인력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여 교사 인력 계획 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개선
- 정부 언론 발표에 따르면, 호주 전역 주정부의 교육부 장관들은 12월 12일 본 계획에 동의함.
- 호주 연방정부는 본 계획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3억 2,8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각 주와 준 주(territories)에서는 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
- 정부는 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교육부 장관들은 행동 계획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실행 계획은 호주의 교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실행 계획 발표는 2022년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개 협의를 거쳐 총 661건이 제출되어 완 성되었음.

- ■실행 계획 외에도 정부는 교육 종사자들이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처리 절차(시간) 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함.
- 빅토리아주의 일부 멜버른 공립학교는 1,100개 이상의 교사 공석 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더 많은 예비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 1만 달러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ABC 뉴스가 보도함.
- "호주에서 교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슬프게도 현재 상황은 심각한 단계에 있으며 이 상황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함. 위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 영역이 장기적인 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호주 고등학교 교장협회(Australian 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의 앤드류 파이어포인트(Andrew Pierpoint) 회장이전함. 또한, 호주 교원조합(the Australian Education Union)의 메레디스 피스(Meredith Peace) 연방 부회장은 "교사 부족현상은 전 연방 정부가 공교육을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로 언급함.
- 교원조합 회원들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 및 교사에 대한 존중 부족, 열악한 급여수준과 근무 조건, 심각한 업무량과 학교 별 불공평한 자금 지원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번 아웃을 지적하였음.
- ■교원조합은 "교사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피스 부회장은 이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모든 주 정부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사를 직업으로 삼고, 휴직하고 있는 교사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에 강력하게 투자해야 한다. 또한 영연방과 주 정부에서 공립학교를 위한 자금 지원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

2023년 01월 04일

출처: https://www.hcamag.com/au/specialisation/recruitment/australia-unveils-action-plan-to-address-t eacher-shortage/431686

#### 2. 서호주 지역사회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승인과 모니터링

- ■교육 및 보육 규제 부서(ECRU: The Education and Care Regulatory Unit)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승인 신청을 평가

- 국가 품질 기준에 따라 교육 및 보육 서비스 평가
-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지원 및 촉진
- 영유아 관련 사건 및 불만 사항 조사
- 규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 시행
- 또한 ECRU는 영유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유아 대상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 준수를 보장하며, 다른 규정을 활용하여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임. 모든 서비스 가 규정 준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도록 보장함.
- ■국가품질 프레임워크(National Quality Framework)는 호주 전역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위해 마련되어 있음. 서호주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국가법 2012(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WA) Act 2012)
  -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국가규정 2012(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2)
  - 국가 품질 표준(National Quality Standard)
  - 등급 및 평가 과정(Rating and Assessment process)
- 서호주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국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보육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영유아가 사고로 차량 안에 남겨져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육센터에 다니는 모든 아동이 센터로부터 정기적인 교통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위에 언급된 국가 규정 및 새로운 지침에 관한 정보는 ACECQA(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ority)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아동의 정규 교통 지원에 관한 변경사항(Information sheet Changes to regular transportation of children)

- 차량에 남겨진 아동의 위험 최소화(Information sheet Minimising the risk of children left in vehicles)
- 아동 운송 차량의 감독 지침(Information sheet Guidance for adequate supervision during transportation)
- 아동 운송 안전점검표 및 정기 교통일지 양식(Safe Transportation of Children Safety Checklist and regular transportation record form)
- ■국가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서비스는 가족데이케어서비스, 종일보육센터와 방과 후 보육으로 알려진 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해당됨.

출처: https://www.wa.gov.au/organisation/department-of-communities/education-and-care-regulatory-u nit#:~:text=From%20Wednesday%201%20March%202023,and%20Care%20Services%20National%20 Regulations.

- 3. 2023년 연방 예산: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 ■호주 교육 및 보육위원회(Early Learning and Care Council of Australia)는 교육 부문이 역사상 최대의 인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함.
  -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교육 부문 자격증과 학위를 받은 교사의 부족은 분명이 있었지만, 2021년 중반 이후로 심각한 근로 부담과 교사의 과중 업무,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불 만으로 인해 부족 문제는 더욱 급증하고 있음.
- ■호주 교육 및 보육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함.
  - 교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임금 보조금 및 장기적인 자금 지원 패 키지에 투자
  - 자격 있는 영유아보육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한 대상 지원 및 조치 기금 지원
  -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부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캠페인

# ■ 전국 가톨릭 교육 위원회(National Catholic Education Commission)

- 호주 전역에서 접근 가능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이 해당 거주 지역에서 진정한 신앙 기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톨릭 교육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함. 호주 전역의 신흥 국가적 교육개혁 우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정부 개혁 지원기금(NGRSF)을 2023년 이후로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함.

#### ▮기타권고 사항

- 비정부 학교를 위한 예산지원금프로그램(the Capital Grants Program)의 지원금을 증액 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등록금이 낮은 학교의 신축 및 확장
- 유치원 개혁기금 협상을 연장하여, 의무 교육을 시작하기 전 3세와 4세 아동(2년 동안)에 게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
- 교육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아동을 위해 취학 전 1년 동안 주당 15시간에서 주당 30시간으로 보육 지원 제공 증가 등을 요구함.

#### ■ 보육지원

- 지난 10월 예산에서 발표된 보육 개혁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4년 동안 724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예정임. 지속적인 전문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고등 교육 과정의 실제 구성 요소를 완료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포함될 예정임.

2023년 05월 10일

출처: https://business.nab.com.au/2023-federal-budget-what-it-means-for-education-59651/

# 4. 유치원 등록 인원 감소, 무료 보육의 보편화 촉구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문가들이 무상 유아교육, 보육의 보편화를 다시 요구하고 있음.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최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에는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아동이 2021년보다 4,575명 적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등록된 아동 4명 중 1명만이 무상보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10명 중 3명은 유치원에 시간당 \$5(한화 약 4300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음.

- ■교육 및 보육 전문가인 리사 브라이언트(Risa Bryant)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혼합모델 시스템(crazy mix model system)"은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통계청에 따르면, 4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334,440명이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4세 아동 10명 중 약 9명과 5세 아동 5명 중 1명이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보육 보조금 차감이후, 유치원에 등록한 아동 부모의 3분의 2는 시간당 4불 이하를 지출했고, 부모 10명 중 3명은 시간당 5불 이상을 지출함.
- 동시에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유형에 45,363명의 아동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13%의 증가를 보임. 리사 브라이언트는 부모가 다양한 자금 지원 혜택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여러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 주 정부는 유치원 보조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보육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음. 리사 브라이 언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라는 이분화된 시스템을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녹색당(Green Party)의 교육 대변인 메린 파루키(Mehreen Faruqi)에 따르면 호주 전역의 유치원에 등록한 아동 수의 감소에 대해 연방 정부는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유아교육과 돌봄은 무상이어야 하며 교육자들이 최고의 임금과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라고 주장함.
- 연간 소득이 \$520,000(한화 약 4억4천만원)까지인 가정을 위해 연방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보육 보조금율을 시행할 예정임.
- 또한 교직원 부족의 문제 역시 언급되었음. Goodstart 아동학습센터(Goodstart Early Learning Center)의 존 체리는 2022년 10월 상원위원회에서, 등록 증가로 인하여 7,000 개의 채용 공석을 채우기 위해 9,000명의 교직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함.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약 90개소의 Goodstart 기관에서 아동 등록을 제한시켜야 했음. 직원 수의 부족이 아동 등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침. 유아교육・보육 교직원의 채용과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2022년에는 유치원에 등록된 4세 아동의 87%는 2022년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교사 없이 유치원에서 지냈을 것임.
  - \* Early learning centre(아동학습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기관으로. 0세-5세 아동이 다닐 수 있다
- 또한 유치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접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명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

■ 2023년 6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보육 비용은 \$10.90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음.

2023년 06월 06일

출처: https://aussiechildcarenetwork.com.au/news/childcare-news/preschool-enrollment-is-declining-pro mpting-calls-for-universal-free-childcare

- 5. 무료 보육제도의 과도한 지원으로 토요일에도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하도록 요구받 는 빅토리아 부모들
- ■무료 보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빅토리아주의 3~4세 자녀를 둔 일부 부모는 토요일에 도 자녀를 보육센터에 보내라는 요청을 받고 있음.
- Early Childhood Australia(ECA: 호주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대표인 샘 페이지(Sam Page)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모든 3~4세 유아에게 15시간의 무료 보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빅토리아주의 아동보육 시스템은 아직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언급함. 이와 함께, "본 무료 프로그램이 2022년 6월부터 시작되도록 발표되었지만, 건물은 증축되거나 확장되지 않았고, 서비스 제공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본 새로운 제도는 아동을 보육에서 배제하지 않고 더 많은 아동이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에는 더 많은 건물이 증축되고, 직원들도 증원될 것이며, 빅토리아주 가정의 수요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힘.
- 교통부 장관(Public Transport Minister) 벤 캐롤(Ben Carroll)은, 이 제도에 따라 보육센터가 너무 압박을 받지는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주정부가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또한 더 많은 보육교사를 모집 중이라고 언급함.
- ■멜버른의 최소 4개 센터가 2024년에 3, 4세 아동을 위한 무료 토요일 보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계획을 발표 했다고 신문사 The Age가 보도함.
- ■일부 학부모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만,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2023년 07월 14일

출처: https://www.9news.com.au/national/victorian-parents-asked-to-send-children-to-kinder-on-satur days-to-ease-overwhelmed-system/39cd2b26-4089-4c66-aacc-f4938c44464c

- 6. 가정보육 서비스의 66%가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기준치 이상의 평가를 받음.
- ■최근 분기별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 스냅샷\*에 따르면, 국가품질표 준(NQS: National Quality Standard) 이상 등급을 받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비율은 8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 NQF 스냅샷: 국립품질표준(National Quality Standard, NQS)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을 받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프로필 및 품질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 가정 보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는 지난 5년 동안 크게 향상되어, 가정 보육 서비스의 66%가 표준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 이는 품질평가가 처음 발표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임.
- ■품질관리국(ACECQA)의 대표 가브리엘 싱클레어(Gabrielle Sinclair)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가 품질 프레임워크의 초석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교육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그에 따라 가정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호주 전역, 특히 시골 및 벽지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가정보육 서비스 제공업체가 많다. 가정 보육서비스는 교대근무자 및 응급근로자,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 특히 가정 보육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번 스냅샷은 국가품질체계(NQF)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가 17,300개 이상임을 보여주며, 지난 12개월 동안 2% 증가한 것을 포함해 전체 승인 서비스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음을 보여줌.
- ■보다 자세한 분석을 보여주는 추가 수치는 온라인 스냅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며,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로는 서비스 지역의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일보육 (long day care) 서비스 직원 면제 등과 같은 내용들이 그에 해당됨.
- NQF에 따라 승인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는, 종일보육, 방과후 보육, 가정보육 및 대부분의 유치원이 포함됨.

2023년 08월

출처 : https://www.acecqa.gov.au/latest-news/66-family-day-care-services-meeting-or-exceeding-stan dards

# 7. 3세 아동을 위한 조기 학습

- 3세 유아를 위한 조기 학습(EL3: Early Learning for Three Year Olds) 계획은 타스매니아 정부가 유치원 전년도의 모든 영유아에게 조기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임.
- 타즈매니아 교육부(DECYP,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ren and Young People) 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제공자(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과, 독립기관 부문 대표(Independent Representatives), 가톨릭 부문 대표(Catholic sector representatives), Co-Design Planning Group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3월과 4월에 타즈매니아 전역의 가족,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기 학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함.
- ■교육부는 타즈매니아 전역의 26개 도시와 마을에서 32회의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3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함. 지역 사회의 의견에 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음.
  - 링크: https://documentcentre.education.tas.gov.au/\_layouts/15/DocIdRedir.asp x?ID=TASED-1087178304-5891

#### ■3세 유아 조기학습(EL3) 시범 지역

-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후, 2024년 EL3구축을 위한 시범 지역 5곳이 선정됨.
- 광범위한 커뮤니티 참여와 적합성 평가 기준을 포함하여 시범 지역을 선택함.
- 교육부는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 ECEC 제공자 및 기타 주요 아동 서비스와 협력하여 시범 지역을 정하였고 각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게 시범 지역별 지원내용을 조정할 것임.
- 또한 교육부는 5개 시범지역의 EL3의 향후 확장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호바트(Hobart)와 론세스톤(Launceston)전역에서 추가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와 연구를 시작할 것임.
- EL3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참여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계획인 Working Together Initiative\* 를 보완할 것임.

\* Working Together Initiative: 노르만 웰스 사회복지 연구소(The Norman Wells Institute for Social Work)에서 제공하는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2023년 08월

출처: https://www.decyp.tas.gov.au/parents-carers/early-years/early-learning-for-three-year-olds/

- 8. 생애 초기 투자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남호주 정부는 아동의 생애 초기에 읽고 쓰는 능력의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 400만 달러 (약 한화 35억) 이상을 투자하여. 남호주 아동의 발달을 위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
- 이는 아동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왕립 위원회(Royal Commission)가 지난달 발표한 것으로 써 Words Grow Minds 라는 계획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음.
- Words Grow Minds 캠페인은 아동의 생애 첫 1,000일 동안의 발달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아동의 부모에게 정보를 주는 교육부의 조기 학습 전략의 계획임.
-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생애 초기 1000일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됨. Words Grow Minds 시범사업은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의 첫 1,000일의 발달과 관련된 정보패키지를 배포하는 동시에, 광고, 소셜 미디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연계하여 중요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 및 강화하는 남호주 최초의 캠페인임.
- ■배포된 정보패키지는 부모와 아동의 보호자에게 대화, 읽기, 노래 및 놀이를 통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늘릴 수 있는 도구 및 자료들과 관련 조언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도구들이 뇌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짐.
- ■본 사업은 남호주의 Mount Gambier에서 2022년 11월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23년 2월 Whyalla에서 시행되었음. Early Years Taskforce라는 기관에서 담당하였으며, 이 기관은 남호주 전역에 있는 유아 관련 서비스 기관,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의 연합체를 말함.
- ■본 캠페인은 가족에게 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시간, 관심임을 보여주고 가 정과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활동들과 팁을 제공함.

■또한 주 정부는 신생아를 위한 책의 지속적인 생산 및 배포를 위해 RLA(Raising Literacy Australia)에 약 100만 달러의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함. 이를 통해 21,000권의 '영아용 도서'를 남호주 가정에 배포하여, 생의 초기 영유아의 기초적인 수리 능력과 읽고 쓰는 능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023년 09월 8일

출처: https://www.premier.sa.gov.au/media-releases/news-items/multimillion-dollar-early-years-invest ment-to-change-lives#:~:text=The%20Malinauskas%20Labor%20Government%20will%20support%2 0the%20development,improve%20literacy%20and%20development%20in%20the%20early%20years.

## 9. 영유아 교사들에게 1200만 달러 지원금 제공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정부는 영유아 교사들에게 12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임. NSW 주가 영유아 보육교육(ECEC) 분야 교사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함에 따라 NSW 영유아 교사들이 12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것임.
-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위해 1200만 달러의 기금이 NSW 예산으로 확보되었으며, 이 중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자 지원책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됨.
- 10월 9일부터 해당 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교사 중, 교육기술 향상을 원하는 자, 유치원 교사가 되기 원하는 자, 학교 시간 외 보육(OSCH)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여 1,700명의 인력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임.
- 이러한 지원책은 ECEC 인력을 확대하고 이미 영유아 보육교육자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보육교육자와 해당 분야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신청이 지급이 가능함.

#### ■ 장학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보육교육 부분 교사 중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공부하는 ECEC 교사를 위한 최대 \$25,000의 장학금
- 관련 Graduate Certificates 또는 Graduate Diplomas 에 대해 최대 \$15,000의 장학금
- ECEC와 관련된 학위 또는 학령기 교육 및 돌봄 분야 관련 학위를 공부하는 ECEC 교육자를 위한 최대 \$5,000의 장학금

- ECEC. OSHC에서 Certificate III를 취득한 학생에게 최대 \$3.000의 장학금
-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노동당 정부는 현재 ECEC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중, 학업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과 앞으로 공부할 예비 학생들이 일 년 내내 본 장학금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용이하게 만듦. 원주민 학생만을 위한 지원방식도 만들어짐.
- ■본 자금은 영유아 보육교육 인력을 강화하려는 NSW 정부의 노력의 일부이며, 유지 관리를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보육 및 경제 기회 기금(Childcare and Economic Opportunity Fund)과 일반 유치원을 위한 57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임.
- 부총리 겸 교육 및 조기 교육부 장관인 프루 카(Prue Car)는, "어린 학습자를 교육하는 사람들의 미래 경력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이다. NSW 전역의 영유아 분야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지원은 크리스 민스 노동 정부가 지속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조치 중 하나이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이미 영유아 교육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민스 노동당 정부는 유아 교육 인력의 역량과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2023년 10월 09일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early-childhood-workers-given-12-million-boost

#### 10. 조기교육 분야 홍보를 위한 온라인 세션

- NSW 교육부의 ECE Connect Online은 아동의 조기 교육 및 보육 부문을 지원하고 홍 보하기 위한 13개의 세션을 이번 달에 선보임.
- ■주 전역에서 6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본 온라인 세미나에 등록하였으며, 그 중에는 11월20일 월요일에 시작되는 13개 세션이 포함됨.
- ■올 해 초 On the Road 투어라는 프로그램 성공에 이어, 이번 온라인 세션의 복귀는 질 높은 조기 학습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교육부는 NSW 전역의 10개 장소를 방문하고 500명이 넘는 교육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 그들의 경험, 피드백 및 아이디어를 경청함.

- 참석자들은 100개의 공립 유치원, 교직원, 보건 및 개발을 포함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및 계획, 규제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들음.
- ■영유아 결과부(Early Childhood Outcomes) 차관 대행인 Mark Barraket은 해당 분야와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중요하며, "ECE Connect를 통해 대도 시, 지방 및 농촌 지역의 아동 교육 및 보육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Blacktown, Dubbo, Bourke, Moree, Tamworth, Port Macquarie, Lismore, Nowra, Cessnock 및 Fairfield에서 열린 대면 세션의 성공이 아동 교육 부문에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의 재확인 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함. 또한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세션이 유용하며 유익하다고 대답하였으며, 부서 및 지역 부문의 동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통찰력을 공유하고 가장 어린 학습자인 아동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음.
- ■교육부의 아동 교육 및 보육 부서 대표자들은 전문가 연설자들과 함께 아동의 건강 및 발달 점검, 위험 탐색, Start Strong 및 비상상황 관리에 대한 통찰력과 정보를 공유할 것임.
-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안전한 수면습관, 승인 절차, 아동의 안전한 도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의 변경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변경사항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임.

2023년 11월 20일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online-sessions-to-promote-early-education-sector

# \*\* 돌봄

- 1. 홍수로 피해입은 서호주(Western Australia) 및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의 가족 및 유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긴급지원
- ■호주 교육부는 2023년 1월 6일~2023년 1월 17일 해당 기간 동안 Shire of Broome(WA) 및 Shire of Derby-East Kimberley(WA) 및 Victoria Daly Regional Council area(NT) 지역의 가정을 위해 보육보조금 긴급지원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함.
  - 직접적인 홍수 피해로 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 보육보조금(CCS)을 계속 받을 수 있음.
  - 홍수로 인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출석하지 않거나 보육서비스가 폐쇄된 경우 갭 수수료를 면제받음.
  - 긴급지원 기간 동안 무제한 결석이 가능함.
-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음.
  - 홍수로 인한 긴급지원 기간 이후에 아동이 보육기관을 결석 가능한 날을 다 소진한 경우에 도 추가 결석이 가능함.
  -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은 추가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링크(Centrelink)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 응급 상황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보육기관이 계속 문을 열고 보육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 상황 보조금(Community Child Care Fund)을 받을 수 있음.
- 관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호주 정부는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조금과 지원을 제공하며, Services Australia웹사이트에서 지원 자격을 알아 볼 수 있음.

2023년 01월 10일

출처 : https://ministers.education.gov.au/clare/support-families-and-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services-wa-and-nt

- 2. 아동의 목소리에 맞춘 품질 실천-맥그리거 방과 후 돌봄(Macgregor Outside School Hours Care)센터 사례
- 아동의 생각, 견해, 관심, 필요에 반응하는 것은 모든 유아기 환경에서 프로그램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함. 아동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자족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킴. 안전하고 행복한 느낌은 아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고, 탐구하며 시도해 보고자 하는 자신 감을 줌.
- 맥그리거 방과후 돌봄(Macgregor 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팀은 각 개별 아동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팁과 시행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함. 동영상 시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함.

https://youtu.be/ZUrXIFo9-bA

- 맥그리거 OSHC교육 지도자인 Amanda Lowe는 MOSHC(Macgregor Outside School Hours Care)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의 중심에는 "아동"이 있으며, 아동은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접근하는 모든 방식은 어른이 아니라 아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강조함.
- MOSHC센터는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이 반드시 프로그램으로 개발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동이 그 활동을 원한다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단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그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자는 함께 실행하고 아동이 원하는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 이처럼 국가 품질 프레임워크(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의 장점은 각 서비스가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 수행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임.
- MOSHC팀이 수행하는 방식은 '나의 시간, 우리의 공간 학습 프레임워크(My Time, Our Place Learning Framework)'를 따름
- ■매주 교육자에게 학습 스토리를 문서화하도록 요청하며, 이러한 학습 스토리와 더불어 아동과 부모의 제안에 대한 아동의 피드백과 관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 모든 것을 프로그램에 포함함. 프로그램 제공과 아동의 학습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자가 문서화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없음.

2023년 12월 08일

출처: https://earlychildhood.qld.gov.au/sector-news-and-resources/news-for-educators-and-service-providers/quality-practice-in-tune-with-young-voices

# \*\* 기타

- 1. 호주 아동의 등하원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 호주의 아동들은 등하교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 것 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등하교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이에 시드니 시의회는 안전한 경로를 개발하여 혼잡한 도로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건널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 아동이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것이 건강과 학습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음. 그것은 바로 아동을 과잉보호하는 부모, 혼잡한 도로, 무거운 책가방임.
- ■호주 시드니 동부의 웨이버리(Waverley council) 지자체는 아동의 안전한 통학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학교와 협력 중임. 웨이버리 시장인 Paula Masselos은 도보와 자전거이동이 더 안전해지도록, 표지판 유형과 교통 속도를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위험을 걱정하는 부모는 많은 아동이 학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동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
- 지난 40년 동안, 학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아동의 수는 전체의 75%에서 25%로 감소함.
- 갈라이리 가톨릭 초등학교(Galilee Catholic Primary) 교장 브라이언 앤더슨(Brian Anderson)은 "학교까지 걷는 것은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학교까지 걸어가면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 연구에 따르면, 학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아동들은 수업 시작 후 몇 시간 동안 다른 아동보다 더 집중력이 좋다는 결과를 보여줌.
- 뉴사우스웨일즈(NSW) 교육부 대변인은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인 안전한 보행 습관을 습득하고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언급함.

2023년 02월 20일

출처: https://www.watoday.com.au/national/nsw/australian-children-aren-t-walking-to-school-but-there -s-a-plan-to-change-that-20230131-p5cgxh.html?ref=rss&utm\_medium=rss&utm\_source=rss\_feed

#### 2. 타즈매니아 교육부. 학교 수업의 중요성 강조 캠페인 시행

- ■약 6만명의 학생들이 타즈매니아 공립학교에 입학함. 교육·아동청소년부 장관인 로저 안슈 (Roger Jaensch)는 Penguin District School에서 2023년도 개학을 맞이하며, 축사를 발표함.
- 락클리프 자유당 정부(Rockliff Liberal Government)는 Penguin District School의 재 개발을 위해 2,0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매일 등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Every school day matters'라는 캠페인에 대해 알림.
- ■로저 안슈(Roger Jaensch) 장관에 따르면, "교육은 우리 주의 사회 및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적이고 최신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Every school day matter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언급함.
- ■이 캠페인은 학생의 정기적인 학교 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학교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장소임을 알리며, 밝은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격려하였음.
- ■로저 안슈(Roger Jaensch) 장관은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학생의 사회적 기술, 관계 및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본 캠페인은 타즈매니아 주 전역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무료 방송 텔레비전, 디지털 광고, 라디오, 광고판 및 버스에서 홍보할 예정임.
- ■캠페인에 관한 동영상이나 학생 또는 부모를 위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nything.tas.gov.au/

2023년 02월 08일

출처: https://www.premier.tas.gov.au/site\_resources\_2015/additional\_releases/every-school-day-matters

# 3.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규칙에 대한 국가 정책

■ 연방 교육부 장관(Jason Clare)은 공립학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국가적 정책 시행의 "시기"가 왔다고 언급함.

- 퀸즈랜드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의 공립학교는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등원 시 전면적인 금지부터 전원 차단에 이르기까지 규칙이 다양함. 퀸즐랜드 주 총리 (Annastacia Palaszczuk) 역시 국가 정책이 도입되면 "적극 지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함.
- 연방 교육부 장관은 'ABC 라디오 브리즈번'에서 향후 몇 달 안에 만나게 될 주 및 준주 교육부 장관들에게 "국가적 모범 사례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며, "현재 주 및 준주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일부 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만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주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의 재량에 의해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휴대전화를 자석으로된 주머니에 보관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며 지역 및 학교마다 규칙이 다름을 언급하였음.
- 각 주 및 준 주 교육부 장관들은 또한 클릭 한번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챗봇인 ChatGPT 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ChatGPT 사용은 일부학교에서는 이미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금지가 된 상태임.

# ▮호주 전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칙

- 2023년 4학기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공립고등학교의 교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됨.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가 금지되어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
- 노던테리토리 주의 초등학생은 전화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중고등학생은 휴대전화 전 원을 끈다면 휴대할 수 있음.
- 남호주 주의 44개 공립학교와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음.

#### ■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

- 선샤인 코스트 대학의 마이클 네젤(Michael Nagel)교수는 과학기술이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며,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야 하는 청소년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함.
- ■호주 고등학교 교장협회(Australian 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의 앤디 미슨 (Andy Mison)은 학부모와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극도로" 파괴적이고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업시간에 자녀와 대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교로 연락하는 것이 가능함.

■ 크리스찬 로웬(Christian Rowen) 퀸즐랜드 야당 교육부 장관은 차기 노동당 정부가 뉴사 우스웨일즈 주에서 공립학교 내의 휴대폰 사용금지령을 내릴 계획이며, 야당이 모니터링 할 예정임을 밝힘.

2023년 04월 14일

출처: https://www.abc.net.au/news/2023-04-14/national-mobile-phone-ban-and-restrictions-in-schools /10222320

- 4. 부적절한 감독으로 Genius Learning센터에 \$15,000 벌금 부과
- ■호주 첨사이드(Chermside) 지역의 Genius Learning센터에서 돌봄을 받던 두 명 아동이 감독이 부재한 상태로 센터를 떠나 약 15분 동안 사라진 사건이 있었음. 이에 Genius Learning센터는 15,000달러(한화 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음.
  - \* Genius Learning Center는 호주에 위치한 교육 기관으로, 학습 지원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 센터임.
- 2세와 3세 아동 두 명이 고장난 비상구를 통해 센터를 벗어나, 근접한 대형쇼핑몰과 주차 장에 접근하였고, 이를 발견한 지역주민에 의해 아동을 센터로 돌려보냄.
- 퀸즐랜드 아동규제감독부서(Queensland Early Childhood Regulatory Authority)는 Genius Learning센터에 대해 아동의 적절한 감독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함.
- ■본 소송은, 모든 교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아동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 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동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15,000의 벌금은 이러한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음.
- 피터 새거스(Peter Saggers) 치안 판사는 Genius Learning 센터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결정할 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기대치를 고려하고, 사건에 대한 센터의 반성, 사건 직후 센터에서 아동의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해 취한 조치를 인정하여 벌금이라는 형량을 결정함. 또한 Genius Learning 센터에서 이전에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함.

■ 퀸즐랜드 교육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리 감독을 촉진하고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 퀸즐랜드 아동규제감독(Queensland Early Childhood Regulatory Authority)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함.

2023년 06월 16일

출처: https://earlychildhood.qld.gov.au/news/educators/genius-learning-fined-for-inadequate-supervision

# 5.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무료 건강 및 발달 검사

-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및 발달 검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더 많은 가족이 자녀의 발달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임.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교육부와 NSW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유치원, 지역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종일보육센터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ECEC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4세 아동이 무료로 검사를받을 수 있음.
- 지역보건지구(Local Health District, LHDs)의 보건 전문가는 예약 서비스를 통하여 유아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고, 아동의 신체 및 인지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말하기 및 의사소 통 기술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살펴 볼 예정임.
- ■본 프로그램은 원주민 아동의 발달이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주민 격차 해소 (Closing the Gap) 목표 4번과 일맥상통하며, 2031년까지 호주 아동 발달에 관한 조사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의 5개 영역에서 원주민 아동 발달이 55%까지 증가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보건지구는 ECEC 서비스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 및 문화적 필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임.
- 2023년 말까지 NSW 전역의 일부 지역보건지구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4 년 말까지 주 전역에 시행될 예정임.
- 크리스 민 노동당 정부(The Minns Labor Government)는 이 프로그램에 4년에 걸쳐 1 억 1,120만 달러(한화 약 960억원)를 투자하고 있음. health.nsw.gov.au/ececchecks에 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2023년 09월 25일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free-health-and-development-checks-for-preschoolers

#### 6. NSW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준 마련

- 영유아 보육교육(ECEC)을 포함한 아동 관련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NSW 아동 안전제도 (NSW Child Safe Scheme)에 포함됨. 본 제도에 따라 NSW의 모든 ECEC 서비스는 아동안전기준(Child Safe Standards)을 따라야함. 아동안전기준은 아동 관련 기관이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문화를 개발 및 유지하도록 지원함.
- ■국가품질표준(National Quality Standard, NQS)과 아동안전기준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함. 중요한 차이점으로, NQS는 호주 전역의 ECEC 서비스 품질에 대한 표준을 만드는 반면, 아동안전기준은 아동관련 기관에게 모든 활동을 아동안전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함. 올해 초 발효된 법률에 따라 NSW Children's Guardian는 NSW ECEC 부문의 아동안전기준 이행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 아동안전기준(Child Safe Standards)

- 아동안전기준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에서 만듦.
- 왕립위원회는 "아동안전기준은 아동관련 기관이 아동의 안전에 관한 역량을 평가하고 성취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이 된다. 본 기준은 아동관련 기관이 아동의 안전부분을 분명히 하도록 돕는다. 모든 기준은 그 중요성이 동일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설명함.
- 본 기준은 왕립위원회의 광범위한 연구와 협의를 기반으로, 아동 관련 기관이 아동관련 문화를 만들고, 안전관련 전략을 세우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
- 아동과 협력하는 모든 기관은 아동안전 기준을 구현하고, 아동의 안전에 관한 관행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아동 안전기준 10가지는 각각 안전기준을 구현 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들도 함께 언급되어 있음.

# ▮ 아동안전 관련 평가

- 아동안전에 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웹페이지(Child Safe Self-Assessme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Children's Guardian에서 제공하고 있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 아동안전 기준의 구현방법에 있어서의 잘하는 영역과 향상되어야 할 영역을 평가 받을 수 있음.
- 본 평가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응답자가 자가 평가를 마치게 되면, 그 응답을 기초 하여 현재 평가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동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들이 포함된 맞춤형 평가보고서(Assessment and Action Report)가 작성됨.

2023년 12월 14일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leadership/news/setting-the-standard-forpreventing-child-abuse

# 2023년도

# 해외육이정책 동향정보 자료집